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0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9월 3일)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코로나 위기는 기회 백만원력 모아 도약

키워드로 보는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임기가 9월 27일 종료된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이 지난 4년간 36대 집행부가 일궈낸 주요성과와 걸어온 길을 자료집으로 엮었다. '제36대 총무원장 벽산 원행스님 성과자료집 편찬위원회(위원장 삼혜)'가 발간한 성과자료집 '종단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 미래를 만들어 온 4년'은 그간 성과를 총 10개 분야로 정리했다.

또 36대 집행부의 발원과 중점 종책 기조 등을 함께 담아, 시작과 마지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부록으로 원행 스님이 주요행사 및 법석에서 한 말씀원고와 주요 언론기사, 내외빈 면담 일지 및 간행물 발간 목록까지 첨부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자료집을 토대로 제36대 집행부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키워드로 정리했다.

종단 내부의 어려움 속 출범
'소통 · 화합' 종책기조로 안정
전세계 강타한 코로나19사태
또다시 직면한 사상초유 위기
희생 감내한 결단에 모범방역
사찰 고통 분담 · 비대면 구축

#위기 2018년 9월 28일 출범한 제36대 집행부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前총무원장의 갑작스러운 궐석으로 종단 안팎의 혼란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무원장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한 원행 스님의 어깨에 무거운 책임이 놓였다. 36대 집행부에는 종단 혼란을 안정시키고 분열된 종도들을 화합시키는 한편, 조계종의 대외적 위상을 회복시켜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가 주어졌다. 36대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을 최우선 종책과제로 삼았다. 그리고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겠다"는 확고한 발원으로, 종단 안정을 넘어선 미래 발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혁신과 승려복지, 교구중심, 문화창달, 교육과 포교, 사회 등을 과제로 삼아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원행 스님을 필두로 한 집행부 소임자들의 묵묵한 노력으로 종단은 빠르게 안정됐다. 그러나 또다른 위기가 닥쳤다. 바로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유례없는 바이러스 감염확산은 종교계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은 그간 대면을 토대로 한 신행문화의 급격한 변화를 예고했다. 36대 집행부는 숙고 끝에 전향적인 결단을 내린다. 방역지침 준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선제적으로 산문 폐쇄를 결의한 것. 대면 접촉으로 확산되는 바이러스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과감한 행보에 나선 것이다. 1년 중 불교 최대명절인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자 연등행렬을 취소하고 봉축법요식 일정도 연기했다. 불교계의 수준높은 방역은 사회의 모범이 됐으며 국민들의 찬사, 정부의 감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선사찰의 재정 악화, 불자들의 신행생활 중단으로 인한 후유증은 극심했다.

#기회로의 전환 36대 집행부는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파가 한국불교의 위기를 예고했다면, 좌절하기보다 함께 원력을 모아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다. 대면 중심의 신행활동을 비대면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됐다. 사찰 참배의 최소화 지침이 지속적으로 배포되는 가운데, 온라인을 활용한 법회 중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종단적 지원과 노력이 이어졌다. 불교가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오랜 지적이 무색할 만큼, 종단과 일선사찰, 신도들의 신행형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만에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3면에 이어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B1~4면



9월 21일 조계종 종정 예하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스님들과 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 이원욱 국회 정각회 명예회장 등이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성파 대종사의 이번 국회 방문은 조계종 종정 스님으로는 사상 최초로 이뤄졌다. 사진제공=조계종

조계종 종정예하, '사상 최초' 국회 방문

성파 대종사, 9월 21일 김진표 의장 등에 '화합 · 소통' 당부

정각선원 현판식 제막도 진행
정각회 법회선 국민격려 법문
"매화향 피어나듯 인내 해야"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가 9월 21일 조계종 종정으로서 사상 최초로 국회를 방문했다. 성파 대종사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화합'과 '소통'을 당부했다.

이번 성파 대종사의 국회 방문은 불자 국회의원들의 신행모임인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의 초청에 따른 것이다.

성파 대종사는 국회 도착 후 먼저 국회 접견실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등과 차담을 나눴다. 이어 국회 대회의장을 비공개로 둘러보았다. 또 성파 대종사는 국회 법당인 정각선원(正覺禪院) 현판식에 참여한 후 정각회 법회에서 국난 극복과 국민 화합을 주제로 법문했다.

성파 대종사는 법회서 '매화향'을 사례로 들며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했다.

성파 대종사는 "뼈에 사무치는 겨울을 이겨내야만 매화 꽃 향기가 코를 찌르기 마련"이라며 "우리가 현재 여러 가지 고난, 특히 경제난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그런 아픔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파 대종사는 "우리가 정치인 등 남탓을 하는게 아닌 각자 열심히 정진하면 언젠가는 매화처럼 코를 찌르는 향기를 토할 그런 때가 분명히 온다"고 희망을 전했다.

주호영 정각회장을 비롯한 정각회 국회의원들에게는 "민족을 위한 보살행을 하고 계시지만 더욱 더 보살행을 잘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차담 자리에서도 성파 대종사는 여야 화합 및 국민 통합을 당부하며,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불교문화를 비롯한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에 정치권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전했다.

성파 대종사의 국회 방문에는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 등 불교 대표 스님들과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재가불자들이 함께 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원욱 정각회 명예회장과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나와 맞이했다. 또 통도사 등에서 300여 불자들이 방문 일정을 함께 했다.

법회 후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사부대중은 국회 모임장소인 사랑재로 자리를 옮겨 오찬을 함께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 1만 대중 함께 한다

조계종, 10월 5일 조계사서 봉행
우정국로에 특설무대 설치 예정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법회는 10월 5일 1만여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법석으로 마련된다. 특히 제37대 총무원 운영기조를 토대로 불교중흥의 새로운 역사를 대내외로 선언해, 한국불교의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조계종은 10월 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 및 우정국로 특설무대에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법회를 거행한다. 조계종 취임준비위원회는 9월 21일 3차 회의를 열고 취임법회 봉행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이같이 확정했다.

취임준비위원회는 "개혁종단 이후 단일후보로 합의추대된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취임을 맞아 종단의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불교중흥의 새 역사를 사부대중과 함께 선언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취임법회는 1만여 사부대중과 함께 봉행할 것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준비위원회는 합의추대 기반을 마련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과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을 취임법회 봉행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진우 스님의 임기는 9월 28일부터 시작되지만, 10월 5일 취임법회를 기점으로 제37대 총무원 집행부 공식출범이 대내외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법회

일 시
불기2566(2022)년 10월 5일(수) 오후 2시

장 소
조계사 대웅전 특설무대 / 우정국로 특설무대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취임법회 봉행위원회



종지협, 예루살렘·바티칸서 소통·상생 행보

9월 13~21일 이웃종교 성지순례

종지협 차원 상호이해 위한 교류
원행 스님 "공존 위한 지혜 필요"
교황 만나 종교 초월 평화도 발원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종지협이 9월 13~21일 이웃종교 성지순례 일환으로 이스라엘과 바티칸을 방문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한국 7대 종교 수장들이 개신교 기반인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가톨릭 총본산 이탈리아를 방문해 종교간 벽을 허무는 화합과 상생의 교류 활동을 펼쳤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의장 원행)는 9월 13일부터 '이웃종교 성지순례' 를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본 후 이탈리아 아시시, 시에나, 로마 등을 찾았다. 프란치스코 대성당과 가타리나 성녀의 생가, 성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시국 등을 둘러본 후 9월 21일 귀국했다.

첫 공식일정은 9월 14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0km 가량 떨어진 '베들레헴' 으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기독교 성지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간 분쟁지역이기도 하다. 베들레헴 시장에게 환대를 받은 원행 스님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의 종교계뿐 아니라 베들레헴도 자유와 평화가 공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베들레헴이 원하는 '평화' 의 지향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고 전했다.

다음날인 9월 15일에는 라틴 교회 가톨릭 대주교 주교관을 찾아, 예루살렘 라틴 교회 가톨릭 총대주교인 피에르바티스타 피자발라(Pierbattista Pizzaballa) 대주교와 환담했다.

이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고 묻힌 '예수 무덤 성당' 을 시작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둔 '골고다 언덕' , 예수가 승천한 올리브산 '예수 승천 경당' , 예수가 예루살렘의 붕괴를 예언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는 '눈물 성당' , 피땀 흘려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갯세마니 성당' 등을 차례로 찾았다.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기 전 마지막 일정은 '통곡의 벽' 이었다. 9월 16일 방문한 통곡의 벽은 유대교 성지로, 로마인에 의해 파괴되고 서쪽 벽만 남았다.

원행 스님은 "척박한 기후와 다양한 민족이 엇갈리는 가운데서도 지극한 모습으로 참배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고 더 큰 불행이 오지 않게 하는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종교 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종교 지도자들의 무거운 책임도 느꼈다. 종교를 떠나 누구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세계 평화, 모든 인류가 공존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9월 20일에는 이웃종교 성지순례 일환으로 가톨릭 성지를 순례하던 중, 로마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저 '마르따의 집' 앞에서 진행된 이번 만남은 종교를 초월해 세계평화를 함께 발원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국과 같은 한국에서 지옥 같은 이곳으로 온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드린다. 오늘 미사는 여러분께 봉헌한다는 의미"라며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감사드린다. 여러분 또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전했다.

교황은 각 종교계에서 마련한 선물과 그에 담긴 의미를 들으며 감사를 전했다. 조계종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친필 사인이 담긴 중요무형문화재 백산 김정옥 선생의 다기를 전달했으며 천주교는 한국 전통 공예 인형을 선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지도자들을 비롯해 수행단 전원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묵주를 건네며 악수와 환한 미소로 축복을 빌었다.

한편 이번 순례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김희중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장, 김현성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임시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손진우 유교 성균관장, 박상종 천도교 교령,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동참했다.

조계종 18대 종회의원 선거…교구10곳 경선·14곳 무투표

9월 22일 후보 등록 마감
81명 선출에 94명 출사표
직선직 14개 교구 무투표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전체 24개 교구본사 가운데 10곳에서 경선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14개 교구본사의 경우 2인 선출에 2인이 후보등록함에 따라 투표 없이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당선이 확정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세영)가 9월 22일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접수를 마감한 결과, 81명 선출에 총 94명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본사당 2인 의원을 선출하는 교구본사 가운데 10곳에서 경선이 예상된다. 제6교구본사 마곡사는 종봉·제민·태진 스님이, 제14교구본사 범어사는 석산·도림·범종 스님이, 15교구 통도사는 진각·보화·진무 스님이, 16교구본사 고운사는 도륜·등안·혜산 스님이, 17교구 금산사는 화평·각진·원묵 스님이, 21교구본사 송광사는 진경·일화·시공 스님이, 제24교구본사 선운사는 태효·재안·도정 스님이 후보로 나서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종회의원 3명을 선출하는 제10교구본사 해인사의 경우 응관·학암·불암·향록·제정·종인 스님 등 2배수인 6명이 후보 접수했으며, 4명을 선출하는 직할교구는 효명·종원·진우·도심·탄웅 스님이 출마해 선거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제9교구본사 동화사의 경우 애초 3명이 후보로 등록했으나, 이 중 선안 스님이 사퇴해 선광·호암 스님이 투표 없이 당선될 것으로 보인다.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교구본사는 14곳이다. 제2교구본사 용주사는 탄탄·덕운 스님,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우송·삼조 스님,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해량·설암 스님, 제7교구본사 수덕사는 주경·정범 스님, 제8교구본사 직지사는 묘장·현무 스님, 13교구 쌍계사는 지현·현담 스님, 18교구본사 백양사는 만당·석장 스님, 19교구 화엄사는 대진·연규 스님, 22교구 대흥사는 설도·향문 스님, 12교구본사 봉선사는 보관·혜공 스님이 후보 등록했다.

이들 교구본사들은 2인 의원 선출에 2인 출마로, 선거 없이 자격심사를 통과할 경우 당선 확정된다.

10개 직능분야당 각 2인씩, 총 의원 20인을 선출하는 직능대표 분야에는 모두 21명 후보가 출마했다. 보인·경암·법원(직할)·진화·가섭·우석·덕현·진각·무관·오심·심우·탄원·원명·현담·우봉·법원(대흥사)·성웅·각연·법성·원각·무경 스님으로, 사퇴하는 후보가 없을 경우 10월 10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에서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비구니의원 10인 후보는 진상·철우·법해·설해·정운·혜도·정관·지인·혜성·진명 스님으로, 전국비구니회 비구니의원 후보 선출을 통해 확정된 10인이 변수 없이 접수됐다. 비구니의원 후보 역시 자격심사를 통과하면 당선 확정된다.

한편 제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10월 13일 각 교구본사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9일 회의를 열어 종회의원 후보자 자격심사를 진행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진제 법원 대종사, 동국대 5000만 원 기부

9월 19일 남해 성담사서 전달
불교학술원 위해 거액 '쾌척'



조계종 제13대·제14대 종정 진제 법원 대종사가 불교학 진흥을 위해 동국대에 거액의 기금을 쾌척했다.

진제 법원 대종사는 9월 19일 주석처인 경남 남해 성담사에서 동국대에 기부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사진> 기부금은 대종사의 뜻에 따라 동국대 불교학술원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고승대덕 스님들의 디지털 법어집을 구성하고 있다. 진제 대종사는 올해의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돼 이를 계기로 동국대에 기부를 결심했다.

이날 진제 대종사는 "불교종립대학 동국대가 이번 〈중앙일보〉 평가에서 9위를 하는 등 크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3대 사학의 위상을 찾기 위해 교직원과 학생 모두 마음을 모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이에 윤성이 동국대 총장은 "지난 10년간 한국불교를 종정으로서 이끌어주시고, 꾸준히 동국대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를 통해 동국대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신성민 기자

법원, 법화종 안정사 불법점유 인정

창원법원 통영지원, 9월16일 결정
이재열(승헌)·김연기(호암) 등에
"주지스님 운영·관리 방해 말라"
종무 금지 등 집행관 공시결정


안정사 전경.

법화종 총본산 안정사가 종단 정상화 이후 공식주지 임명에도 일부 해종세력들의 불법점거 및 재산멸실 시도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종세력의 사찰 장악행위를 불법으로 확인하고 업무 방해금지를 명령했다.

특히 법원은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스님이 정식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前재산관리인)의 정당한 사찰관리 및 운영 권한을 인정하고, 이재열(승헌, 前주지), 김연기(호암, 前주지)를 비롯해 이들의 지시를 받은 제3자의 업무방해 행위를 원천 금지토록 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안정사가 법화종 총본산으로서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민사부는 9월 16일 안정사와 총무원이 임명한 주지 원담 스님이 前주지 이재열(승헌, 체탈도첩), 김연기(호암, 승적 없음)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특히 이재열·김연기 씨에 대해 안정사와 주지 원담 스님의 사찰운영 및 관리업무를 방해해선 안 되며 집행관은 해당명령의 취지를 공시토록 했다.

법원이 구체적으로 적시한 방해금지 항목에 따르면 △사찰 기부금 등 금품 수령, 예치 및 비용집행에 관한 행위 △사찰 명의 예금통장, 신도카드와 주소록 일체, 공과금 납부 관련 일체, 임직원 현황 및 임금 지급내역 일체, 재산목록과 회계 장부를 비롯한 장부 일체 등 채권자(안정사·주지 원담 스님)가 안정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지료의 관리·작성·보관 행위를 등 종무행위 전반에 대한 모든 사항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안정사 소유 문화재 일체에 대한 이동·관리·보관에 대한 방해 행위는 물론, 안정사 소유 동산을 사찰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안정사는 전통사찰로 보물 제1692호 영산회괘불도, 보물 제1699호 동종,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83호 통영안정사연, 삼불회도 등을 보유한 사찰이다.

재판부는 또 이재열·김연기 씨는 안정사의 대표자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안정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해 위임을 받은 사람이 안정사 소유 부동산 등에 출입·사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송지희 기자



대규모 종단불사 순항…불교문화 세계로

위기 속 사부대중 원력 결집
백만원력결집 이례적 동참률
불교중흥 실현 일궈낼 토대

전통문화 보존 · 활용 큰 관심
규제법령 개선작업도 본격화
연등회 등 세계 속 불교문화

〈1면에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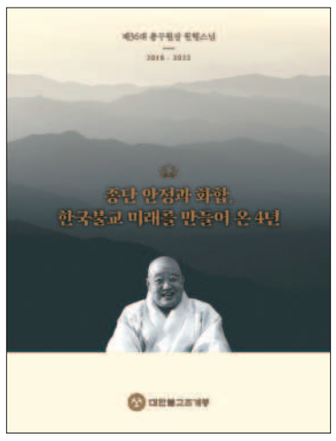
사찰을 찾지 않아도 안방에서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빠르게 마련됐고, 불교계 각종 회의와 주요행사는 실시간 생중계 및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36대 집행부는 일선사찰의 어려움도 외면하지 않았다. 재정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분담금 감면을 결의한 것. 이에 조계종 스님들은 사회와 함께하기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를 결정해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어려움 속에서, 서로 연대하는 힘으로 희망을 전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나간 모습으로 평가된다.

#원력 조계종 제36대 집행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닥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가는 과정은, 사부대중의 마음과 원력을 모으는 계기로 이어졌다. 바로 핵심사업 '백만원력결집불사' 다.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담보할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원력으로 백만원력결집불사를 선언했다. 굵직굵직한 종단 목적불사들을 백만대중의 원력으로 일궈내겠다는 포부였다. 그러나 십시일반 모연에 의존한 대규모 불사는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많았다.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무엇하나 쉽지 않은 불사인데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와 민생경제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부대중의 원력은 그야말로 어려움 속에서 빛을 발했다. 한국불교 중흥의 토대를 만들어가는 길에 동참하고자 원력을 세운 수많은 사찰과 스님 · 불자들이 하루 100원을 보시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 시작한 것. 백만원력결집불사 선포 이후 불과 4년만에 120억 원이 모연됐고 분황사, 광제사, 계룡대 호국흥제사 건립불사가 잇따라 결실을 맺었다. 불교문화재연구시설은 공사에 착수했으며, 오랜 시간 답보상태에 빠져있던 10.27법난 기념관 건립불사는 사업대상지 변경을 통해 조속 추진을 앞두고 있다. 어렵게 모아낸 사부대중의 원력을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로 이어가는 것은 차기 집행부의 과제로 남았다.

#전통문화 보존 36대 집행부는 전통문화 보존과 활용에 남다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특히 '전통문화유산은 미래의 자산' 이라는 확고한 신념으로, 사찰 관련 각종 규제법령 폐지와 대체입법 추진에 매진했다. 불교 관련 국가법령 제 ·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종단의 오랜 과제로 묵혀왔던 제개정 목록과 제개정안들을 정리해 순차적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농지법 시행령 개정과 매장문화재 소유권 판정절차의 간소화, 문화재보호법 개정 성과를 일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해법과 대안을 담은 법안 발의를 이끌기도 했다.



제36대 집행부 성과자료집.

윤석열 정부가 전통문화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도 이어졌다. 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해 불교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정책자료집을 제작 · 배포하는 등 노력을 개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모두 전통문화 보존정책을 비롯한 불교공약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실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전통문화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정책발전을 이끄는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불교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연등회의 유네스코 지정은 불교를 넘어 국가적인 경사였다. 한국 전통문화의 기저에 새겨져 있는 불교유산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36대 집행부는 연등회의 유네스코 지정에 이어, 올해 20주년을 맞은 템플스테이 홍보를 확대하고 세계최고(最古) 금속활자〈직지〉의 영문, 불어 번역서 발간을 통해 내용적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매진했다.

#차별에서 평등으로 36대 집행부는 종교편향 불교왜곡 근절과 한국불교 자주권 수호를 위한 전국승려대회를 봉행하기도 했다. 승려대회는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종교간 갈등을 예방하고 잘못을 개선해, 우리사회가 진정한 화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우리사회 모든 차별을 없애고 평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편찬위원회는 성과자료집에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36대 집행부는 이제 소임을 마치고 수행과 포교의 현장으로 돌아간다"며 "미래불교를 열겠다는 서원으로 일궈낸 소중한 성과들이 향후 종단 발전과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무산선원은 9월 19일 오후 선원 내에서 '제1회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사진= 노덕현 기자**

무산 스님 예술혼, 북악산 자락 적시다

무산선원, 9월 19일 시 낭송회
개막식에 문화계 인사 대거 동참

서울 북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무산선원에 세간에서는 '시조시인 조오현'으로 알려진 무산 스님(1932~2018)의 작품들이 초가을을 알리는 바람을 타고 잔잔히 울려 퍼졌다.

무산선원(주지 선일)은 9월 19일 오후 선원 내에서 '제1회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를 개최했다. 설악만해사상실천선양회의 후원으로, 개원식과 함께 진행된 이날 시낭송회에는 이근배, 오세영, 조정래, 김초혜, 유자효, 정호승 등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뿐 아니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양규 국회의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김희옥 前 동국대 총장, 성낙인 前 서울대 총장 등 문화계, 정치계, 종교계 등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다.

200여 명의 동참자들은 선원을 가득 채우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 '알 수 없어요'와 무산 스님의 '아득한 성자' '파도' '마음 하나' 낭송 소리에 귀 기울이며 만해 스님의 자주독립 사상과 무산 스님의 화합 · 상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다.

주지 선일 스님은 이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사)한국시인협회(회장 유자효)에 후원금 1억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시 낭송회에 앞서 진행된 개원식에서 권영민 교수는 무산선원에 대해 "규모는 작아 보일지 모르나 문화예술인사들이 서로 마음속 이야기를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작은 사랑방"이라면서 "수행만 하는 곳이 아닌 문화예술인들의 마당놀이 장소"라고 소개했다.

한편 앞으로 선원에서는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시낭송회가 열린다. 참가신청은 홈페이지(www.musan.org.kr)를 통해 가능하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미얀마 군부 '아동 살해'는 반인륜 범죄"

조계종 사노위, 9월 21일
미얀마 군부 규탄 기자회견



미얀마 군부의 헬기 기관총 사격으로 9월 16일 어린이 11명이 숨진 가운데,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가 자국의 어린이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미얀마 군부를 강력 규탄했다.

사노위는 9월 21일 서울 한남동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미얀마 군부의 아동 살해 규탄과 군부 퇴진'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9월 16일 미얀마 북부 지역 사가잉 타바인구 마을에 있는 불교 사원 내 학교에 총격을 가했다. 미얀마군은 1시간 동안 학교에 기관총을 발사했고, 군의 공습으로 어린이 11명이 숨지고 학생 등 17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진다.

사노위원 스님들은 먼저 나무아미타불 정근으로 미얀마 군부에 의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아동들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기도시간을 가졌다.

이어 사노위는 성명서에서 "미얀마 군부의 어린이 살해는 일어나서는 안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살생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 용납받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사노위는 △유엔(UN) 차원의 즉각적인 진상조사 △미얀마 군부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임은호 기자**

"우즈벡 韓대사관, 자은사 보존 힘써달라"

조계종 9월 22일, 협조 서한
"면담 통해 보상 논의" 요청

우즈베키스탄 소재 한국사찰 자은사(주지 조주)가 법당 위를 관통하는 전철 공사로 폐사위기에 몰린 가운데, 조계종이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보존을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조계종은 9월 22일 사회부장 원경 스님 명의로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에 자은사 보존을 위한 협조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조계종은 "자은사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에 소재한 한국사찰로 1991년 이래 30여 년 간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우즈베키스탄인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자은사와 제대로 된 사전 합의 절차 없이 자은사 토지와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철 공사를 강행했다는 점을 고지했다. 특히 공사를 사차 담장 10m 앞 지점까지 완공하면서 대도나 사찰 이전을 위한 협의 및 합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조계종은 "이 문제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책임있는 당국자와 자은사 조주 스님과의 면담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조계종 아시아 거점 사찰인 자은사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돼 한국과 우즈베키스탄과의 문화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길 요청했다.

조계종은 서한을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도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조주 스님에 따르면 관할청은 협의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경내 위를 관통하는 전철 건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다. **임은호 기자**

"'국가부도' 스리랑카에 식료품 지원"

아름다운동행, 3개월 간 모금
쌀 · 소금 등 '식료품 키트' 지원

조계종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이 국가 부도 고통 받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식료품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

스리랑카는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인해 지난 4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 사임, 반정부 시위, 물자 부족 등 정치 · 경제 · 사회적으로 혼란기를 겪고 있는 상태다.

특히 연료를 구하기 위해 주유소 앞은 길게 줄이 늘어섰으며 물가 상승률이 60%이상 오르면서 식료품과 의약품은 물론 생필품 조차 구하지 못해 국민들이 생활에 큰 여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국가 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쌀과 렌틸콩, 소금 등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약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스리랑카는 국민 대다수가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는 불교국가"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리랑카 국민들에게 우선 필요한 식료품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모금에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국가 부도로 인해 고통받는 스리랑카인을 위한 식료품 지원 사업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개인과 사찰은 특별모금 전용계좌(농협 301-0315-9664-31 재)아름다운동행)로 동참할 수 있다.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 참조. 카카오톡 문의:(채널)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 (02)737-9595 **임은호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7교구 본사
德崇叢林 修德寺
方丈 達河 愚松
叢林大衆一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www.sudeoksa.com 전화 041)330-7700 팩스 330-7702
◉ 선 수행 템플스테이 전화 041)330-7789 (sudeoksa@daum.net)
◉ 수덕사노인요양원 전화 041)338-7711 ◉ 사회복지법인 修德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海寺
사부대중일동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전화 : 054)335-3318 팩스 : 054)335-0293

3년만의 나란다축제, 어린이 불심 활짝

은정불교문화진흥원, 9월 17일 동국대서 개최

'범종을울려라' 150여 어린이 참여
K댄스, 어린이관현악 무대 등 마련
16일 상월선원 안거 체험도 눈길
1500여명 축제 현장 참여해 활동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에 참여한 불자 어린이들이 밝은 모습으로 참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계 최대 청소년 문화축제인 '나란다축제'가 3년 만에 대면행사로 동국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1500여 어린이 청소년들은 모처럼 마련된 불교계 축제 현장에서 교리경시대회를 비롯해 드론 로봇 VR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9월 17일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제14회 나란다축제'를 진행했다.

이날 나란다축제는 오전 10시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체험'으로 시작됐다. 중고등학생 1000여 명이 팔정도 광장을 시작으로 운동장을 돌며 묵언 행선을 진행했다. 이번 행선에 앞서 사전신청한 학생 20여 명은 16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입재식을 갖고 운동장에서 수행텐트를 치고 절식과 묵언수행을 하루 동안 진행하기도 했다.

순례 후 축제 참가자들은 동국대 학림관으로 이동해 교리경시대회를 이어갔다. 이번 교리경시대회에는 중학생 450명과 고등학생 560명이 참여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1시 진행된 '도전! 범종을 울려라' 퀴즈대회. 퀴즈대회에는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서울지역 사찰 어린이법회 아이들과 종립 초등학교 학생 150여 명이 참석했다.

3년 만에 모인 아이들의 모습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 윤성이 동국대 총장, 정충래 동국대 이사(나란다축제 기획위원) 등이 현장을 찾아 응원했다.

퀴즈대회가 열린 팔정도 광장을 중심으로 전통문화한마당 체험부스와 먹거리부스도 마련됐다. '드림캣쳐 나만의 보석 만들기' '드론날리기 프로그래밍 체험' '로봇축구 체험' 'VR명상 체험' 등 30여 가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목초등학교 정해림 학생은 "퀴즈대회 참가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전통문화 체험부스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었다"며 "키링 만들기를 비롯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퀴즈대회 이후 동국대 법학만해관에서는 금나나 · 황순일 · 유충렬 교수의 진학 · 진로 상담 및 강연도 진행됐다.

나란다축제 운영위원장 성효 스님은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활동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줘 감사하다. 국가와 불교를 위한 미래 동량으로 자라나주길 바란다"며 "현대사회 필요에 따라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하고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보 · 보물 괘불도, 안방서 감상해볼까

국립문화재연구원, 고화질 사진 서비스 개시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에
주요 괘불 47점 사진 공개
'6000만 화소' 고화질 자료


칠장사 삼불회 괘불탱.

국보 칠장사 오불회 괘불탱부터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까지 한국의 주요 괘불탱을 안방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국보 · 보물로 지정된 괘불도 47점의 고화질 사진을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 내 '한국의 괘불 갤러리'에서 공개한다"고 9월 18일 밝혔다.

괘불탱은 야외에서 거행되는 영산재(靈山齋), 천도재(薦度齋) 등 대규모 불교의식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대형 불화로, 부처님이 설법하는 장면을 대형 화폭에 그린 것으로 대부분 높이 10m가 넘는다. 웅장한 크기와 화려한 색채, 정교한 묘사가 특징인 괘불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괘불도 고화질 사진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원, (사)성보문화재연구원이 함께 추진 중인 '대형불화(괘불도) 정밀조사 사업(2015~2024년)'을 위해 촬영한 것이다. 국보 · 보물로 지정된 괘불도 전체 62점 중 조사가 완료된 '죽림사 세존 괘불탱' 등 총 47점(국보 6건, 보물 41건)의 고화질 사진이 최초 공개된다.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털'의 '한국의 괘불 갤러리'에서 공개되는 사진들은 최소 3000만 화소에서 최대 6000만 화소의 고화질 자료로, 그동안 가까이 보기 힘들었던 조선시대 화승들의 정교한 필치와 섬세하게 그려놓은 아름다운 문양 표현들을 세밀하게 확대하여 자세하게 감상할 수 있다. 다만, 괘불의 사진을 내려받을 수는 없다.

불화 연구자들을 위해 괘불도의 조성 기록인 화기(畵記) 정보를 함께 수록했다.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문화재청의 '대형불화 정밀조사 사업' 일정에 따라 이번에 1차로 공개된 47점 이외에 나머지 15점의 고화질 사진도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양이로 표현한 부처님, 지켜봐주세요"

불교크리에이터 3기 만나다

③ '부다캣' 인스타툰 이현희



불교크리에이터 3기로 선정된 이현희 씨<사진>는 현재 '부다캣'이라는 캐릭터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부다캣은 고양이님을 위해 간식을 바치고 장난감으로 놀아드리는 것이 마치 부처에게 공양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돼 만들어진 캐릭터다.

이현희 씨가 수많은 고양이 캐릭터 중에 '부처님'을 주제로 고양이 캐릭터를 만든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반려동물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 콘텐츠 사업체인 '투텅스'를 설립한 이후 이 씨는 불교논문을 찾아보다 고양이에게 밥과 간식을 주는 자신의 모습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본래 콘텐츠인 부다캣 아트토이는 다양한 불상의 형태와 의미에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지만, 이를 대중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도록 인스타툰으로 제작되고 있다.

이 씨는 "부다캣을 홍보하고 있는 주요 SNS 플랫폼은 인스타그램"이라며 "예전부터 인스타툰 활동을 하고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번 계기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실 부다캣은 종교적 색채를 바로 드러내기에 타종교인 혹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도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관건이다.

이 씨는 "불상의 자세에는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모습이 담겨 있다. 수인과 각 자세가 가진 의미를 고양이를 위한 마음과 접목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끝으로 "이번 불교크리에이터 선정을 통해 부다캣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싶다"며 "현재 부다캣뿐만 아닌 새로운 콘텐츠도 기획하고 있다. 부다캣의 발전을 계기로 캐릭터 콘텐츠 기업으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생명나눔실천본부, 김소유 가수 홍보대사 위촉

9월 20일, 일면 스님 위촉장 수여
BBS '백팔가요' 출연진 기부금도



트로트 가수 김소유 씨가 불교계 대표 장기기증 희망등록 운동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은 9월 20일 본부 회의실에서 가수 김소유 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인기 트로트 가수인 김소유 씨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했다. 스님은 "김소유 씨가 가진 폭발적인 성량과 에너지가 생명나눔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홍보대사의 한 마디, 한 마디가 한 생명을 살린다는 자긍심을 갖고 역할을 충실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유 씨는 "생명나눔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큰 영광"이라면서 "우리사회 생명존중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위촉된 김소유 씨는 홍보대사로서 생명나눔실천본부가 펼치고 있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조혈모세포 희망등록, 생명나눔 운동 등 각종 문화행사에 적극 동참, 생명나눔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백팔가요' DJ로도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소유 씨는 2018년 미니앨범 '초생달'로 데뷔했다. TV조선에서 주최하는 트로트 서바이벌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9위를 차지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사당동 떡집 딸'로 불리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위촉식 후에는 홍보대사들이 소아암 · 백혈병 환자를 위한 기부금을 생명나눔실천본부 측에 전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BBS불교방송 라디오 '백팔가요' DJ이자 고정출연자인 김소유, 권미희, 배아현 홍보대사는 금일봉을 일면 스님에게 전달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2020년 통도사에서 개최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숲속 작은 음악회'. 코로나로 닫혔던 산문이 가을 맞아 문화행사로 활짝 열린다.

가을정취 사찰서 문화로 만끽해볼까?

산사음악회 및 축제 전국사찰서 3년 만에 재개

청량사·봉국사·대조사 비롯 산사
문화행사, 음악회로 대중맞이 분주
조계사 '국화', 봉은사 '생전예수재'
법주사 '사찰음식' 등 저마다 특색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가을 향기 듬뿍 머금은 산사에서 꿈과 희망의 에너지 가득한 무대가 펼쳐진다. 전국 사찰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닫았던 산문을 3년 만에 활짝 열고 산사음악회와 축제를 연다.

봉화 청량사(주지 운담)는 10월 1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2022 청량사 산사음악회'를 연다.

산사 음악회의 원조로 통하는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향해 내달릴 수 있도록 에너지를 선물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청량사 산사음악회는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서고 싶고 다시 한 번 오르고 싶다'는 찬사에 걸맞게 무대를 장식할 뮤지션을 초청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는 모두가 힘들고 고단한 시기, 안방에 웃음과 휴식을 준 트로트 열풍의 주역들과 함께 한바탕 흥겨운 놀이마당을 펼친다.

종편 예능프로그램 미스트롯2에서 진을 수상한 가수 양지은을 비롯해 김의영, 은가은, 강태관 등이 무대에 올라 산사의 밤을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 채울 예정이다.

여기에다 소프라노 박선영, 테너 오상택, 청량사 둥근소리합창단의 공연이 더해져 청정도량 청량사를 찾는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가을 산사의 추억을 선사한다.

청량사 주지 운담 스님은 "코로나 시대를 살며 힘든 일상을 지내는 이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돼 드릴 것"이라며 "청량사의 기운과 출연진들의 열정, 그리고 사랑을 듬뿍 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좌절하지 않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등을 토닥이고 싶다"며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굽이진 삶에서 때론 뒤에서 밀어주고, 때론 땀을 식혀주는 청량한 바람과 같이 청량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054)672-1446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228주년 개산대재를 맞이하여 9월 26일 다례재를 시작으로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전통문화 축제행사를 펼친다.

봉은사는 9월 26일 역대조사 스님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그 뜻을 기리는 '역대조사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어 9월 28일 판전에 소장된 주요 문화재인 화엄경판 인경본을 정대(頂戴)하고 봉은사 도량과 법계도를 요잡하는 '정대불사'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불교 전통방식으로 진행하는 '생전예수재(서울시 무형문화재 52호) 49일 기도 회향'을 10월 3일과 4일 양일간 봉행한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전통문화축제 행사로는, 전통 차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차항아리 전시전', '찻자리 및 다식체험'과 '차 문화 학술세미나'가 개최되며, 전통문화체험 한마당에서는 '전통등', '전통단청', '전통민화', '전통매듭'을 체험하는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봉은사 신도회는 이번 축제 기간 중인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행복나눔바자회',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봉은사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봉은사 그림그리기대회'를 진행했으며, 전통사찰의 아름다움을 렌즈에 담은 '봉은사 사진전시회', '마당놀이', '사찰음식 시식행사', '국기원 태권도시범공연', '남사당패 놀이' 등 다양한 행사도 선보였다. 02)3218-4831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9월 28일 제12회 조계사 국화축제 '시월 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를 개막한다. 조계사는 10월 4일 오전 9시 30분 중양절 국화수륙재, 10월 6일과 7일 조계사 문화본부 예술제 '지음', 10월 8일 불교대학총동문회 문화대축전, 10월 14일 오후 7시 30분 '음악이 있는 야경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밖에 10월 15일에는 지역본부 창립기념 승보공양법회 '지심귀명례'와 10월 26일 일자리박람회도 연다.

또 조계사는 이번 국화축제 일환으로 10월 23일 제11회 어린이 미술대회 '나는 화가다'도 개최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OCI미술관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국화가 피어있는 조계사, 부처님과 나'를 주제로 조계사 일대에서 펼쳐진다. 10월 2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으며 조계종 총무원장상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시상식은 11월 5일 조계사 관음전에서 이뤄진다. 02)768-8600

전국 교구본사도 개산대재를 기한 문화축제를 준비 중이다.

양산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3일 '통도사 산문이 열린날'을 주제로 영축문화축제 일환으로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삼성교반월교 특설무대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는 이은미, 노라조, 청명 등 가수들이 참여해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인다. 055)382-7182

보은 법주사(주지 정도)는 9월 30일 '2022속리산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에서는 1부 법주사 개산대재를 시작으로 사찰음식 향연인 '백미백락'과 3부 보살계산림대법회, 4부 도민행복 법주사산사음악회가 이어진다. 043)543-3615

하동 쌍계사(주지 영담)는 9월 28일 오전 9시 30분 개산 1298주년 및 창건 1182주년 기념대축전을 연다. 이번 기념대축전은 산문을 열고 사찰을 창건한 의미를 돌아보는 단순한 기념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년 넘게 이어온 수행 가풍을 계승하는 한편 불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수행과 문화의 장으로 펼쳐진다. 기념대축전에서는 9월 28일 대광광불화엄경 고산대선사 약찬가 독송기도, 9월 29일 일해덕민 대강백의 진감선사 대공탑비 특강 등이 진행된다.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은 "개산 1298주년 및 창건 1182주년 기념대축전을 계기로 역대 선지식과 중창주이신 고산대선사의 유지를 잘 받들겠다. 문도들과 본말사 스님들이 '불식촌음'을 실천하여 새로운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우는데 디딤돌이 되겠다"면서 "저를 비롯한 총림 대중이 주경야독(晝耕夜讀)을 일상화하고 생산불교(生產佛敎)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055)883-1901

성남 봉국사(주지 혜일)는 10월 8일 2022년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봉국사 효사랑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시작된 봉국사 효사랑 문화축제는 1부 위령천도재, 2부 효사랑음악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1부 천도재는 오후 3시 시작되며, 2부 효사랑음악회는 오후 6시 진행된다. 음악회에는 박구윤, 양수경, 권미희, 이빛나, 야단법석 합창단 등이 참여하여 봉국사 창건설화 노래극과 국악 공연 등을 펼칠 계획이다. 031)755-0329

공주 구룡사(주지 진명)는 10월 1일부터 '구절산 구절초 꽃축제'를 개최한다. 국내 최대 5만평 규모의 구절초 자생지인 구룡사에는 가을이면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10월 9일 오전 10시 5층석탑 제막식 및 산사음악회도 열린다. 행사 현장에서는 달마도그리기, 돌탑쌓기, 구절초꽃차 만들기 및 사진촬영 대회에 참여 가능하다. 041)841-8838

부여 대조사(주지 현중)도 10월 2일 '관음조가 미륵불을 만나다' 미륵대재 및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오전 10시 미륵대재를 시작으로 오후 4시 산사음악회로 이어진다. 산사음악회에서는 박서진, 신이나, 서주경, 최재숙, 박성현 등이 신명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대행사로는 단청그리기, 산사장터 등이 펼쳐진다. 041)833-2510





삼보회 108사찰순례, 9년만에 회향

9월 20일 양산 미타암서 회향법회 봉행

동국대에 장학금 1000만원 전달
라오스에 한국어학교 설립 포부
3차 사찰순례 10월 8일 봉정암서
정분남 삼보회장 "순례는 수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삼보회는 9월 20일 양산 미타암에서 '삼보회 108사찰 순례 2차 회향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국사찰을 순례하며 기도 수행을 이어오고 있는 108사찰 순례단 삼보회(회장 정분남 · 이하 삼보회)가 9년 동안 이어온 108사찰 순례를 회향했다.

삼보회는 9월 20일 양산 미타암에서 '삼보회 108사찰 순례 2차 회향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회향 법회는 △개회 △삼귀의 △반야심경 △내빈소개 △108사찰 순례 경과보고 △축사 △회장 인사말 △개근상 시상 △장학금 전달 △법문 순으로 진행됐다. 법회에는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을 비롯해 정분남 회장 등 삼보회 회원과 봉사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정분남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순례는 곧 수행"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을 아는 것이다. 전국의 사찰에서 산 새 소리, 바람 소리를 들으며 지금 이 순간을 아는 것이 곧 도이고 부처임을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순례 수행은 오늘 불교 인재를 위한 밑거름으로 회향한다. 앞으로도 이 원력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며 국내 인재 뿐 아니라 세계를 위한 원력으로 이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타암 주지 동진 스님은 "정분남 회장은 선원 결제마다 스님들께 신발을 공양 올려왔다. 오랫동안 공양 공덕으로 인연이 되었다"며 "평소 보시바라밀의 삶으로 회향하신 그 인연공덕으로 오늘 108번째 순례 사찰 회향처가 미타암이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순례의 기쁨을 알고 도반의 힘으로 나날이 성장하는 순례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1차부터 2차까지 순례에 빠지지 않고 동참한 회원에게 개근상을 전달하며 소감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개근상은 이성희, 여소현, 성희강, 황성희 불자가 수상했다.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어 감개무량하다"며 "회장님과 도반들이 함께하며 이끌어 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보회는 2부에서 동국대 WISE 캠퍼스 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열 스님 등 학생 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은 각 100만 원 씩 총 1000만 원이다. 삼보회는 2013년 3월 동국대WISE캠퍼스 삼보장학회를 설립하고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학회 설립 이후 학생 50명에게 장학금 5000여 만원을 수여했으며 매월 30만 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해 학교 발전을 돕고 있다.

정분남 회장은 "2012년도에 학교에 가서 보니 많은 스님들과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원력을 세우게 되었다"며 "종립학교 동국대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보회는 매년 새해를 맞아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종찰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음력 26일 전국의 사찰을 찾는 순례를 이어가고 있다.

1차는 논산훈련소 법당 불사 원력으로 회향했으며 2차는 2013년 1월 입재, 2022년 9월 20일 회향했다. 3차는 동국대 인재불사와 라오스 한국어학교 건립 불사 원력 하에 10월 8일 봉정암 순례로 입재한다.

삼보회는 순례기간 봉암사 대중공양을 비롯해 함양 용추사, BBS불교방송, 백양사 극락전 개금 불사, 대구 여래사, 호국 백마사, 서울 도안사 불사 등을 후원했다. 또 강원도 화재 및 포항 지진 재난 후원 및 초읍 어린이 대공원 자장면 후원 등 나눔활동을 펼쳤다. 포교 활성화를 위해 매년 경전을 담은 성지 순례단 책자 1000권 제작, 순례 초심자에게 법보시하고 있다. 법보시 기금은 경조사를 맞은 삼보회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깨와 참기름 수익금으로 마련한다.

정분남 회장은 "지나온 나눔 활동을 반추해보면 부처님 가피 외엔 설명할 길이 없다. 순례는 복의 씨앗을 뿌리고 다니는 일이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동고당 문성 대종사 독립유공자 포상받아

9월 16일, 해인정사 대적광전서 전수식 봉행


해인정사는 9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동고당 문성 대종사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봉행했다.

해인정사(주지 수진)가 9월 16일 경내 대적광전에서 '동고당 문성 대종사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봉행했다.

동고당 문성 대종사는 8월 9일 독립유공자로 추서되었으며 국가보훈처는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포상할 것을 결정했다.

전수식은 △삼귀의 및 반야심경 △국기에 대한 경례 △포상 전수 및 기장 봉정 △헌향 및 헌다 △경과보고 및 행장 소개 △인사말씀 △포상 배경 설명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전수식에는 문성 대종사 상좌인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과 상좌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강석두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장, 이갑준 사하구청장, 최인호 국회의원 및 해인정사 신도들이 참석했다.

해인정사 주지 수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은사스님의 공적이 늦게라도 인정되었다. 독립운동을 위해 옥고를 치른 지 100년 만"이라며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상좌의 도리를 한 것 같다. 앞으로 독립운동 역사에 관심을 가질 것이며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더불어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 대종사는 1897년 2월 6일 경북 영천군 북안면에서 출생했다. 1907년 10세가 되던 해 부친과 통도사를 참배하던 중 저녁 예불 소리를 듣고 무상함을 느껴 다음 해 출가했다. 1911년 4월 15일 경남 고성군 옥천사 서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1920년 조선불교청년회에 가입했고 다음 해 해인사에서 3.1만세운동을 주도했다. 당시 일본 경찰을 격퇴, 김천 수도암으로 피신했다. 이후 교원 및 강사로 활동하며 인재양성에 앞장섰으며 금강산 마하연, 함경도 보현사, 통도사, 해인사, 옥천사 등에서 안거 정진했다. 옥천사에서 안거 정진하던 중 1935년 4월 29일 깨달음을 얻고 '임발청산장향기(臨發靑山藏香氣) 해저노용함진주(海底老龍含眞珠) 향기진주수미로(香氣眞珠雖未露) 변부삼천상방광(邊覆三千常放光)'라는 오도송을 읊었다.

1947년 고성 옥천사 백련암에서 6년결사 중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51년 옥천사 주지였을 당시 국내 최초 종군 포교사로 철원에서 활약했다. 불교정화 활동 이후 옥천사 초대 주지, 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장, 마하사 주지, 통합종단 초대 감찰원장에 취임했으며 이후 감찰원장을 세 번 더 역임했다. 1974년 감찰원장 사임 후 1978년 대한불교조계종 초대원로위원으로 추대, 1994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초대 명예원로위원으로 추대됐다. 1997년 7월 10일 세수 100세 법납 86세로 '석가강생작야몽(釋迦降生昨夜夢) 달마도강몽견공(達磨渡江夢見空) 약인문아진소식(若人問我盧消息) 금용은사살인중(金龍銀蛇殺人中)'라는 임종게를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

특히, 문성 대종사는 친일승려였던 용주사 주지 강대련을 남대문에서 종로 사거리까지 친일 행각을 성토하고 북을 치며 걷게 하는 '명고축출사건(鳴鼓逐出事件)'을 주도했다. 스님은 이 사건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100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추서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함께 걸으며 '팔재계' 알아가요"

부산불교연합회, 9월 17일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 개최



시민들에게 팔관회의 뜻을 자연스럽게 안내하기 위한 '팔재계 체험 걷기대회'가 9월 17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둘레길서 열렸다. 이번 걷기대회는 부산불교연합회가 불살생, 불투도 등 8가지 지켜야 할 불교의 계(戒)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했다.

걷기대회에는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을 비롯해 부산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 상임부회장 마나 스님, 진광 정사, 사무부총장 성림 스님,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이성권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팔재계 테마 부스에는 생명나눔실천운동 부산본부, 삼광사, 금정총림 범어사불교대학 총동문회, 부산불교합창단 등 불교기관 및 신행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걷기대회 이후 열린 어울림한마당에서는 내빈들이 나와 경품을 추첨하여 시민들에게 공기청정기, 세탁 건조기, 제습기 등 풍성한 선물을 전달했다. 또 참가자들이 테마 부스를 돌며 기부한 기부금을 봉사단체에 전달해 의미를 더했다. 어울림한마당은 신유, 남승민 등 인기가수의 무대로 흥겨움을 선사했다.

경품 추첨에 앞서 승재가 내빈들은 각 계율을 먼저 설명하며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했다.

범어사 주지 보운 스님은 '때 아닌 때 먹지 말라'는 비시식계(非時食戒)를 설명하며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제대로 먹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며 "부처님의 계를 생각하며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영제 스님은 '이면좌고광엄려상좌(離眠坐高廣嚴麗牀座)'를 설명하며 "'높고 넓은 침상에 눕고 앉지 말라'는 계를 돌이켜보고 여러분이 높은 곳에 있을 때 더욱 몸을 낮추고 겸손하며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엄사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눈길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가 2022년 전통산사문화재활용사업 '화엄세상을 만나다'를 통해 전통사경과 전통자수, 전통매듭의 최고 장인들이 참여한 전통사찰문화체험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매주 일요일에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먼저 전통사경으로 배우는 화엄석경의 서체와 변상도, 둘째 전통자수로 새롭게 표현하는 각황전 단청문양, 셋째 전통매듭으로 재현해 보는 탱화의 장식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통자수와 전통매듭 참여자들의 열기는 더하다. 참여한 강습생들이 강사와 함께 '화엄불교복식연구소(소장 강선정)'를 구성해 창립특별전을 10월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매주 일요일 화엄사성보박물관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매듭과 자수 체험 봉사자로 나서고 있다. 자수체험은 11월 말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무료로 진행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춤과 禪茶가 함께하는 명상축제 눈길

김해 가야문화진흥원, 9월 16일 제6회 명상문화축제


9월 16일 김해문화의 전당서 진행된 명상문화축제 모습.

김해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도명, 여여정사 주지)은 9월 16일 김해문화의 전당 3층 마루홀에서 제6회 명상문화축제를 개최했다.

가야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계승하기 위한 이번 축제는 '춤, 선차(禪茶)와 함께하는 명상'을 주제로 열렸다.

축제에는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 스님, 미타선원장 하림 스님, 은하사 혜진 스님, 바라밀선원 인해 스님, 붓다발라 스님, 이덕사 동선 스님, 연화사 범일 스님, 미타암 성진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조강숙 가야국제명상센터장, 자재천 부산여성불자회장, 최경옥 공연예술기획 가야의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명상축제에서는 무용극 천둥소리, 시낭송극 '허왕후 장군차를 전하다'를 시작으로 1부 행사 차행법숙우회의 선차시연회 '해운(海雲)'이 진행됐다. 2부는 명무(名舞)전 (살풀이춤 동래한량춤, 태평무가 공연)이, 3부는 '명상의 원리와 생활 속의 실천, 울림이 되다' 강연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김해 바라밀선원에서 가야진흥원 가야국제명상센터 개원 및 현판식도 진행됐다. 또 위촉장 수여식과 인도 붓다가야 수행연구소와의 업무협약식도 열렸다.

이날 도명 스님은 "500년 가야국의 수도이며 삼국과 함께 공존하며 지내온 김해는 가야불교의 중심지이기도 하다"며 "가야의 정신문화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해온 가야불교를 살펴보는 데 가야문화진흥원이 앞장서겠다. 가야문화를 재정립하고 가야문화 선양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명 스님은 "문헌을 통해 가야인들이 자연주의자이며, 화합하는 마음을 지닌 것을 알수 있었다. 이는 당시 마음수행 풍토가 있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가야의 옛 정신을 되살리는 데 주력하겠다. 이번 축제가 지친 이들이 쉬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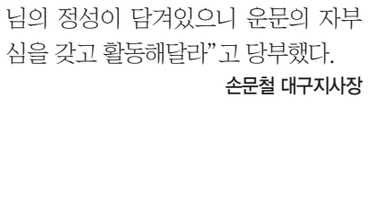
붓다발라 스님은 업무협약식에서 "명상은 현대인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생활명상을 전개하는 데 가야국제명상센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한편, 가야문화진흥원은 이번 명상문화축제 부대행사로 청소년 창작미술 · 글짓기 대회, 위기극복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8월 8일 시작한 부대행사들은 9월 24일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차와 함께하는 명상 '민속춤 체험' '민요 체험' 시, '시낭송 체험'을 진행한다. 또 10월 15일 오후 1시 가야대에서 가야불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0507)1352-1958

성낙두 경남지사장

금산사 사부대중 원탁회의 개최

연등축제 관련 심도깊은 논의



조계종 17교구 금산사(주지 일원)와 태공문도회(문장 도영)가 주최하는 제3차 전북불교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원탁회의가 9월 17일 전주혁신도시 포교당 수현사에서 열렸다.

'연등축제를 지역 대표축제로'를 주제로 열린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태공문도회 문장 도영 스님의 격려말씀, 2차 원탁회의 결과 및 후속사업, 토론주제 제안설명, 모둠별 주제토론, 주제토론 결과발표 및 전체토의 등이 진행됐다.

도영 스님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알차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등축제 TF팀은 토론주제 제안 설명을 통해 상시운영조직 구성, 인재 발굴, 전문성 강화, 전북 대표축제화, 가족 콘텐츠 확대 등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운문승가대학 제51차 총동문회 개최



청도 운문사승가대학은 9월 20일 경내 선열당에서 '제51차 총동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동문회에는 운문사 율주 일진 스님과 주지 운산 스님을 비롯해 총동문회장 동언 스님 등 200여 동문이 참석했다.

신임 동문회장 동언 스님(26기)은 "26기 모든 스님은 부지런히 모교 발전과 동문 화합을 위해 활동하자"며 "소임스님들과 힘을 합쳐 장학금 전달 등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주지 운산 스님은 "오랜 시간 동문들을 보지 못해 안타까웠다"며 "산중 경내 풀 한포기 돌맹이 하나에 회주 스님의 정성이 담겨있으니 운문의 자부심을 갖고 활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83



▶ 84회 예고

마침내 순례일행은 태자가 위없는 깨달음을 이룬 삡팔라나무(보리수)를 참배한다. 우빠굽따에게 설법을 들은 아쇼까왕은 감동한 나머지 삡팔라나무 옆에 불탑과 석주를 조성하라고 지시하는데, 석주에는 삡팔라나무를 조각하라고 명한다.

아쇼까왕, 태자가 고행한 곳에 이르다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강가강 지류를 건너서 서남쪽으로 갔다. 다르마 대비의 영향을 받아 불심이 깊어진 아상가밋따 정비는 고따마 붓다가 성도한 곳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렜다. 그러나 띠쉬아락시따 왕비는 수레바퀴가 고장나거나 흙바람이 불 때마다 짜증을 냈다.

"삡팔라나무가 그렇게 유명한 거야! "

"왕비님, 삡팔라나무가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붓다께서 성도하신 곳에 있는 나무라서 찾아가시는 것이랍니다."

시녀가 짜증을 내는 띠쉬아락시따 비위를 맞추었다. 다음날 오후, 우빠굽따는 순례일행이 야영하기 전에 어제 하지 못했던 태자의 이야기를 이동법당 수레에 올라서 설했다.

"태자는 알랄라 깔라마와 헤어진 뒤 마가다국 수도 라자그리하로 갔지요. 라자그리하 부근 산에도 존경할 만한 선인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자그리하 주위에는 영취산 등 다섯 개의 큰 산이 있었다. 태자는 빤다바산으로 들어가 아수라(Asura)동굴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 뒤, 태자는 동굴에서 나와 라자그리하의 선인을 찾아갔다. 선인의 이름은 웃따까 라마뿟다(Uddkaramaputta)였는데, 제자는 7백여 명이나 되었다. 부근의 산에 머무는 대부분이 그의 제자였고, 라자그리하 주민들 모두가 그를 존경했다. 태자는 웃따까 라마뿟다가 어떤 경지이기에 모든 수행자와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지 궁금했다.

"선인이시여, 나는 그대가 깨달은 경지를 알고 싶습니다."

선정수행주의자 웃따까 라마뿟따는 태자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알려주었고, 태자는 빤다바산의 아수라동굴로 돌아와 웃따까 라마뿟따가 알려준 방법대로 정진했다. 그의 가르침은 어렵지 않았다. 태자는 곧 그 경지에 도달했고, 다시 웃따까 라마뿟따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말한 경지는 이런 것이 아닙니까?"

"맞소. 이제는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를 알려주겠소."

비상비비상처란 당시 수행자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정삼매를 말했다. 웃따까 라마뿟따 역시 알랄라 깔라마처럼 자신의 교단을 함께 이끌어가자고 태자에게 제의했다. 그러나 태자는 그가 가르쳐준 비상비비상처도 생사윤회를 끊는 경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시 길을 떠났다. 태자는 라자그리하를 떠나 서남쪽으로 향했다. 태자는 수행자들 사이에 고행촌(苦行村)이라고 불리는 우루웰라(Uruvelā: 큰 모래밭마을)로 갔다. 우루웰라 앞으로는 강가강의 지류인 네란자라강이 흘렀다. 태자는 네란자라강 강변 모래밭에 가부좌를 튼 채 자신과 약속했다.

'깔라마와 라마뿟따도 내게 생사윤회를 끊는 가르침을 주지 못했다. 선정삼매에 드는 것만으로는 생사윤회하는 중생의 고통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단 말인가. 수행자들에게 존경 받는 두 선인에게서도 위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으니 이제는 내가 스스로 깨닫는 방법밖에는 없다.'

태자의 모습은 비장했다.

'위없는 깨달음은 남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리라. 위없는 깨달음은 내 스스로 얻을 수밖에 없으리라.'

태자는 자신이 수행할 장소를 찾아서 네란자라강 옆의 들길을 걸었다. 그때 한 무리의 수행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고행을 한 뒤 네란자라강에서 목욕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중이었다. 태자가 말했다.

"이곳 우루웰라는 수행하기에 어떻습니까?"

"수행하기에 더없이 좋습니다. 강이 있어 목욕하기에 좋고, 농가가 가까워 탁발하기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까삘라성에서 온 싯다르타입니다.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생사윤회의 고통을 끊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깨달음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곳에서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비로소 태자는 네란자라강과 모하나강 사이의 고행림(苦行林)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 밑에 갈대를 깔았다.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란 염소치기의 무화과나무(龍樹)라는 뜻이었다. 그렇게 자리를 잡고 앉은 지 얼마 안 되어 다섯 명의 낯익은 수행자가 다가왔다. 그들은 웃따까 라마뿟따 제자들로 태자를 흠모하여 라자그리하에서부터 뒤따라 온 수행자들이었다.

'저 싯다르타는 짧은 시간에 웃따까의 경지에 오른 수행자가 아닌가. 그런데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웃따까 곁을 떠난 분이 아닌가. 우리는 웃따까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들었지만 스승과 같은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저 싯다르타는 우리와 다르다.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고야 말 수행자임이 틀림없다.'

태자는 우루웰라의 수행자들이 하는 고행을 보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고행이라기보다는 타성에 젖은 행동일 뿐 진정한 고행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수행자들 중에 비록 몸으로는 탐욕을 끊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애착을 버리지 못한 이가 있다. 이 역시 불을 얻고자 하면서 젖은 나무를 물속에서 마주 비비는 것과 같다. 이러면서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수행자들 중에 바르게 닦아 몸과 마음의 탐욕을 버리고 조용한 곳에서 고행하는 이가 있다. 이는 불을 얻기 위해 잘 마른 나무를 마른 땅에서 마주 비비는 것과 같아 비로소 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심신이 맑고 고요한 상태에서 고행을 해야만 위없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윽고 태자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맑고 고요한 상태에 이르도록 한 뒤 고행을 시작했다. 우루웰라 수행자들 중에서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극한의 혹독한 고행이었다.

결가부좌를 한 상태에서 먼저 호흡을 멈추었다. 그러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 안에 가득 찼다. 겨드랑이에서 땀이 나더니 이마에서도 땀이 비 오듯 했다. 호흡을 막으니 양쪽 귀에서 커다란 공명이 생겨나 풀무질하는 것처럼 소리가 났다. 그래도 귀와 코, 입으로 모든 호흡을 막아버리니 몸 안의 열기가 정수리로 올라가 충돌하면서 예리한 칼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호흡을 계속 멈추니 몸 안의 바람이 양 겨드랑이 사이에 사납게 불어 닥치며 당장 몸이 풍비박산이 날 것만 같았다. 뿐만 아니라 몸 안이 불길에 휩싸이는 듯했다.

호흡을 멈추는 고행을 하면서도 단식도 병행했다. 식사의 양을 줄여 하루에 보리 한 톨만 먹기를 계속하자, 몸은 여윌 때로 여위어 배와 등뼈가 달라붙었다. 다시 보리 한 톨에서 삼씨 한 톨로 줄이자 피부빛깔이 잿빛으로 변해 시체와 같아져 버렸다.



태자는 이와 같은 고행을 6년 동안이나 계속했다. 이를 지켜보던 웃따까의 제자 다섯 명은 태자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 태자 역시 그런 생각이 들어 수행 방법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고행을 더 밀고 나간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겨우 한 가닥 목숨만 남은 상태에서 태자는 고행이 최선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6년 동안 견디었던 고행보다 더한 고행은 없을 것이다. 나는 고행의 극단까지 가보지 않았던가. 과거에 고행했던 선인들도 이 정도 수준의 고행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누군가가 고행한다 해도 이보다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직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는 것일까?'

문득 태자는 까삘라성 시절이 떠올랐다. 부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가했을 때 잠부나무 그늘에 앉아 선정삼매에 든 기억이 떠올랐다. 잠시 욕망의 세계를 벗어났던 그 경험은 고행 없이도 이루어진 삼매였던 것이다. 마침내 태자는 선정을 방편 삼아 생사윤회를 끊는 깨달음에 다가서기로 결심했다.

'고행을 지속하는 것은 몸을 해칠 뿐이니 나를 위해서도,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칠 대로 지친 내 몸을 추슬러야 한다.'

태자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공양을 하기로 했다. 그러려면 수행자로서 최소한의 위의를 갖추어야 했다. 태자는 옷을 구하기 위해 쁘락보디산 공동묘지로 갔다. 공동묘지에는 시체를 쌌던 천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태자는 천 조각들을 주워서 기운 분소의를 입었다.

우빠굽따가 싯다르타 태자의 6년 고행을 이야기할 때는 마힌다는 물론이고 상가밋따, 악기브라흐마, 아상디밋따까지 모두 눈물을 흘렸다. 아쇼까왕도 마음이 격동되어 깊은 숨을 내쉬며 가까스로 진정했다. 아쇼까왕은 대왕코끼리를 타고 쁘락보디산으로 올라가 태자가 우기 때마다 찾아와 고행한 동굴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동굴 안은 어두컴컴했다.

아쇼까왕 순례일행은 동굴을 나와 싯다르타 태자가 천 조각을 주웠던 공동묘지를 지나쳐 다시 우루웰라로 갔다. 우빠굽따가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싯다르타 태자께서는 맨발로 이 네란자라강을 건너시곤 했습니다. 대왕님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강물이 깊소?"

"발목만 잠길 정도로 얕습니다. 원래 네란자라란 물이 없는 강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수심이 깊은 줄 알았소."

"대왕코끼리를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아니오. 싯다르타 태자처럼 나도 맨발로 건너겠소."

아쇼까왕이 샌들을 벗자, 왕비와 신하들이 모두 따라서 했다. 모래는 흰 비단처럼 부드러웠다. 아쇼까왕은 발바닥을 애무하는 모래의 감촉을 즐기면서 모래밭을 걸었다. 호위대장이 먼저 대왕코끼리를 끌고 네란자라강을 건넜다. 왕비들이 탔던 수레도 강을 건너갔다. 빠딸리뿌뜨라에서 가져온 석주는 군사들이 목도하여 운반했다. 아쇼까왕이 삡팔라나무가 있는 붓다성지를 순례했다는 기념으로 세워질 석주였다. 석주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상단은 사자 네 마리가 양각된 부분이었고, 하단은 길쭉한 돌기둥이었다. 네란자라강 너머는 유채꽃이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우빠굽따가 아쇼까왕 옆으로 와서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태자께서는 고행림 아자빨라니그로다나무 아래서 6년 고행을 끝내고 이 강물로 몸을 씻으신 뒤 수자따에게 유미죽 공양을 받으신 것입니다."

"네란자라강 강물이 시원하오. 태자도 시원하다고 느꼈을 것 같소."

"강물의 시원함은 지친 태자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소. 나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소."

네란자라강을 다 건넌 아쇼까왕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았다. 멀리 돌산인 쁘락보디산(Pragbodhi)이 솟아 있었고, 그 밑으로 공동묘지와 대숲이 있는 우루웰라가 보였다. 아쇼까왕은 다시 대왕코끼리 등에 올랐고, 왕비들은 수레를 탔다. 마힌다와 상가밋따, 악기브라흐마와 어린 수마나 사미는 조그만 농로를 맨발로 걸었다. 농로 양옆으로는 노란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군사들은 벌써 유채밭 너머 마을에서 쏟아져 나온 주민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소리치곤 했다. 네냐니가마(장군촌)라고 불리는 농원은 매우 컸다. 끄샤뜨리아 신분의 장군이 살기 때문에 장군촌이라고 불렸다. 장군의 딸 이름은 수자따였다. 장군은 네라자라강과 모하나 강변에 있는 대부분의 들판을 소유한 부호였다. 주민들은 대왕코끼리 등에 고정된 일산을 보고나서야 뒤로 물러났다. 온갖 보석이 반짝거리는 일산은 왕만이 쓸 수 있었던 것이다.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정토사·불교대학·극락원 납골당



◉ 울산 도심권 영구봉안 납골당 극락원 ☎ 212-7000
• 시내에 위치, 왕래와 참배 용이 • 쾌적한 최신시설
• 사전 예약자 봉안비 혜택

◉ 정토사 불교대학 및 대학원 ☎ 052) 274-3800
• 97년 개교, 1년 과정, 주·야간반, 절 하는 법부터
• 경전반 : 주·야간반, 1년 1경전

◉ 법회 및 신행단체 문화교실 ☎ 052) 258-9944
초하루, 일요, 보름, 지장재일, 관음재일, 다라니·금강경·행원참법 기도 등, 어린이, 학생, 청년, 거사회, 108순례·일요순례회, 신도회, 동문회, 합창단, 요가반, 민화반, 다도반, 난타반, 관현악단, 혼성합창단 등

◉ 장학 복지 봉사단체 사)참좋은세상/ 행복한평생교육원

남구 문수로 217번길15(옥동) YouTube '울산정토사'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경남 고성 대명사,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이강옥 교수의 한국선 이야기 ⑱ 보문 선사의 구도 수행 6



▶한줄요약
상원사를 떠난 보문은 낙산사를 거쳐 봉암사에 들어가 1차 결사에 참여하고 다시 여러 도량에서 치열하게 정진하며 제방의 선지식들과 법거량을 이어갔다.

봉암사 결사 후 평생 '공주규약' 받들어

16. 상원사 떠나 낙산사로

상원사를 말없이 떠난 보문은 낙산사에 이르러 한암 스님께 편지를 올린다. 앞으로 '보문(普門)'이란 자호를 쓰겠다고 했다. 현로(玄路)라는 법명이 있었고, 자운(慈雲)이라는 법호를 한암으로부터 받았는데도 새로운 자호를 쓰겠다고 한 데서 보문에게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렇지만 한암은 그 뒤로도 "내 상좌 가운데 선에 대한 지견이 열린 사람은 보문뿐이다."라며 떠나간 보문을 잊지 않았다.

보문은 낙산사에 이어서 직지사, 도리사, 봉정사,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까지 두루 편력했다. 더욱 치열하게 정진했고 제방의 선지식들과 법거량을 했다. 직지사 천불선원에서는 탄옹, 법주사 복천암에서는 석상과 현칙, 해인사에서는 효봉, 통도사 극락암에서는 경봉과 만나 절차탁마했다. 어딜 가나 보문의 단골 소임은 공양주였다. 밥하고 반찬 마련하고 설거지하며 부엌일을 도맡았다. 오후에는 나무 한 짐을 해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울력 시간이 되면 먼저 나가서 똥지게를 졌다.

17. 봉암사 1차 결사 동참

1947년 가을, 보문의 발길은 통도사 내원암에 이르렀다. 거기서 성철(性徹, 1912~1993)을 만났다. 성철은 해방 전 대승사에 있을 때 청담과 뜻을 모았다. 하루빨리 공동 수행공간을 마련하여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서 한국불교를 혁신하는 결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보문이 성철을 만났을 때 결사의 여건은 무르익었다. 보문도 결사에 동참하기로 했다. 성철, 보문, 우봉, 자운 등이 1947년 10월 봉암사로 들어갔다. 향곡, 청담, 서암, 월산, 종수, 청안, 일도, 홍경, 도우, 보경, 법전, 성수, 혜암, 정천, 의현, 지관, 혜정, 혜명 등 대중 30여 명이 이어서 동참했다. 봉암사 1차 결사가 시작된 것이다. 근처 암자인 백련암에도 묘엄을 비롯한 비구니 6명이 입주하여 결사에 동참했다. 봉암사 결사는 수행을 철저히 실천하고, 율장 정신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청규인 〈공주규약(公主規約)〉도 만들어 따랐다.

그렇지만 봉암사 1차 결사에 보문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 보문과 성철, 향곡(香谷, 1912~1978)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수로는 보문이 성철, 향곡보다 6살 많았지만, 출가 시기는 향곡이 가장 빨랐고(1930년), 성철과 보문은 6년 뒤에 출가했다.

선방을 이끄는 입승의 존재는 결사의 성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성철은 자기가 입승을 하고 싶다며 서암에게 지지를 부탁했지만 서암은 보문을 지지했다. 선방 대중들은 무자화두에 대한 소견을 들어보고 입승을 뽑기로 했다. 압도적 지지를 받은 보문은 완강히 사양했다. 재투표까지 하여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보문이 입승 노릇을 하게 됐다.



보문은 상원사를 나온 후 낙산사를 거쳐 직지사, 도리사, 봉정사, 해인사, 통도사, 범어사 등 여러 도량에서 수행했다. 사진은 낙산사 원통보전 모습.

결사 운영과 수행방식을 두고 성철과 보문의 의견이 갈렸다. "책을 보지 말고, 아는 소리를 하지 말자"고 약속했지만 성철은 꽤 많은 책을 옮겨와 계속 읽었다. 보문은 "참선한다는 사람이 책만 들여다 보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세월이 흐른 뒤 성철이 법문 중에 수좌들이 책을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향곡은 성철이 책을 더 많이 읽는다고 외치기도 했다고 한다.

반면 성철과 향곡은 의기투합하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향곡이 한 달이 지나도 〈범망경〉을 외우지 못하자 성철이 경책했다. 분발한 향곡이 마애불 앞 개울가로 가서는 밥도 먹지 않고 참구하여 닷새 만에 나름대로 깨달았다 생각하고 성철을 불러냈다. "아만통을 내려놓아라!"며 호통을 쳤다. 밀고 당기고 서로 안고 굴렀다. 보문을 향해서는 "아만이 탱천해서 성철의 말을 안 듣는다!"고 꾸중했다. 향곡이 도인으로 살아왔는데 문득 나타난 보문이 자꾸만 걸리는 것 같아 그랬다는 전언이 있다.

성철도 보문을 봉암사 개울 자갈밭으로 불러냈다. 성철이 보문에게 먼저 질문을 했다. 질문이 열 개 가까이 되었다는데 보문은 빠짐없이 답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성철은 "그건 아니다", "그건 틀렸다"며 보문의 답을 인정하지 않았다. 출가 전에 이미 한학을 연마했고 상원사에서 견성했으며 한암과 탄허로부터 선어록까지 공부한 보문이 성철의 질문에 대해 하나도 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믿기가 어렵다.

봉암사서 1차 결사에 동참하고
성철 · 향곡과 문답 · 법거량해
누더기 차림 법주사서 명법문

성철의 질문이 끝나자 이번엔 보문이 성철에게 물었다. "우리가 사시마지에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부처님은 공양을 어떻게 잡수시냐?" 성철은 "내가 답을 하면 곧이듣겠느냐?"라고 말하며 대웅전 쪽으로 걸어 가버렸다.

사건은 정진 시간에 터졌다. 보문이 죽비를 들고 오후 대중 정진을 주재하고 있는데 기왓장이 날아왔다. 전언은 향곡이 던졌다는 것과 성철이 던졌다는 것으로 엇갈린다. 어떻든 선방 문을 열어 재치고서 나타난 쪽은 성철이었다. 성철은, "아까는 내가 몰라서 답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야!"라고 외쳤다. 냇가에서 보문이 한 질문에 대해 성철 자신이 답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한 해명이었다.

경허 이후 한국불교의 선풍을 최고로 드높였다고 평가되는 위대한 선승 성철과 향곡이 이 무렵에는 이렇게 보문을 대했다. 성철에 의해 기록된 결사자 명단에 보문이 빠진 것은 아마 이런 사연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일찍이 육조에서 비롯한 남종선의 전통은 '누구에게나 법을 설한다[普說].'는 것이지만 도일이나 석두 이후로는 수행자들 간의 절차탁마를 중시하면서 개별적 질문과 답변, 반문을 통해 서로의 경지를 부수고 다듬어 주는 전통을 만들었다. 문답은 사제 간이나 도반 사이에 이뤄졌으니 개오(開悟)의 계기가 되고 선체험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전통에서 보면 성철, 보문, 향곡 간의 문답과 법거량은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다만 어떤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 어떤 답변을 하든, 승패가 아닌 개오와 절차탁마를 추구해야 했다. 그 무렵 성철은 다소 경쟁적이어서 '이기고 지는' 것에 몰두했다는 인상을 준다. 보문의 답변을 모두 틀렸다고 부정하고 정진하고 있는 도반에게 자기가 답변 하지 못한 이유를 변명하고 있는 데서 그런 점을 느낀다.

이 국면에서 보문의 '여읨의 자기서사'가 다시 작동한다. 함께 살아가는 타인이 자기에게 지나친 언행을 했을 때 그에 대해 항의하여 바로 잡거나 자기를 변호하는 대신 그냥 그로부터 떠나가 멀어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다. 보문은 성철 등과 결사를 주도했지만 그 뜻을 더불어 이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순간 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봉암사를 떠나갔다. 그 뒤로 그 사연에 대해 말을 아끼다가 생애 끝자락에 이르러 변죽만을 울렸다.

보문의 떠남은 향곡과 성철에게도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성철은 무자화두에 대한 법론에서 보문에게 뒤쳐진다는 걸 느끼자 더 치열하게 공부했다고 한다. 그 무렵 보문이 월등했다고 대안(大安, 1951~)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나도 다 된 줄을 알았는데, 솔직히 그 분[보문] 때문에 더 분발했다." 성철은 보문을 '참 공부하는 사람'으로 인정했고, 자기가 보문을 "본받았다"고도 말했다.

향곡은 보문을 보고 분심을 더 내서 마침내 견처가 열렸다고 한다. 향곡도 자신의 오만함과 지나침을 인정하고 세월이 흐른 뒤 직지사 천불선원에 있던 보문을 찾아가 그 일을 사과했다.

보문은 봉암사를 떠난 뒤로 평생 밖을 나갈 때는 삿갓을 쓰고 석장을 지녔다. 〈공주규약〉에는 '출원(出院) 유방(遊方)의 때에는 삿갓을 쓰고 석장을 지녀야 한다.'는 항목이 있다. 보문이 봉암사를 떠나서도 〈공주규약〉에 깃든 결사정신을 받들려 했던 것이다.

18. 법주사 법문

보문은 봉암사를 나와 법주사 암자인 복천암으로 갔다. 아직 병이 다 낫지 않은 몸이지만 아침과 저녁으로 물지게를 졌고 여전히 공양간 일을 했다. 이런 보문을 법주사 대중들은 하찮게 여기고 수군댔다.

누더기 차림의 보문이 법주사 대웅전에서 법문을 하게 됐다. 선방 수좌들의 추천이라고도 하고 법주사 주지 장석상의 추천이라고도 한다. 법주사 대중들과 대처승들은 법상에 오른 사람이 나무하고 물만 져 나르던 그 사람임을 알고 놀라며 어처구니없어 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이 있으니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보문이 입을 열었다.

"이곳이 충청도(忠淸道)입니까?" "예" "충청도는 예로부터 나라에 충성하는 고장입니다. 여기 나라에 충성한 이는 누구입니까?"

"이곳이 보은군(報恩郡)입니까?" "예" "보은군은 예로부터 은혜에 보답하는 곳입니다. 여기 불보살의 은혜에 보답한 이는 누구입니까?"

"이 산이 속리산(俗離山)입니까?" "예" "속리산은 세속을 여의는 도량입니다. 여기 세속을 떠나 진심으로 출가한 이는 누구입니까?"

"이 절은 법주사(法住寺)입니까?" "예" "법주사는 법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 과연 정법에 머무는 이는 누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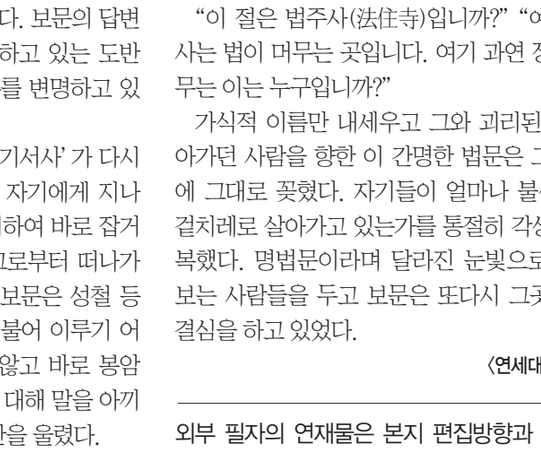
가식적 이름만 내세우고 그와 괴리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을 향한 이 간명한 법문은 그들 가슴에 그대로 꽂혔다. 자기들이 얼마나 불성실하게 겉치레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통절히 각성하고 탄복했다. 명법문이라며 달라진 눈빛으로 우르러보는 사람들을 두고 보문은 또다시 그곳을 떠날 결심을 하고 있었다.

〈연세대 객원교수〉

외부 필자의 연재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엄사 부설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창립기념 특별전
'화엄사색(華嚴四色)'
2022.7.27.(수) ~ 2022.10.10.(월)



참여작가
윤정숙, 박춘화, 안영숙, 강선정,
김봉숙, 서정아, 심지윤, 이경희, 이미현, 정미자, 허윤

화엄사성보박물관 57616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기획 화엄사성보박물관 부관장 강선정 / 큐레이터 서정아 / 에듀케이터 관희천
진행 서정아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 화엄사성보박물관
주관 화엄불교복식연구소

조성금 교수의 스토리텔링 본생경 ⑱ 늑나사야 본생담



▶ 한줄요약
석가모니 부처님은 수많은 보시와 희생의 공덕으로 부처가 되셨다. '늑나사야 본생담'은 페르시아 상인이었던 전생의 부처님이 '살신성인'의 공덕으로 훗날 부처가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살신성인' 공덕으로 부처가 되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왕, 왕자, 가난한 수도자, 젊은 청년, 여러 동물 등으로 태어나 수많은 보시와 희생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셨다. 지난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스리랑카 싱할라 민족의 시조였던 먼 옛날이야기를 들려드렸다. 부처님께서 전생에 인도가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셨던 이야기가 또 없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궁금하셨을 것이다.

5세기 초 양주(涼州) 출신 혜각(慧覺)을 비롯한 여러 승려들이 고창군(高昌郡, 오늘날 투르판)에서 한역한 〈현우경(賢愚經)〉 제10권 '늑나사야품(勒那闍耶品)'에 부처님의 전생 인물로 '살박 늑나사야(薩薄 勒那闍耶)'라는 상인의 희생과 구제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소리나는 대로 읽으면 살박이지만, 원래는 '살보'로 발음하며 역사서와 경전에 '薩寶' 혹은 '薩保'로도 기록된다. '살보'라는 명칭은 일종의 관직명으로서, 소그드어로 대상(隊商)의 리더를 의미하는 '사르트포'(Sartpaw)의 음을 빌려 중국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상단의 주인(商主) 즉 상단의 장에 해당하는 직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개성 송상이나 의주 만상의 상단주와 같은 역할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문헌에 의하면 소그드인들이 정착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상단주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무장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던 듯하다.

소그드 상인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서역 상인 혹은 '상호'(商胡), '호상'(胡商)으로 알려진 페르시아계에 속하는 민족으로서 현재의 우즈베키스탄의 부하라와 사마르칸트 지방에 오아시스 도시국가를 세운 이들이다.

소그드인은 이미 중국의 한나라 시대부터 중앙아시아, 몽골고원, 중원 사이에서 중계무역으로 활약하고 있었으며, 실크로드의 교역 루트에 집단 거주지를 형성해 상업 활동의 전진기지를 구축함으로써 교역 이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다. 이들의 활동영역은 서쪽으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감숙(甘肅) 지역의 돈황(敦煌)에서부터 동으로는 장안(長安), 낙양(洛陽)을 거쳐 화북(華北) 지방의 각 지역, 그리고 북으로는 몽골고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남으로는 계림(桂林), 광주(廣州)에 이르러 동남아시아를 경유하여 인도와 페르시아에 이르는 해상루트와도 연결돼 있었다.

경주 괘릉이나 흥덕왕릉에서 이미 보았던 서역인 석상이 바로 이 소그드인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 모습을 묘사해보면 눈이 깊고 코가 높은 이목구비에 덥수룩한 구레나룻 그리고 머리 뒤로 묶은 긴 머리끈, 근육이 두드러진 팔, 긴 몽둥이, 허리에 매단 두 개의 돈주머니. 통일신라 시기에 조성된 석상에서는 무기를 들고 있어 무시무시한 무장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들은 이미 기원전부터 이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동쪽과 서쪽의 세계를 종횡무진하였던 상인들이다. 최고 품질의 담비 가죽을 구매하기 위하여 소그드 상인이 발해까지 왔었던 증거가 발굴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들이 신라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쿠차 키질석굴에 그려진 벽화 〈늑나사야 본생도〉. 4세기 중엽에서 5세기 말에 조성됐다.



경주 괘릉에서 출토된 호인석상. 통일신라 8세기 후반의 작품이다.

그렇다면 〈현우경〉의 '늑나사야품'에 기록된 페르시아계 소그드 상인 살박 늑나사야는 어떤 보시와 희생을 하였기에 다음 생에 부처가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오랜 옛날 이 염부제의 바라내국에 범마달(梵摩達)이라는 왕이 있었고 그 나라에는 늑나사야(勒那闍耶)라는 큰 살보(薩薄: 소그드 상주)가 있었는데, 그는 밖에 놀러 나갔다가 어떤 숲속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이 못내 슬피 울면서 목을 걸어 자살하려는 것을 보았다. 살보 늑나사야가 그 이유를 묻자, 죽으려 하는 자가 답하길 '박복하여 극도로 가난할 뿐 아니라, 또 빚을 잔뜩 져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빚쟁이들은 다투어 와서 무엇이나 뺏어 가면서 밤낮으로 독촉하기 때문에 근심이 풀릴 때가 없습니다. 천지는 넓다 하지만 몸 둘 곳이 없기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괴로움에서 떠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처럼 충고하지만 내게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라고 말하였다. 늑나사야가 목에 맨 줄만 풀면 진 빚은 얼마든지 대신 갚아 주겠다고 약속하고, 숲에서 나와 빚을 갚아 주겠다고 소문을 내자 빚쟁이들이 서로 다투어 구름처럼 몰려와 빚을 받아 갔다. 오는 사람이 한이 없어 늑나사야의 재물은 벌써 모두 떨어졌지만, 빚은 아직도 끝나지 않아 오히려 살보의 가족들이 가난에 몰려 구걸하며 살아가게 되었다. 그때 여러 상인들이 살보에게 보물을 캐러 바다에 같이 가자고 권하였다. 상단의 주인으로서 배를 장만할 돈이 없어 곤란한 처지에 상인 5백 명이 재물을 모아 3천 냥을 살보에게 주었다. 이에 살보는 3천 냥 금 중에서 천 냥으로는 배를 마련하고 천 냥으로는 양식을 준비하고 또 천 냥으로는 배 위에서 필요한 것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로는 가족들의 생활에 썼다. 살보 늑나사야는 바닷가에서 일곱 겹의 튼튼한 큰 배를 만들어 일곱 개 큰 밧줄로 바닷가에 메어 두었다. 그리고 큰 금방울을 흔들며 '누구라도 바다에 들어가 크고 묘한 보물을 얻어 진기한 물건을 마음껏 쓰고 싶은 사람은 모두 여기 모여 저 보물 있는 곳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하였다. 또 '누구라도 부모처자와 염부제의 즐거움과 또 그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면 가도 좋다. 왜냐하면 저 바다에는 험하고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이다. 물결의 소용돌이, 사나운 바람, 큰 물고기, 귀신 등 이런 여러 가지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레째 날에 그 밧줄을 모두 끊자, 배는 곧 바다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도중에서 갑자기 사나운 바람을 만나 배가 부서져 바다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살려 달라 부르짖었으나, 어디에 의지할 곳이 없었다. 널빤지나 돛대나 부낭(浮囊)를 얻어 살아나기도 하였고 혹은 물에 빠져 죽기도 하였다.

그중에서 어떤 다섯 사람이 살보에게 '당신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물에 빠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구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살보가 '큰 바다는 송장을 묵히지 않는다고 나는 들었소. 당신들은 지금 곧 나를 붙드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해 내 몸을 죽여 그 화를 구제하고 맹세코 부처가 될 것이고, 부처가 된 뒤에는 위없는 바른 법의 배가 되어, 나고 죽는 큰 바다의 괴로움에서 당신들을 제도할 것이오'라고 말하고 스스로 칼로 목을 찔렀다.

살보가 죽은 뒤에 바다 신(海神)은 바람을 일으켜 다섯 사람을 저쪽 언덕까지 밀어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다를 건너 모두 안온하게 되었다. 그때의 살보 늑나사야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며, 그 다섯 사람은 부처님의 첫 제자들인 구린(拘隣) 등이다."

> 페르시아 상인이었던 전생이야기
> 풍랑에 자신 공양해 타인 구해내
> 키질석굴 등 벽화에 내용 도상화
> '공덕 통해 깨달음 이른다' 교훈

〈현우경〉의 '늑나사야품'을 그림으로 도해한 사례는 쿠차(庫車) 지역의 키질석굴(克孜爾石窟) 13굴, 114굴, 키질가하석굴(克孜尔尕哈石窟) 14굴, 21굴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4세기 중~5세기 말경에 조성된 키질석굴 114굴의 벽화를 살펴보면 소용돌이치는 깊고 어두운 바다의 한가운데에 누워 오른손으로 긴 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베는 살보 늑나사야가 화면의 중앙에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늑나사야의 팔과 몸통, 다리를 잡고 험난한 바다에서 버티는 네 명의 사람이 묘사돼 있으며, 화면의 상단에 긴 널빤지를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는 긴박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의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는 페르시아계 소그드 상인 살보 늑나사야가 자신의 재물과 목숨을 보시하고 희생하여 빚에 시달리는 사람과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한 늑나사야 본생담을 풀어 보았다. 부처님은 천하고 귀함도 그리고 민족도 차별하거나 가리지 않으신다. 누구나 공덕과 희생을 쌓아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이렇듯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려 하시는데, 정작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참회하게 된다.

〈울산대 역사문화학과 강사〉

화엄음악제 2022
HWAEOM MUSIC FESTIVAL

華嚴, 華嚴, 길
붓다의 길에 서다

정중히 모십니다.

바람과 햇살에도 풍요의 기운이 담겨있는 가을입니다.
이토록 좋은 날, 지리산 대화엄사에서는 '화엄의 법석'으로 채워질 「화엄제」를 '華嚴, 길'이라는 주제 하에 전국의 대덕스님들과 소중한 인연들을 모신 가운데 봉행하고자 합니다.
분주한 일상, 잠시 내려놓으시고 일체가 하나 되는 「화엄제」에 귀한 걸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번 화엄제에서는 〈상월결사순례단〉의 참가로 생명 존중과 화합의 의미를 견고히 하는 향훈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리산의 당당한 기백과 화엄의 하모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불기 2566 (2022)년 10월 향기로운 날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지리산대화엄사
주지 덕문 합장

2022년 9월 30일(금) ~ 10월 2일(월)

9월 30(금)
09:00 - 12:00 구례 사찰명상 순례길 걷기 대회
18:30 - 19:30 화엄 붓다 길에 서다(작은 음악회)

10월 1(토)
07:00 - 10:30 상월결사 수미산 원정대 어머니의 길 걷기
15:00 - 16:30 괘불제(국보 제 301호 영산회 괘불)
18:30 - 20:00 華嚴 붓다 길에 서다 - 화엄 문화 음악제

10월 2(일)
10:00 - 12:00 화엄사 상월결사 평화방생 순례
17:30 - 18:30 상월결사 삼보순례 1주년 기념 음악회

문의 : 061-783-7600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www.hwaeomsa.com

주최·주관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본사 智異山大華嚴寺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전라남도 JeollaNamdo · 구례군 GURYE County ·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 JIRISAN NATIONAL PARK JEONNAM OFFICE

유정길의 불자라면 이렇게 ⑨ 물은 위에서 아래로만 흐를까



▶한줄 요약
역대급 태풍이라고 평가된 힌남노와 난마돌이 한국과 일본을 강타했다. 이는 이상기후로 벌어진 일이다. 우리는 '모든 것은 순환한다'는 연기론적 진리를 간과하고 산다.

인간 탐욕이 초래한 역대급 태풍들



미국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된 태풍 힌남노. 사진 제공=NASA 홈페이지

태풍 힌남노 · 난마돌, 韓日 강타
온난화로 장마 보단 '우기' 가까워
'모든 것은 순환한다' 진리 간과
무한경쟁 악순환, 결국 과보받아

역대급 태풍 힌남노 · 난마돌

최근 우리가 겪는 모든 기상현상들은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과거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것이라는 뜻이다. 지난 8월 28일 발생, 9월 6일에 한국에 상륙해 포항과 경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을 초토화시킨 태풍 '힌남노'는 올해 11번째의 슈퍼 태풍으로 불린다. 공포스러운 위력 때문에 제주도의 피해가 컸지만 특히 포항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9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으며 1000가구 149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시설물 피해 8000곳, 차량침수만도 8500대라고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포항제철소가 창립 이후 50년만에 최초로 전면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며 약 1조 7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루사와 매미, 에위니아에 이은 역대 4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어서 제14호 태풍인 '난마돌'이 9월 13일부터 올라왔다. 19일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꺾어져 한국으로 오지 않고 일본열도를 따라 올라갔다. 난마돌 역시 '강'에 속하는 태풍으로 일본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비와 바람'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사실 올해 여름에도 폭염이 진행되었지만 놀랍게도 장마기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장마 이후에 폭우가 오랫동안 쏟아졌다. 이제 장마란 말보다 ' 우기 '라는 말로 표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예측불가능한 이상기온은 온난화와 기후위기가 원인이라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오늘의 글은 지구온난화와 태풍과 기상이변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단순히 서술하기보다 기상이변의 발생 이유와 관련하여 그것이 불교의 가르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를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말한다. 그 '위'는 계곡상류이고 깊은 산속의 샘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그 깊은 계곡물이 '아래'로 흘러내려 내를 이루고 강에 이르러 바다로 간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렇게 흘러가버린 물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 짧은 기간으로 한정하면 맞다. 그리고 구간을 구분하여 위와 아래로 나누어 생각하면 맞는 말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절대 옳다면 산꼭대기에는 거대한 물탱크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당연히 그런 물탱크는 없다.

그러나 다른 물탱크가 있다. 수많은 나무의 뿌리와 그 뿌리가 잡고 있는 흙, 풀 등이 물을 머금고, 그 흙이 물을 모아두어 지하수로 저장해왔다. 이렇게 머금고 있는 나무와 흙속의 물과 지하수가 밖으로 나와 샘물이 되고 계곡의 물로 모여 내를 이루고 강을 이뤘다. 이렇게 보면 산은 나무와 흙, 돌로 된 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거대한 물탱크이자 저수지라고 해도 틀린 말이이 아닐 것이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산과 계곡의 물은 결국 비가 내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구름이다. 결국 구름이 있어야 비가 만들어 질 수 있다. 그리고 더 깊이 사색을 하면 계곡의 물과 냇물의 시원(始原)이 구름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끝일까? 물의 시작은 구름이고 종착역은 바다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자, 그 구름의 물방울은 어디에서 오는가? 계곡이나 강물, 바닷물이 증발해서 혹은 엄청난 양의 땅의 수분 등이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간 것이다.

또한 식물의 뿌리는 땅의 물을 물관을 통해 빨아들여 잎의 기공을 통해 그 물을 수증기형태로 밖으로 내보낸다. 증산작용이다. 이렇게 잎의 작용으로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숲이나 산림은 어쩌면 하늘로 올라가는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오 이후 2시경 산을 바라보면 뿌옇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나무들이 빨아들인 물을 증산작용을 통해 하늘로 올려보내는 물기둥을 만들기 때문이다. 이처럼 바다와 강, 계곡의 물이 증발해 구름이 되고 비로 내리고 계곡의 물이 되고 장강을 이루어 바다가 되고 다시 증발하여 구름이 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의 순환이다.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자연이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기도 한다. 전체로 보면,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위 아래는 없다. 직선적으로 가버리는 것은 없다. 다시 돌아오는 순환이다. 순환하는 세계에서는 결국 되돌아오고 내게 돌아온다.

생활 속의 직선적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은 시간이 직선으로 흐른다는 세계관이다. 그래서 직선상에 현재를 시점으로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 어제는 뒤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앞이라고 생각한다. 비가역적이다. 되돌릴 수 없다고 보며 모든 것을 그 직선상에 나열하고 서열화한다.

앞(先)이 있고 뒤(後)가 있다. 앞선 나라를 선진국, 뒷선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한다. 앞선 것은 좋은 것이며 뒷선 것은 후지고 나쁜 것이라는 위계적 관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좋은 것, 이름하여 진보(進步)라고 한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단순히 앞이 아니라 위로 높이 나아가는 일을 무한히 하려고 한다.

오늘날 산업사회는 직선적으로 위로, 그것도 가속적으로 무한성장을 지향한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나라가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한다. 그러나 무한성장주의는 곧 무한채굴주의이다. 그것이 바로 위기의 원인이 된 것이다. 순환적 시간관은 하나의 행위가 곧 복잡한 연관과 상호의존 속에서 나에게 돌아오고 언젠가 결국 영향을 내가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직선적 시간관에서 나의 행위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강물처럼 흘러가버리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면 그만', '내 손을 떠나면 상관없다', '나와 관계없다'는 세계관, 이것이 직선의 사고이다. 하지만, 순환의 사고는 모든 것이 '나와 관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기적 세계관이다.

비유해보자면, 재래식 사찰의 해우소에서 오줌과 똥은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을 채소의 소중한 거름이다. 오줌과 똥을 다른 집에 누고 오면 어른들에게 야단을 맞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 똥이 채소가 되고 그것이 다시 똥이 되는 자연 순환 속의 흐름이다.

그러나 오늘날 변기에서 누는 똥은 물만 내리면 나와 관계없이 직선적으로 흘러 어디론가 가버린다. 직선이다. 실제 '유한한 지구', '하나뿐인 지구'를 무한한 것으로 착각해 무한생산, 무한소비, 무한폐기를 해온 것이 오늘날 경제와 정치의 근본이 되었다.

쓰레기를 버리면 결국 멀어져 "나와 관계없게 된다"는 생각으로 인해 함부로 버리고 쓰게 된다. 직선적인 시간관은 자원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원무한주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내 손을 떠나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세계관이다. 이러한 직선적 시간관은 필연적으로 '시작'과 '끝'을 고려하며 '태초'와 '종말'로 이어지는 서구 기독교의 시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을 받는다.

더 빨리, 먼저, 높이, 많이

또한 직선은 속도를 의미한다. 한 점을 목표로 빨리 도착하려 한다. 경쟁이다. 그 경쟁을 통해 남보다 빨라야 하며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상은 이기고 지는 전투의 세계이며 승리에 집착하는 세계관이다. 직선은 목표지향적 효율을 강조한다. 과정은 생략될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또한 관계도 무시된다.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자연이 훼손돼도 문제를 삼지 않는다. '더 빨리, 더 먼저, 더 높이, 더 많이'의 세계는 바로 직선적 세계관이 오랫동안 인류에게 훈습되어 만들어진 문화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는 생산력의 수준을 줄이는 것이며, 청빈과 검약, 가난이 사회화되는 것을 궁극의 지향이라고 말할 때 가장 크게 부딪치는 문제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라는 말이냐"이다. 그리고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대안의 대부분은 현재의 소비수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산업사회의 부산물인 오염을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 방법을 찾는다. 거의 과학기술에 의존하거나 정치인들의 정책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님을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아무리 환경오염이 심각해도 경제성장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진보' 또한 이 같은 직선적 패러다임에 갖혀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직선으로 보면 태어남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러나 모두가 연기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윤회의 관점,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생명계 내에서 한 요소들이 모여져 개체생명이 되고, 이것이 다시 흩어져 더 큰 생명계로 들어가 모여 다른 모양의 생명이 만들어지고 흩어지고를 반복할 뿐이다. 생명의 시작과 끝은 없는 것이다. 짧게 잘라서 볼 때, 시냇물은 위와 아래가 있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지만 물의 흐름 전체를 보면 위와 아래는 없으며 순환만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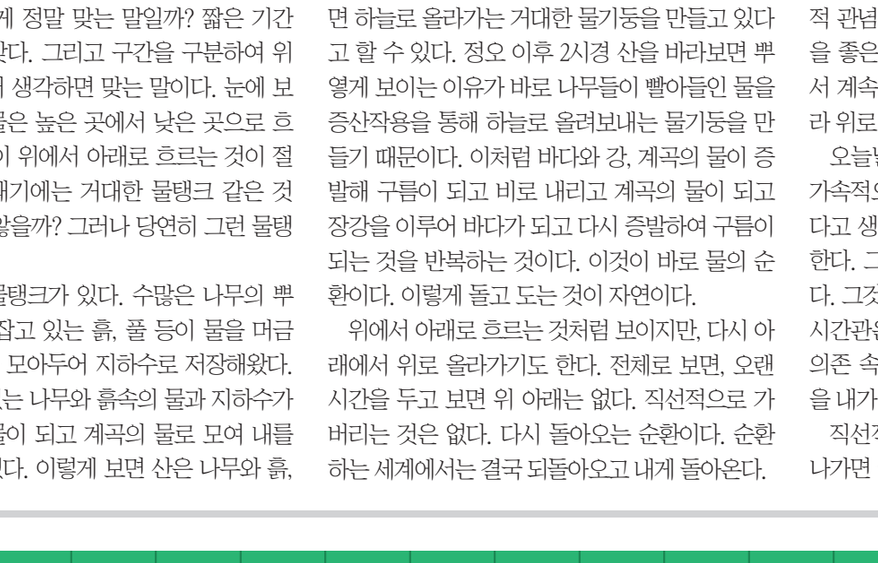
뜨거운 것은 위로, 찬 것은 아래로

남극과 북극이 녹으니 지구의 하얀 부분이 줄어들어 태양광을 반사하기보다 흡수하는 부분이 많아져 더욱 지구온도가 올라간다. 그러면 바다표면의 온도가 올라간다. 뜨거운 바닷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강해지고 이전까지 일정하게 반복되던 바닷물의 흐름의 속도가 바뀌고, 난류와 한류의 대류의 흐름에 교란이 일어난다. 바닷물의 온도가 상승하면 바다 위의 대기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온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던 고기압과 저기압이 혼선이 일어난다. 따뜻한 공기나 찬 공기가 지형과 지역의 기온에 따라 다시 교란이 일어난다. 공기가 뒤죽박죽이 되고, 바다물이 뒤섞인다. 엘리뇨와 라니냐가 빈번하게 된다.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이상기온이 수시로 반복되는 이유이다.

세계는 이렇게 촘촘이 연결된 거대한 생명이며 순환하고 있건만, 우리는 그저 '지금'만 보고, '여기'만 보고, '나'만 보고 있는 어리석음으로 이 위기의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불교환경연대 녹색불교연구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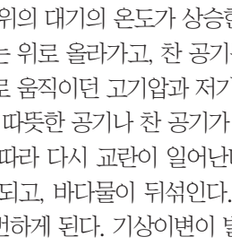
시민과 함께하는
2022 흥미진진 한국불교·전통문화 축제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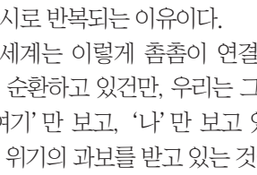
9.29 목 ——— 10.2 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전시장 야외

무료! 10시부터 18시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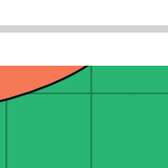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30여종의
한국불교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108개의 종이인형이 4일간 밤낮으로 명상하는
명상 플래시몹 아트 프로젝트



참가자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완성이 없는, 완성을 바라지 않는
네버엔딩 만다라 아트 프로젝트



불교신문 문의 사무국 02-2231-2013

티베트 불교미술, 중국·네팔 영향 받았다?

중국-티베트연구센터 교수
기존 인도불교 영향설 반박
돈황 시절 교역 따라 전수
"두루마리 형태 탕카 발전"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 불교미술의 대표주자인 '탕카', 천이나 벽에 그려지는 불교회화다.
사진출처=레코드 차이나

티베트 불교미술에서 '탕카'라고 불리는 불교회화의 기원과 발전에 대해 새로운 학설이 제기됐다. 인도불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인도불교의 회화를 계승한 것으로 생각된 탕카의 기원에 대해 사실상 중국과 네팔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학설이 등장한 것이다. 9월 13일 중국의 '레코드 차이나'는 연구자들의 발표를 인용해 새로운 학설에 대해 보도했다.

8세기경 본격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인 티베트는 당시 인도의 날란다 대학을 비롯해 인도 각지의 고승들을 초빙하고, 중국에서 온 선종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인도불교의 계승자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불교미술을 비롯한 문화적인 부분도 모두 인도불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연구돼 왔다. 한편 이에 대해 중국 저장성(浙江省)의 저장대학교 중국-티베트 예술센터의 셰지셩(謝繼勝) 교수는 "티베트 불교미술은 단순히 1:1로 인도와 연결하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중국과 네팔의 영향이 더 강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셰 교수는 "티베트 불교미술이 벽화에서 시작되어 지금과 같이 두루마리 형태의 탕카로 발전한 것은 11세기 전후의 일이다. 이 시기 중국에서도 두루마리 그림의 형식이 갖춰졌다. 티베트 탕카에서 두루마리의 축을 사용하고 사방을 비단으로 꾸미는 것은 수당시기에 사용되던 비단 깃발인 표번(飄幡)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셰 교수는 돈황에서 출토된 같은 시기의 유물들과, 당시 티베트의 토번왕조가 70여 년 간 돈황을 지배했던 사실을 근거로 돈황에서 형성된 중국식 불교미술이 교역로 등을 따라 티베트로 전해졌다고 추정했다.

셰 교수는 "토번이 통치하던 시기의 돈황예술은 당나라 예술의 영향이 매우 강하며, 지리적으로도 인도와의 밀접한 교류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탕카의 역사는 다양한 변화가 존재한다. 물론 이른 시기의 불화에는 인도미술의 영향을 받은 구도와 도상이 강하게 드러나지만, 티베트 불교와 중국이 직접적으로 연결됐던 원대부터는 당시 중국의 청록산수와 중국불화의 모티프 등이 강하게 등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티베트 불교 미술연구에 있어서는 서양학계를 중심으로 주장된 인도-티베트 예술, 혹은 인도-네팔예술이라는 이론이 주류로 진행되어 왔다. 실제 티베트 불교의 도상체계는 인도에서 유래하는 것이 많으며, 티베트 불교 내부에서도 전통적으로 불화의 기원을 인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11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불교예술 작품들은 동인도 팔라왕조의 영향과 카쉬미르 지역의 작풍을 따르고 있다. 특히 불상에 있어서는 인도의 불상을 그대로 따라 조성하거나 수입하여 봉안한 역사가 있다. 그러나 회화에 있어서는 더욱 다양한 양식이 등장하게 된다.

셰교수는 이에 대해서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지는 13세기부터 티베트의 불교회화는 인도보다는 네팔과 중국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는다. 심지어 중국에서는 쇠퇴한 화풍이 당시 티베트 탕카에서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셰 교수의 주장에 대해 동일한 시기 인도와 네팔과 인접한 곳에서 조성된 탕카는 중국화의 영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반박도 제기되는 등 학계의 토론이 뜨겁다.

키르기스스탄, 세계유산 불교 유적 공개

실크로드 위 진흙으로 만든 불교 사원


고대 불교 유적지 전경.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글로벌

키르기스스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불교유적에 대한 정비와 보존처리를 마치고 일반 대중에게 공개했다. 지난 9월 16일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은 키르키스스탄의 역사적인 불교유적지가 9월 중순부터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해당유적지는 2010년 네바켓(Nevaket)시의 크라스나야 레흐카(Krasnaya Rechka) 지구에서 발굴된 곳으로, 이곳은 고대 실크로드의 주요 교역로 중 하나인 장안-천산회랑의 주요 거점 중 한 곳이었다. 이 불교사원유적은 유네스코와 유럽연합(EU)의 공동 주관으로 복원됐으며 실크로드 전체에 불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은 중국에 22곳, 카자흐스탄에 8곳, 키르기스스탄에 3곳이 있다.

고고학자 발레리 콜첸코는 "이 불교유적지는 진흙으로만 건축한 불교 사원이다. 드물게 벽돌을 쓴 부분은 사원 내에 봉안됐던 11m 높이의 와불이다. 불상의 전체적인 형태를 만들기 위해 벽돌로 뼈대를 세운 뒤 점토 같은 진흙을 덧붙여 세부표현을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오랜 세월 방치되고 훼손을 입어 현재는 와불의 완전한 옛 모습을 보기는 어렵다. 와불의 독특한 점은 벽에 가로막혀 와불의 전체를 볼 수 없다는 점으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 얼굴, 팔, 다리의 일부만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일종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실크로드 위의 고대유적지는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고대도시 유적도 3곳 있다.

도시유적 남쪽에 위치한 2곳의 작은 불교사원 외에 서쪽 교외에는 조로아스터교의 제단과 공동묘지, 도시유적 내부에선 네스토리우스교 봉헌석 등 당시 범세계적, 다민족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 경제적 교류 등을 엿볼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다양한 종교와 함께 다양한 문화가 상호 작용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가 드디어 대중에게 공개됐다. 이를 통해 실크로드가 단순한 교역로뿐만 아니라, 문화와 종교, 사상이 오간 길이었음을 확인하길 바란다"며 유적지가 공개되는 의의를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日, 백중기간 생겨난 다양한 에피소드 화제

스님들 고백, 다양한 공감 얻어



SNS를 통해 스님들의 경험담과 요령들이 공유되며 대중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출처=트위터 캡쳐

일본 최대의 명절이자 불교행사인 백중 기간에 따라 일본 스님들의 다양한 경험담이 화제를 끌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사찰이나 가정에서의 천도재가 활성화 되면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생겨났다는 반응이다. 9월 17일, 일본의 '마이도나 뉴스', '야후 재팬 뉴스' 등 현지 언론들은 일본의 백중 풍경을 전달했다.

음력에 맞추어 법회를 봉행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양력에 맞추어 봉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음력 7월 15일에 봉행하던 백중은 현대 일본에서 양력에 부합하는 8월 15일에 봉행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추분을 전후로 하는 기간에도 천도재를 봉행하는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각 사찰에서 위패를 봉안하고 합동으로 천도재를 지내는 데 반해, 일본에서는 각 가정에 불단이 모셔져 있는 관계로 스님이 신도의 가정을 방문하고 불경을 독송하는 '다나교(棚經)'라는 풍습이 있다. 특히 다나교는 사찰이 재적 신도를 방문하고 사찰과 신도 간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기회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다나교가 중단되거나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각 종단들도 다나교를 자제하라는 권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최근 진정국면에 들어서면서 예전과 같은 모습들을 되찾고 있다.

한편 다나교에서 생겨난 에피소드들을 스님들이 SNS에 투고하면서 많은 신도들과 스님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스님들은 '종종 있는 스님들의 이야기, 2022년 백중'이라는 해시태그와 키워드를 이용해 각자의 경험담을 소개하고 있다.

한 스님은 "일반적으로 백중기간에 신도분들로부터 먹을거리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다나교를 돌 때마다 제일 큰 아이스박스를 차에 싣지만, 항상 꽉 차서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많은 스님들이 공감했다. 특히 농가가 많은 지역의 경우 "경을 외우는 동안 밭에 가서 바로 캐오시는 경우도 있다"는 스님의 경험담도 나왔다. 또 어린아이들이 스님을 보고 천진하게 행동하는 경험담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 더운 날씨 속에 다나교를 이어가기 위한 요령들도 공유됐다. 장삼 안에 기능성 티나 아이스팩을 붙이라는 이야기나, 기도 중에 초가 꺼지지 않는 선풍기 각도 등 다양한 요령들이 공유되면서 스님들의 고충을 몰랐던 신자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한 신자는 "다시금 집에서 다나교로 스님을 모실 수 있어 기쁘다, 무더위 속에서 정성껏 기도해 주시는 스님들께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 엘론대, 모래만다라 선보여

관세음보살 화신 '녹색따라보살 만다라' 조성


상뽀 스님이 녹색따라 모래 만다라의 바깥 원을 채우고 있다. 사진출처=엘론대

미 명문 사립대 엘론대학교에서 8번째 모래 만다라를 선보여 화제다. 9월 16일 미 노스캐롤라이나 주 지역 방송국 'WFMY 뉴스'는 엘론대학교에서 8번째 모래 만다라를 조성했다고 전했다.

지난 9월 1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위치한 명문사립대학인 엘론 대학교에서 조성이 시작된 모래 만다라는 티베트 출신의 게쎄 상뽀 스님이 작업했다. 스님은 2003년부터 포교를 위해 미국으로 옮겨온 후 만다라를 조성하는 것으로 티베트 불교문화를 알려왔다.

엘론대 누멘루멘 파빌리온에서 조성된 만다라는 깨달음을 위한 다양한 행동과 자비를 상징하는 녹색 따라보살 만다라로 이뤄졌다. 스님이 만다라를 조성하는 동안 방문객은 모래 만다라의 진행과정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스님은 3일간 매일 15시간 이상 동으로 만든 대롱과 특수도구로 미세한 모래알갱이를 정교하게 뿌리며 만다라 조성을 마쳤다. 스님은 "엘론대학 구성원을 위해, 또 일체중생을 위해 만다라를 조성한 공덕을 회향한다"고 전했다.

만다라는 대중에게 공개된 후 전통적인 해체의식에 따라 모두 파괴됐다. 스님은 진언을 외우며 모래 만다라를 쓸어내고 작은 항아리에 모두 담았으며, 일부는 축복의 의미로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의 머리 위로 흩뿌렸다. 엘론대의 교목인 리처드 맥브라이드 목사는 "티베트 불교 미술 문화가 많이 개방되어 학생들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일 수 있어 기쁘다"며 티베트의 불교문화가 지역사회와 학생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깊고 미묘하고 큰 공덕 덩어리



지안 스님의 승만경 강화

㊱ 아난과 제석에게 당부하다

〈원문〉 그때 세존께서는 기원의 숲으로 돌아오셔서 장로 아난(阿難)에게 일러주고, 또 제석천왕을 생각하였다. 제석은 여러 권속들을 데리고 홀연히 부처님 앞에 이르렀다. 그때 세존께서는 천제석과 장로 아난에게 이 경을 자세히 말씀하시고, 제석에게 당부하였다.

"그대는 마땅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잘 외우라. 교시가(憍尸迦)여, 선남자와 선여인이 항하의 모래알 같이 많은 겁 동안에 보리행(菩提行)을 닦으면서 6바라밀을 행하고, 다른 선남자와 선여인은 이 경을 듣고 받고 읽고 외우고 나아가 또 몸에 지닌다면, 이 사람의 복이 앞 사람의 복보다 많을 터인데, 하물며 여러 사람에게 자세히 설하여 주는 공덕이야 말할 게 있겠느냐? 그러므로 교시가여, 이 경을 읽어 외우고 삼십삼천(三十三天)을 위하여 자세히 설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다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설해 주도록 하라."

이때 제석천왕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이름하며,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석천왕에게 말씀하셨다.

"이 경은 한량없고 가없는 공덕을 성취한 것이다. 일체 성문이나 연각들로는 끝까지 관찰하거나 알고 볼 수 없느니라. 교시가여, 마땅히 알라.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며 큰 공덕 덩어리이니라. 이제 너에게 그 이름을 간략히 말하리니,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그때 제석천왕과 장로 아난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말씀하신 대로 받아 지니겠습니다."

〈강설〉 기원정사로 돌아온 부처님이 아난과 제석(교시가)에게 〈승만경〉 수지를 당부하는 장면이다. 승만 부인이 설한 이 경이 어떤 경인지 이름을 들어가며 전체 내용을 다시 요약하여 설해 주시고 이 경을 사부대중에게 유통시킬 것을 당부한 것이다. 경전의 마지막 부분을 '유통분'이라 한다. 모든 경전을 서분(序分), 정종분(正宗分), 유통분(流通分)의 삼분으로 나누어 경전의 전체 내용을 파악해 온 관례가 있다. 부처님과 승만 부인 사이에만 대화가 전개되다가 경의 말미인 '유통분'에 와서 아난이 등장하는 것은 아난이 유통교해(流通敎海)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아난을 경가(經家)라고 칭하며, 다문제일(多聞第一)의 제자로 부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부처님 열반 후 경전을 결집할 때 송출(誦出)해 내었다.

제석은 힌두교의 신으로서 고대인도에서는 인드라(Indra)라고 불렀으며, 불교에 들어온 이후 제석천으로 불리게 되었다. 일설에는 제석천은 원래 마가다국(Magadha)의 브라만으로 있었던 사람으로 보시(布施) 등의 공덕을 닦음으로써 도리천에 태어나 삼십삼천(三十三天)을 통솔하는 천주가 되었다고 한다. 도리천은 사방으로 8천이 나누어져 있고 중앙에 선견천(善見天)이 있어 합하여 33천이 되므로 때로는 33천이라 부르기도 한다. 석가모니부처님도 이 도리천에 올라가 9순(九旬)을 머물며 생모였던 마야 부인을 위하여 설법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경전이 〈지장보살본원경(地藏菩薩本願經)〉이다. 제석은 도리천의 선견천에 있는 천궁 제석궁에 머물면서 불교의 호법주신(護法主神)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때로는 아수라와 전쟁을 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승만경〉을 부처님은 승만 부인이 사자후한 경이라고 이어 말한다. 경전의 격을 높여서 말한 것이다. 이는 이 경이 대승정신을 실천하는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경이기 때문이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을 많이 연구해 왔으며, 대승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실천적인 면을 강조해 놓은 점이 부각되고 있다. 승만 부인이라는 한 우바이를 통하여 대승적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었다 할 수 있는 경이다. 거듭 말하자면 여래장사상과 구경 일승의 이치는 여래만이 알고 있는 매우 심오하고 미묘한 법이라는 것을 강조, 일불승의 사상을 천명해 놓은 대승불교의 비중 높은 경전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생, 삼계·사생·육도 윤회는 존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㊾ 중생심 바로 알고 자성불 깨닫자

△'윤회하는 생명', '유정(有情)'

인도의 역경가 구마라즙은 '중생(衆生)'을 '윤회하는 생명'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 당나라 역경가 현장 스님은 중생의 의미를 '유정(有情)'이라 표현했다. 유정은 원래 불교 유식학(唯識學)에 나오는 용어이다. 당시 유식학에서는 '다시 태어나 죽어가는 윤회의 주체'로서 범어 산스크리트어 '보특가라(Pudgala,補特伽羅)'를 상정하고 있었는데 이 보특가라의 뜻이 '중생'이다.

중생의 의미를 가진 '보특가라'를 '아뢰야식'과 대비해서 윤회의 주체로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 '중생'이라는 용어가 윤회의 주체로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유정'이라고 번역했던 것이다. 그리고 '중생'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가 아니라 유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전래될 때 유교나 도교를 신앙하던 이들에 의해 경전이 최초 한역(漢譯)되는 과정에서 '윤회하는 생명'을 '중생'이라 표기했던 것이다.

△중생의 광의적 의미는 삼계·사생·육도 윤회하는 중생 일체를 말한다.

광의적 의미에서 중생은 삼계(三界)에 사생(四生)으로 육도(六道) 윤회하는 우주법계 속의 일체중생 모두를 일컫는다. 삼계(三界)란 욕계(欲界),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를 말하며, 사생(四生)은 네 가지 출생방식을 일컫는다. 어미의 배를 빌어서 태어나는 태생(胎生), 알로 태어나는 난생(卵生), 물기 있는 습한 땅에서 태어나는 습생(濕生), 자연 변화되어 태어나는 화생(化生), 이 윤회하는 중생의 네 가지 모습인 사생(四生)을 '태란습화(胎卵濕化)'라고 한다.

사람은 윤회하는 생명을 얻을 때 그 모습을 갖고 나오는 인연법이 바로 '태'로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들은 이처럼 모두 태(胎)에 의해서 태어났다.

육도(六道)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등의 여섯 가지 세계를 일컫는다. 그래서 이 모두를 총칭해서 삼계, 사생, 육도의 일체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 중생이라고 하면 미물에서부터 사람까지 생명 있는 모든 존재를 말한다.

그러나 불교에서 '중생'이라고 표현할 때는 '사람'이란 존재에 국한해서 설명한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유정(有情)·무정(無情)이라고 표현할 때 유정은 사람을 의미하고 무정은 사람이 아닌 일체 생물과 식물 등을 포함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중생은 '윤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중생이 윤회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한다. 중생이 살아가기 위해서 의지하는 그 세계를 '기세간[器世間]'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기세간은 우주법계이다. 인간들은 어디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을까? 바로 우주법계 가운데 지구이다. 이 우주법계를 의지해서 생명을 가지고 윤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명 있는 일체 존재를 일러서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을 일러 중생이라 말할 때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윤회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중생들은 자신의 자율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업력에 의해서 윤회 속에 나타난다. 업력의 과보에 이끌리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면 이는 중생이 아닌 것이다. 다른 말로 업력에 끌려 다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중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생은 생명을 가지고 업력에 이끌려 중생 세계에 윤회하며 생로병사를 한다. 만약 중생들에게 생명이 없다면 생로병사의 윤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지흠스님의 禪으로 읽는 '맛지마니까야'

㊱ 라훌라를 가르친 큰 경 2

오온에 대한 포기가 완전한 자각

라훌라는 저녁 무렵에 홀로 명상하다가 일어나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아갔다. 가까이 가서 세존께 인사드리고 한 쪽으로 물러나 앉았다. 한 쪽으로 앉아서 라훌라는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호흡새김을 닦고 어떻게 반복하면 커다란 과보와 공덕이 있습니까?"

"짐이 오늘까지 절을 짓고 불상을 조성했는데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공덕이 없습니다." "무엇이 불법의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텅 비어 성스럽다고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나와 마주하고 있는 그대는 누구십니까?" "모릅니다[不識]."

양무제와 달마 스님이 첫 만남에서 나눈 문답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지, 실제로 있었던 문답인지의 논쟁은 버리고, 이 문답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자. 두 분의 이름을 빼고 보면 살아가는 모든 존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삶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는 황제와 최고의 선승이라는 것이다. 최고의 선승이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공덕이 없다'고 말해버린다. 아마 황제인 양무제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유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는 스님이 "당신은 거지가 될 것이요"라고 말한 것과 같으니 말이다. 이때 양무제의 나[我]와 달마 스님의 '나[無]'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달마 스님은 양무제에게 스스로가 무엇인지를 바로 일러 주었다. 하지만 양무제가 '나[我]'로 들어버린 것이다. '나[無]'로서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다.

수행이 어려운 것은 '나[無]'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것이지 어떤 행위나 지식의 축적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 나[我]를 가지고 '나[無]'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를 모를 뿐이지,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없다. 이것에 따라 수행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뀌지 않는 한 수행은 수행이 되지 않고, 공덕과 과보를 생각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나[無]', 이것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런데 '나[無]'를 정의하고, 그 정의한 것으로 계속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처음 정의한 것을 위배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만약 정의했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정의는 해놓고 새로운 것을 바라고 있다면, 앞뒤가 맞지 않게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는 절망할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에는 좋아서 흥분할 것이 틀림없다. 절망과 흥분은 사실을 인지하는 데 많은 장애를 만든다.

라훌라도 부처님께 수행의 과보와 공덕을 묻는다. 부처님께서는 "어떠한 것도 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어찌 그 깊은 뜻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겠는가. 뭇 삶은 삶과 수행에서 바라는 마음과 무언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못한다. 지금 나름대로 절제하는 무언가를 하고 있으며, 그것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물질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런 당연하다는 한 생각으로 아주 많은 생을 돌고 돌아왔다고는 헤아리지 못한다. 지금이라는 곳에서 지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나에게 일어났었다, 나에게 일어났다,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의 삶에서 바라는 마음을 버릴 수는 없다. 그 바라는 마음이 삶이다. 그러나 수행은 그 바라는 마음이 무엇인지와 그 바라는 자에 대한 관찰인 것이다. 바라는 마음은 부족함에서 나온다. 그런데 부족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무엇이 부족한가에 대한 성찰은 하지 않고, 이것저것 끌어 모아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마음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 잠시의 불안만 해소할 뿐, 완전히 만족한 마음은 없다. 이것이 삶과 수행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나[無]'를 알기 위해서는 나[我]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포기가 필요하다. '나'는 물질이 아니다. '나'는 느낌이 아니다. '나'는 지각이 아니다. '나'는 형성이 아니다. '나'는 의식이 아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완전한 자각이다. 이것 이외에 알아야 할 것은 없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백만원력 결집불사

희망의 불교,
미래의 불교를 함께 열어갑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

-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 불교요양원 건립
-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 10.27법난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관 건립
- 조계종 총본산 성역화 불사 기금 조성
- 위례 상월선원 신축불사
- 나눔 및 교육기금 조성

대한불교조계종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준공


●육·해·공군본부 계룡대 호국 홍제사 건립


●세종시 광제사 및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경주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모연동참안내

백만원력결집불사, 대한불교조계종 검색

NAVER daum

www.buddhism.or.kr

▶매일 발우저금통에 보시

▶정기후원(CMS) : 신청서 또는 전화신청

▶후원계좌 예금주 : 재)아름다운동행(백만원력결집)
농 협 301-0248-0882-41
국민은행 008601-04-152458
우 체 국 010579-01-005480

▶ARS 060-700-0012(한통화 3,000원)

▶문의전화 02)6273-0108, 0109

• 모아진 발우저금통은 재적사찰 또는 문의전화로 상담해주세요.
• 재)아름다운동행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설립한 기부재단으로 백만원력결집 공식 모금창구입니다.



김서정의
절집나무이야기

⑱ 경북 경주시 골굴사 고로쇠나무

쓸데없는 지식이 내는 편견에 발차기를

작년 '다큐 3일'에서 골굴사를 보았다. 가보지 않았지만 낯설지 않았다. 언젠가 접했던 영상들이 기억이 났다. 한국의 소림사 혹은 둔황석굴이라는 수식어 때문이었다. 두 군데 다 답사하지 못한 아쉬움 한 군데 방문으로 갈증을 풀고 싶었다.

낮은 담장 바깥으로 삐죽 나온 차량 통제용 스텐 자바라 대문 멀리 일주문이 보이는 것 같아 서둘러 걸으려는데, 욱신거린 듯 멈칫한다. 발차기, 주먹 지르기 모습을 하고 있는 스님 조각상들이 여느 절에서 찾으려고 했던 고요를 날려버린다. 그런데 오히려 안온해지는 것 같다.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안식을 방해하려는 악귀를 그들이 막아줄 것 같아서다.

함월산 골굴사 편액 아래를 통과하려는데 양옆으로 금강역사가 불끈 힘을 주고 있다. 정말로 여기서 해코지 당할 리는 없을 것 같아 지극히 평온해진다. 하지만 두 안내글을 보고는 지금 무엇을 지각하고 있는지 집중하려 애쓴다.

하나는 '원효가 다녀간, 그 길 위에 서다'이다. 일부분만 옮겨본다.

"원효가 교화한 사상으로는 인간의 본래 심성인 일심으로 돌아가자는 일심사상, 모두가 실제로 돌아가면 하나로 만난다는 화쟁사상, 모든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무애사상이 대표적이다. 말년에는 왕궁에서 〈금강삼매경〉을 강의하였다."

사찰에서 몸을 쓰는 선무도 풍경이 이색적이어서 왔는데, 느닷없이 그 어렵고도 위대한 원효대사를 마주하니 지끈거리면서도 숙연해진다. 그러면서 마지막 "원효대사는 신라 신문왕 6년 70세의 나이로 혈사(穴寺)에서 입적하였다"라는 문장에 나오는 혈사가 바로 골굴사로 추정이 된다는 말에 민중의 거리에서 훨훨 날았던 분이 이곳에서 추구했던 정신세계와 하늘로 발을 날리는 수행을 통해 찾으려는 지금의 정신세계는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지 궁금해진다.

그러면서도 골굴사가 자리잡고 있는 지형의 특징을 말해주는 안내글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어 옮겨놓는다. 이질의 지각을 만들어낸 구멍 송송 뚫린 모습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 쓴 과학적 인식 글이기 때문이다.

"골굴암은 신라시대 선덕여왕 때 창건된 자연석굴 사원이다. 골굴암 일대는 신생대에 폭발한 화산 분화로 나온 뜨거운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융기로 올라간 화강암 덩어리가 대부분인 우리 산에서 오랜 세월 풍화에 의해 크기가 다양한 오목의 구멍을 내는 현상을 타포니라고 한다는데, 이 작용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크게 아우르고 있는 마애여래좌상을 보려고 서두른다. 그런데 계속 오르는 비탈이라 마음대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갈구한다. 동영상에서 본 선무도 수행자들이 물구나무를 서서 오르내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웅보(雄步)라고 해서 곰이 걸음을 걷는 방법으로 기초체력 단련을 위해 네 발로 걷는 힘찬 역동을. 하지만 들려오는 건 가쁜 숨소리뿐이라 저질 체력을 원망하며 고개를 들고 그늘로 숨어들어가 나무를 보는데, 골굴사와 어울리는 듯한 고로쇠나무가 많이 눈에 띈다.



경주 골굴사 고로쇠나무. 고로쇠나무 가지 끝에서 마애여래좌상이 미소 짓고 있다.

〈우리 나무 이름 사전〉에 나오는 설명을 옮겨온다.

"고로쇠나무란 이름은 신라 말의 승려이자 풍수지리의 대가로 유명한 도선국사의 일화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도선국사가 오랫동안 좌선하다가 일어서려는데 무릎이 펴지지 않아 당황하였다. 마침 부러진 나뭇가지에 물이 맺혀 있어 이를 받아 마시고 일어났더니 무릎이 쭉 퍼졌다고 한다. 이후 이 나무에서 나오는 물이 뼈에 좋다는 의미로 나무 이름을 골리수(骨利水, 骨利樹)라 하다가 고로쇠나무가 되었다는 것이다. 고로쇠나무 수액은 경칩 전후에 채취하며 약간 달큼한 맛이 난다. 단풍나무 종류 중에서는 가장 굵고 크게 자란다. 팔만대장경 경판 등에도 일부 이용되었다."

연관성이 너무 짙다. 선무도 기초체력 과정의 기본은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란다. 그래서 고로쇠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놓았을까? 상쾌한 생각이 들지 않아 무거운 마음으로 대웅보전에 올라 삼배를 하면서 무엇이든 잊으려고 한다. 그러고는 법당굴에서 울려나오는 독경소리에 근심을 놓다가 난간을 붙잡고 응회암 촉감을 느낀다. 순간 무섬증이 일지만 멀리 수많은 민중들과 감포 앞바다 문무대왕수중릉을 굽어보고 있는 절벽의 마애여래좌상 미소를 받아들이니 편안해진다.

가파른 계단을 내려와 고로쇠나무 앞에 다시 서는데, 그곳에 계신 문화해설사가 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곳 나무들은 누가 심은 게 아니라 자연스레 씨들이 날아와 숲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활엽수, 침엽수, 교목, 관목, 풀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다. 얼른 마음으로 사과를 한다. 자연과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본래공심(本來空心)인데, 그래서 무생심(無生心)인데, 쓸데없는 지식이 편견의 마음을 내어 어지럽기만 하다. 하산 길 끝자락 고로쇠나무에 가을 단풍이 벌써 얹혀지는 것 같다. 나가다가 발차기에 볼이라도 대면 비워질까. 어질어질하다.

〈작가 겸 숲해설가〉



승한 스님의
불교시 감상

⑰ 김선우의 '입설단비'

팔뚝이라도 끊어서 가고 싶은 곳

입설단비(立雪斷臂)/ 김선우

2조(二祖) 혜가는 눈 속에서 자기 팔뚝을 잘라 바치며
달마에게 도(道) 공부 하기를 청했다는데
나는 무슨 그리 독한 비원도 이미 없고
단지 조금 고적한 아침의 그림자를 원할 뿐
아름다운 것의 슬픔을 아는 사람을 만나
밤 깊도록 겨울 숲 작은 움막에서
생나뭇가지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저 묵묵히 서로의 술잔을 채우거나 비우며

다음날 아침이면 자기 팔뚝을 잘라 들고 선
정한 눈빛의 나무 하나 찾아서
그가 흘린 피로 따뜻하게 녹아 있는
동그라한 아침의 그림자 속으로 지빠귀 한 마리
종종 걸어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싶을 뿐
작은 새의 부리가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손가락 하나 물고 날아가는 것을
고적하게 바라보고 싶을 뿐

그리하여 어쩌면 나도 꼭 저 나무처럼
파묻힐 듯 어느 흰눈 오시는 날
마다 않고 흰눈을 맞이하여 그득그득 견디어주다가
드디어는 팔뚝 하나를 잘라 들고
다만 고요히 서 있어 보고 싶은 것이다

작은 새의 부리에 손마디 하나쯤 물려주고 싶은 것이다

–김선우 시집, 〈도화 아래 잠들다〉 창비, 2003–

입설단비(立雪斷臂). '어깨를 끊고 눈 속에 서 있다'. 설중단비(雪中斷臂)란 말도 같이 쓰인다. 본 감상에 들기 전, 선시 한 편 훑고 가자. 시를 흡수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눈 속에서 괴로움 잊고 팔 끊어 구하니/ 마음 찾을 수 없는 곳에서 비로소 마음 편하구나./ 훗날 편안히 앉아 평온한 마음을 누리는 이여/ 뼈를 부수고 몸을 잊어도 보답하기에는 모자라네.[入雪忘勞斷臂求(입설망로단비구)/ 覓心無處始心休(멱심무처시심휴)/ 後來安坐平懷者(후래안좌평회자)/ 粉骨亡身未足酬(분골망신미족수)]"

야나기다 세이잔(柳田聖山)의 〈전법보기(傳法寶記)〉에 나오는 선시다. 김선우 시인은 이 선시와 이 선시에 얽힌 이야기를 분명히 알고 '입설단비'를 썼다. 〈혜가(慧可)의 단비구법(斷臂求法)〉[혜가단비(慧可斷臂)]으로 유명한 이야기다.

초조 달마 대사가 소림사에서 9년 동안 면벽좌선을 할 때 일이다. 어느 날 신광(神光)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다. 신광은 많은 서적을 두루 섭렵했고, 남들에게 현묘(玄妙)한 진리를 연설해 주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마음 한 구석이 항상, 뭔가에 막혀 있어 시원치가 않았다.

신광은 달마 대사를 찾아갔다. 그리고 배움을 얻고자 아침저녁으로 시봉했다. 하지만 달마 대사는 노상 단정하게 앉아만 있을 뿐,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신광은 생각했다. '옛사람은 도를 구할 때 뼈를 부수어서 골수를 뽑아냈다.' 그리곤 어느 눈 내리는 날, 눈이 무릎 위까지 쌓이도록 꼼짝도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이에 달마는 고개를 힐끗 돌렸다. 그리고 물었다. "그대가 눈 속에 서 있는데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것인가?" 이에 신광은 두말없이 자기 팔뚝을 끊어 달마 대사에게 바쳤다. 하지만 달마 대사는 오히려 꾸짖었다. "부처님이 최초에 도를 구하실 때 법을 위해 몸을 돌보지 않으셨다. 그대가 지금 내 앞에서 팔뚝을 끊었으나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그대가 이미 그렇게 하니 내가 그대의 이름을 혜가라고 바꾸어 주겠노라." 혜가(신광)가 물었다. "부처님의 묘한 도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달마 대사가 말했다. "부처님의 법인(法印)은 남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혜가는 이 말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제 마음이 편치 않으니 스님께서 저를 편안케 해 주소서."/ "그럼 그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내가 편케 해 주리라."/ "그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마음을 벌써 편케 해 주었느니라."

혜가는 법안(法眼)이 활짝 열렸다. 그리곤 달마 대사로부터 발우와 가사를 전해 받고 조사의 법맥을 이어받았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안심법문(安心法門)이다. 〈혜가(慧可)의 단비구법(斷臂求法)〉[혜가단비(慧可斷臂)]은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훗날 선가뿐만 아니라 선시와 문학적 소재로 널리 알려졌다. 이젠 식상함마저 느껴지는 내용이다. 그런데 김선우 시인은 놀라운 통찰력으로 식상한 내용을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 놓았다. 김선우 시인이 불교 공부를 매우 깊게 했음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우선 입설단비(立雪斷臂)다. 김선우 시인은 어느 폭설이 내리는 날 밤, 눈의 무게를 못 견뎌 생나뭇가지가 찢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곤 다음 날 아침 "자기 팔뚝을 잘라 들고 선/ 정한 눈빛의 나무 하나"를 보고 "그가 (자신이 밤새) 흘린 피로 따뜻하게 녹아 있는/ 동그라한 아침의 그림자 속으로 지빠귀 한 마리/ 종종 걸어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싶을 뿐/ 작은 새의 부리가 붉게 물들어/ 아름다운 손가락 하나 물고 날아가는 것을/ 고적하게 바라보고 싶을 뿐// 그리하여 어쩌면 나도 꼭 저 나무처럼/ 파묻힐 듯 어느 흰눈 오시는 날/ 마다 않고 흰눈을 맞이하여 그득그득 견디어주다가/ 드디어는 팔뚝 하나를 잘라 들고/ 다만 고요히 서 있어 보고 싶다"고 자신의 구법(求法)의 마음을 "고적하게", "그림자"처럼 드러내고 있다. 김 시인은 이미 "생나뭇가지"처럼 자신의 팔뚝을 끊어 득도(得道)를 이룬 것이다. 같은 시집에 실린 그의 또 다른 시 〈다래사리〉에 그 경지가 잘 나타나 있다.

"부처님 진신치아사리를 친견한 날/ 이천오백 년 전의 이빨이 유리창 안쪽의 허방을 씹고 있었네/ 무슨 말씀인가를 물으시는 듯하여/ 가까이 다가갔지만 아금니의 기억을 가진/ 잘 닦여진 이빨 몇낱이었을 뿐// 돌아나오는 한겨울 길섶을 지나다/ 차갑게 언 다래나무 덩굴에 손등을 긁혔네/ 곱사등이 나무덩굴이 매달고 있던 / 쪼글쪼글한 다래 열매 몇낱/ 내 허방을 때리며 툭, 떨어졌는데// 이상도 해라/ 잦은 폭설에 짱짱하게 얼며 풀리며/ 눈발 속에 뜨거워진 열매 몇낱이/ 쪼글거리는 등신불 같았네 〈후략〉" – 김선우의 '다래사리' 전문

그렇다. 김선우 시인에겐 이제 모든 사물이, 상황이, 사람이 처처불상(處處佛像)이요, 사사불공(事事佛供)이다. 불교를 이렇게 높고 아름다운 시정신으로 빛나게 해준(해주는) 김선우 시인에게, 허리, 깊숙이, 숙인다.

〈불교문학연구소장〉



자비와 상생의 발우공양

2022년 제13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2009년 제1차를 시작으로 2022년 제13차를 맞이하는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은 수행식이면서 자연식인 사찰음식을 일반대중이 좀 더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사찰의 전통음식문화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올해는 '자비와 상생의 발우공양'이라는 주제로 평등과 절약, 공동체의 단결과 화합의 정신 속에 자연과 생태를 오염시키지 않는 친환경적인 발우공양의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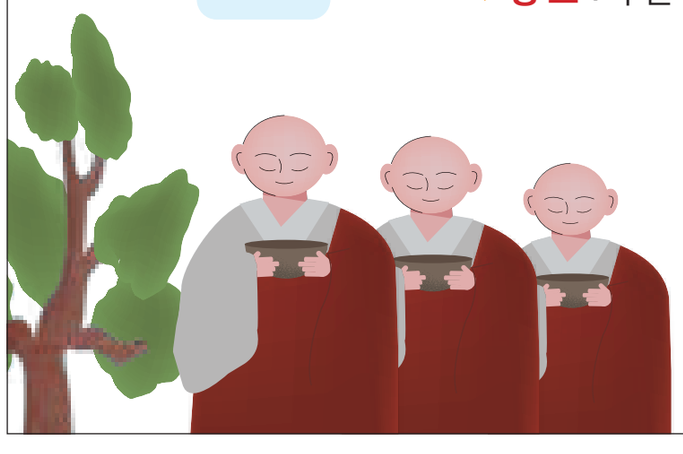
▸일 시 : 2022년 10월 7일(금요일) ~ 10월 8일(토요일)
▸장 소 : 수원 봉녕사 경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 236-54)

10월 7일(금)

시 간	행사일정
07:00 ~ 09:00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셋팅
09:00 ~ 10:10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10:10 ~ 11:10	비빔밥 퍼포먼스
11:10 ~ 12:00	육법공양
12:00 ~ 12:50	발우공양 시연
12:50 ~ 13:40	지견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3:40 ~ 14:30	우관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4:30 ~ 15:30	헌다례 시연

10월 8일(토)

시 간	행사일정
09:30 ~ 10:30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졸업식
10:30 ~ 11:10	육법공양
11:10 ~ 12:00	탁발순례
12:00 ~ 12:50	선재스님 사찰음식 특강
12:50 ~ 13:40	선재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3:40 ~ 14:30	여거스님 사찰음식 실습 강좌
14:30 ~ 16:30	1부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2부 : 퓨전국악그룹 퀸 공연 봉녕사 우담화합창단 공연



YouTube 봉녕사
※ 본 행사는 봉녕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운영위원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SUWON CITY

김병전 대표의 지금, 명상의 시간 ⑨ MS社 사례로 본 명상과 기업경영



▶한줄요약
기업경영의 필수 요소로 '명상'이 떠오르고 있다.

기업성장 발판, '마인드셋'에서 출발

"저는 문명국가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국민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명상을 하는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저는 한국이야말로 참으로 '최고의 문명국가' 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여겼으나, 지금은 오히려 낮은 문명의 나라로 스스로 귀양 갔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명상은 곧 선(禪)이라는 것을 한국의 스승으로부터 배웠습니다. 한국에는 각 마을 도처에 명상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민 모두가 명상의 문명에서 태어나고, 이어받고, 가르쳐 주고, 발전시키며 명상의 대를 이어갑니다. 저는 명상을 적극 추천합니다. '종교의 색채를 지운 명상' 을 국정 교과서나 기업의 기본 교육에 도입하여 한국이 더 높은 문명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국 국민들은 다른 어떤 나라 국민 보다 명상을 훨씬 잘 받아들일 것이며, 기업체에서는 그 효과가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포함한 다른 어떤 회사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몇 해 전, 글로벌 기업들이 명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벤치마킹하기 위해 한국인으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소프트웨어 기획설계자(Architect)로 근무한 킴킴을 소개받았다. 그와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사례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었다.

위 글은 당시 킴킴이 보내온 이메일 내용 중의 일부이다. 해외 명상프로그램이 범람하고 있는 현 시점에 많은 시사점과 통찰을 주는 말이었다.

본 글에서는 명상을 단순한 힐링, 스트레스 관리를 넘어서 기업의 전략, 조직문화와 연결한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6년 가을 마이크로소프트사社의 찰스 모리스(Charles Morris)는 회사에 마음챙김 기반 성장 프로그램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제안의 제목은 '마음챙김 기반 성장; 성장마인드셋으로의 혁신 가속화(Mindful Growth: Acceleration our transformation towards a growth mindset)' 그가 제안한 마음챙김 기반 성장(Mindful Growth)의 핵심은 마이크로소프트사 최고경영자인 사티아 나델라가 추구하는 조직문화 방향성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나델라는 2014년 취임과 함께 자신의 첫 번째 사명을 '문화를 바꾸는 것' 으로 규정하고, '성장 마인드셋' 을 회사의 성공 이니셔티브로 삼았다. 성장 마인드셋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불변하고 고정되어 있는 자질' 이라 믿고 현재 수준에 정체되어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고정 마인드셋(fixed mindset)의 반대 개념이다.

현재 가진 재능을 성장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잠재역량을 발휘해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찰스 모리스의 제안은 '마음챙김 프로그램' 과 '성장 마인드셋' 을 통합하여 실행함으로써 마이크로소프트사 최고경영자가 추구하는 조직문화 변혁 속도를 더욱 의미 있게 가속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안되었다.



MS, 2017년 명상 프로그램 도입
조직 잠재력 향상 방향과 맞닿아
스트레스 감소, 집중 · 창의력 향상

집단공감으로 조직문화도 진일보
심신 관리에 우수인력 유치 도움
도입 후 의료비 지출도 7% 감소

경영진 의사결정에 따라 2017년 3월에 30명이 참여하는 8주 마음챙김 명상 파이럿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파일럿 프로그램은 매회 3시간씩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주제 강의, 초대 강사(비디오), 과학적 근거 설명, 명상 실습, 저널링, 나눔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일주일 동안 명상 실습을 하였으며 자신의 삶 속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 30명중 21명에게 받은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참가자 중 한사람은 "프로그램은 경이적이었습니다. 내가 마이크로스프트에서 받았던 다른 어떤 리더십 프로그램보다도 통합적이고 철저했으며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라고 했다.

찰스 모리스는 프로그램 종료 후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구성원들이 마음챙김 프로그램과 같이 깊이가 있으면서 변혁적인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잠재 욕구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두에게 생소한 프로그램이었지만 참가자들은 상호 공명을 일으키면서 진지하게 참여했다. 이러한 결과에 힘입어 2017년 파일럿 프로그램 이후 마이크로소프트社 내에서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미국 레드몬드 지역에 위치한 마이크로소프트사 본사에는 각 빌딩에서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명상을 할 수 있도록 명상실 또는 기도실이 마련됐다. 명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하는 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시설을 제공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社는 마음챙김 교육을 최우선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게 주는 이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얻을 것을 기대하는 혜택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큰 효과중의 하나는 직장인의 가장 큰 고통 중의 하나는 스트레스의 감소이다. 마음챙김은 상황 자극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형태로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준다. 마음챙김은 분노, 판단력 상실, 혈압 상승과 관계된 뇌의 편도체 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조절에 탁월하다.

다음으로 집중과 명료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챙김은 통해 현재를 떠나 산만해진 마음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멀티태스킹 환경 하에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집중하면서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세 번째는 창의성과 혁신성의 발현이다. 마음챙김은 현상을 비판단적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마음챙김 훈련을 통해 뇌가 진정한 휴식을 취하면 창의성이 깨어나게 된다.

네 번째는 정서지능의 계발이다. 'One Microsoft' 를 위해 상호 협력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기인식, 자기 조절, 소셜 스킬, 겸손함, 건강한 자신감 등과 같은 역량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량은 마음챙김으로 계발할 수 있는 정서지능 역량이다. 리더들에게 더욱 중요한 역량이다. 마음챙김은 통해 뇌섬(insular)과 같은 정서지능과 연관되어 있는 뇌부위를 활성화시켜준다.

마지막으로 공감과 컴패션의 계발이다. 공감과 컴패션은 동료, 고객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동의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고통을 피하는 방식으로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제공한다. 마음챙김을 통해 공감과 캠패션이 발현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마음챙김을 통해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과학자들은 마음챙김 수련을 통해 온전한 행복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천 년에 걸쳐 많은 명상가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되었다.

찰스 모리스는 현대의 과학과 고대의 지혜가 어우러진 사내 마음챙김 프로그램이 마이크로소프트사 구성원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회사 측면에서도 구성원들이 마음챙김을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다. 즉 성장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으면 회사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마음챙김 기반 성장' 프로그램의 확산이 회사의 신뢰와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신뢰로 운영된다' 는 자부심이 있다. 강한 윤리를 가지고 있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즉 인권, 환경적 지속성, 투명성과 같은 사회적 이니셔티브와 회사의 업무를 연계시키는 광범위한 개념을 입증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자기 인식과 윤리적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발견했다. "마음챙김은 자신의 사고 과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마음챙김 힘이 커질수록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고 한다. 결국 구성원들이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통해 더 많은 집단 공감이 형성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더 큰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조직역량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수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재적인 신입사원들이 마음챙김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이크로소프트사 구성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채용 브랜드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활동에 관심이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의 가치관과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찬가지로, 마음챙김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은 우수 직원들을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무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감소, 집중력 강화, 생산성 향상, 혁신적이고 공감적 업무 환경 조성 등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교육 투자비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마음챙김 프로그램의 투자 수익률을 측정하고 있는데, 보험사인 애트나의 경우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직원들이 매년 의료비에서 2,000달러를 추가로 발생시켰는데, 2012년 마음챙김 프로그램 실행 후 의료비 지출이 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마음챙김이 기업의 재무성과에도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기술 및 경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과거의 성공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조직으로의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핵심 이니셔티브는 '성장 마인드셋' 을 통한 조직문화의 혁신. "문화는 전략을 아침으로 먹는다"는 마이크로소프트CEO인 사티아 나델라의 말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다. 마음챙김 기반 프로그램은 '성장 마인드셋' 문화를 확산을 위한 방법 중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음챙김을 기업문화와 인재전략과 명확히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개인과 조직의 혜택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균형감을 가지고 지혜롭게 도입하고 있다.

최근 국내 기업들도 명상을 기업경영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명상이나 마음챙김에 대한 개념과 기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기업명상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고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社의 사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무진어소시에이츠 대표〉

www.boryeon.com
도량장엄 전문기업
보련기획
도량장엄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등자동승강장치
원불전, 인등, 위패
각종 시설물 제작·시공
보련기획 BORYEON
010-5381-9355
031-526-220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89번길 27
도 량 장 엄 등
부처님오신날 봉축기념탑
연 등 자 동 승 강 장 치
원 불 전
인 등
위 패

접 수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4만원/회 ◆가로 8㎝: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405호 | 15 | 전면광고

바른 도를 잘 닦아 익히어 진실한 법의
그 모양 알고 그 도량에 굳건히 머무르면
부처님의 보리를 성취하리라.

부처님 말씀 읽기 - 《화엄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제9호 영산재 천수바라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우주광명 「누진통」「천안통」 시공을 초월한 수행법

단 한시간이면 업장소멸, 번뇌가 사라져 무상무념이 되고 해탈이 되어 매일 선정과 삼매에 들어 깨달음을 이루고 병고액난의 고통과 삼악도에서 벗어날수 있음.

일광 합장 010-3586-6091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010-2204-8375

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을 직접 찾아뵙고 무료 교육과 상담을 진행

의처증과 의부증, 악몽 빙의,
모든 신경성 질환에서 오는 여러 증상,
질병치유 심리학, 한의학과 철학,
정확한 원인 분석 치유, 부부문제 전문 상담

문자 010-4078-7810

天文神功 천문신공

• 백여권 저자 직접전수 •
• 최다목록 무료 검색 •

Daum Cafe.daum.net/yokhak
역학대통령 ▼ 역학수상 동방진인비결

02-907-5858
010-2693-7712



추천 - 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지역
• • •
010-8721-2198

• •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70세 이하, 숙식 제공
외국인 환영
강원도 춘천 인근
• • •
010-5049-1533

• • •
50~60대
비구니스님과
보살님 모십니다.
자격 : 운전, 컴퓨터로
사찰사무 할 수 있는 분
• • •
010-4968-3251

• • •
부산 만덕사에서
살고싶은 분
스님, 행자, 처사
구합니다.
• • •
010-3840-4355

• • •
공양주 모십니다
(출퇴근)
사당동 남성역 근방
• • •
010-5212-8889

울산태화영산회 회원모집

❖ 제1기생 학인모집 00명
❖ 수료후 영산회 회원 가입 자격 부여
❖ 작법무 천수바라 서울 소리 범음 범패
❖ 각종 사찰 행사 전담 문의
❖ 승속 종단 불문 가입, 재가불자 가입가능
❖ 교육기간 6개월 교육비 무료

010-9190-5896
010-4147-1999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수강생 모집

명리학기초부터
길흉판단 · 작명
단시일내

* 삼송정사 *
010-9323-5693

성명학 · 타로 · 절간사주 · 비법

절간사주 · 타로 · 인상학 · 수상
특별비법 비구니 스님께만 전수 수강료 100만원
★간절하게 꼭 배우고 싶은 비구니 스님만 문의 주세요★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아로마테라피와 싱잉볼명상 전수해드림 ◈

문의전화 010-6284-6172

• 장기간 공양주 하실 분, 부부 환영
• 충청북도와 강원도 경계에 공기 좋고 경치, 교통 좋은 사찰내에서 요양원 운영할 분
• 장기간 부전이나 절을 운영할 스님

연락처 010-8945-1424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대구사무실 서울잠실사무실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영험약수"로 힐링(치유)가능

◈ 효능 : 변비, 오십견, 몸 아프신 분 ◈
◈ 식약청 46가지 검증 ◈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적천리 113 법정사
지평대사 : 033-336-2309 / 010-4804-2309
※ 몸 아프신 분들 천도재 해드립니다.
※ 땅 양도 안되시는 분들은 연락주십시오.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현대인의 지친 삶을 위한 쉼터

빙의, 신병, 우울증, 불면증, 화병, 중독, 스트레스, 가정 · 사업문제, 심령치유, 금식기도, 장기요양

* 마음치유 · 심신수련 · 쉼 터 *

땅끝마을 청정지 해남 견성원에서 새로운 삶의 기운을 받아 가세요!
견성원 문의전화 010-8208-7836

전생에 "도선국사"

샛별을 보고 득력, 1년에 햇무리 무지개가 30일 이상 뜹니다. 음택, 양택, 명당 한자리를 찾아주면 햇무리 무지개가 뜹니다. 마곡사, 보리암, 연주암 같은 명당은 전국에 80여 군데나 비어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직무실을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이전하면 국운상승, 남북통일이 2030년 안으로 됩니다.

기축생 경력 35년 관상 이무기상 청룡당 남 원명스님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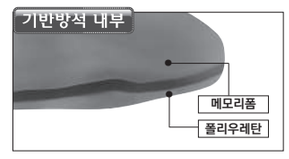
(부산) 전화 : 010-4413-3377

• 기도스님
• 공양주
• 불목(사찰관리자, 처사, 부부환영)
• 평생 함께하실 사부대중을 환영합니다!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539-4(은적사)
전화 : 055)326-3353 010-8961-5489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문자접수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405호 | 16 | 전면광고

의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구하고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
◎ 부지 : 450평
◎ 건평 : 50평 외
◎ 시내산 및 주차가
◎ 가액 : 25억원

◎ 위치 : 부산
◎ 부지 : 110평
◎ 건평 : 약100평
◎ 산 및, 주차가능
◎ 가액 : 8억 5천만원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천년사찰터 다량보유, 부전 등 절집소임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안내 가람

전국 사찰 양도 접수 받습니다.

사찰 양도를 결정하셨다면
저희 다래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신속하게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진 및 상세내용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안내가람"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찰(급)안내

●위치 : 경북 청송군 현동면
●공기 맑고 아늑한 절
●잡종지내의 대지 143평
●가액 : 1억2천5백만원(조정 가능)
●노스님 몸 아픈 관계로 급양도
●가전제품 보시 ●당일법회 가능
●현재 운영중입니다.
●법사님, 보살님도 환영합니다.

010-4180-1788

사 찰 안 내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가액 : 10억원(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북 경주시 안강읍
●대지 : 90평
●건물 : 아래층 34평
2층 법당 24평
●조용한 주택가, 주위 모든것이 편리함(은행, 병원, 마트 등)
●가액 : 7억원(절충 가능함)

010-2458-6655

사찰(급)안내

●경남 양산, 종교용지, 대지218평, 시유지 포함 500평사용, 주차10대, 건평 68평중 1층 요사42평, 방4, 화장실3, 2층 대웅전26평, 식당2, 실외화장실1, 산신각6평, 난방 심야전기, 지하석수 1일 150톤이상, 상하수도, 종말처리 ●집기 일체 포함, 즉시법회가능 ●건강상 시가 이하로 7억 5천만원에 양도함 (절충가능)

010-6425-8274

전원주택&토굴 안내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 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내 지하철 역세권 (150m)
●3층 약50평, 옥상 사용가능
●10년 이상 운영(타지역 이주 관계) 도시가스, 난방, 방편있는 스님 유리, 즉시 법회 가능
●보증금 5백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8백만원

010-9231-6825

사찰(급)안내

●위치 : 경남 진주시 작고 아담한 사찰
●건평 : 약 50평
●건물 3동, 대웅전, 방3개, 스님큰방, 용왕당, 산신당
●스님 몸이 건강 안좋음
●가액 : 7천5백만원(조정가능)

주지 010-7506-8604

암 자 안 내

●위치 : 경북 봉화군 상운면 내 산세, 경치, 공기 맑고 수련하기 최고
●부지 : 1400평(봉화 시내버스 다님)도로옆
●대지 : 200평(마당 강자갈, 주차 15대)
●법당 15평, 산신각 6평, 정자, 그네, 요사채 25평, 콘크리트 건물, 큰거실, 큰방2개, 수리완벽, 지하수, 집기보시
●가액 : 2억5천만원

010-7144-7846

사 찰 안 내

●위치 :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2가
●6, 7, 8층 사찰 임대
●각층 100평
●현재 사찰 운영중
●최상시설

010-5883-2255

사 찰 터 안 내

●위치 : 경북 영덕군 지품면 기사리 산56- 1
●대지 : 17,670평
●도로 및 토목공사 정비
●절터, 휴양지, 목장 최적지
●가액 : 2억원

주인직접 010-5641-1911
010-7635-0201

35년 전통! 불교용품(스님용품) 전문점

●위치 : 서울 종로 조계사 근처(위치 좋음)
●건강상 사유로 양도코저 함
●불자로서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시는 분, 전국 거래처 다수
●사찰에 필요한 용품, 최초 단독 개발품 납품중
●타 용품점과 차별화된 정말 아까운 용품전문점임

문의 010-3665-0950

포 교 원 안 내

●위치 : 안양 명학시장 2층 약 50평
●삼존불 봉안, 시설비 없음
●법당, 주방, 침실
●보증금 3천만원, 월 50만원 관리비 없음

010-5495-4678

포 교 원 안 내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앞산(큰도로변 2층)
●사찰 이전관계로 급 임대
●보증금 : 3천만원
월 : 110만원(부가세포함)
●시설비 상담후 조정

010-6302-3823

포 교 원 안 내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3층중 2층
●법당34평,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방1개, 화장실
●보증금 5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가능)
●몸만오시면됨

010-7476-9002

사 찰 안 내

●위치 : 전북 익산시 (시내에서10분거리)
●대지 : 종교부지 500평, 밭포함, 약 1000평
●건물, 법당, 산신각, 요사채 (현대식건물), 법당집기 일체 포함
●가액 : 4억5천만원

010-5581-3081

사 찰 안 내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대지 : 실평 246평
●대웅전, 산신각, 요사채, 태양광 20칸, 손볼 곳 없음
●대형마트, 농협, 시내10분, 막힌 곳이 없고 경관이 매우 수려함
●가격 : 2억5천만원(절충)
●스님 건강상 문제

010-7572-8526

사 찰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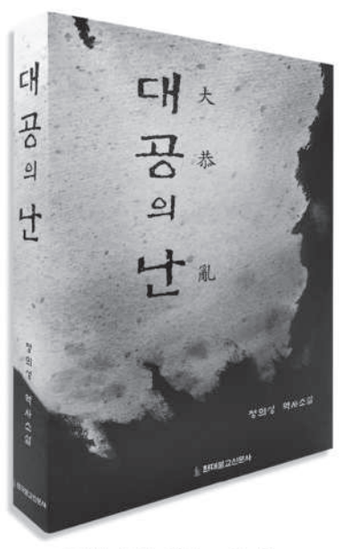
●위치 : 경남 고성군 삼산면 바닷가 근교
●부지 : 510평(대지 220평, 전 290평)
법당, 산신각, 요사채 3동
●토지 : (전)신축 가능
●가액 : 2억 5천

010-3871-2210

사 찰 안 내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603번지) ●대지 : 700평 외 전(실사용 천평) ●건물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용왕당 ●요사채 : 황토방 2동, 슬라브 2동, 헤우소 1동(문 5개) ●유실수 다량 ●따뜻한 남향, 도로 포장, 차량진입, 주차장(10대), 주변에 개발지역 ●가액 : 5억원

010-9203-1165
010-9564-1165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 ⇨19,800원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구입문의 — 02)732-1520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건강한 수행을 위한 기적의 소금

해양심층수의 모든 미네랄을 그대로 담은 최초의 제품, 소금이 아닌 소금, 기적의 소금으로 불리고 있는 소금이 있다.

강원도 고성 수평선 넘어 6KM 떨어진 깊은 바다, 수심 605m의 깊은 심층수를 길어 올려 첨단공장에서 정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만든 건강을 위한 제품입니다.

깊은바다 해양심층수의 깨끗함, 풍부한 미네랄을 살려 나트륨은 적고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바다의 모든 미네랄은 풍부한 소금, 모든 미네랄은 들어 있지만 쓴맛이 없는 부드러운 짠맛의 소금,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을 한포 한포 물에 타서 드시면 새로운 건강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씨아드의 첨단 기술과 생명살림의 마음을 담아 물에 타서 수시로 마실수 있도록(1포/500ml) 개발했습니다.
김오곤 원장 처방에 따라 몸에 좋은 침향을 첨가한 제품도 있습니다.
좋은 제품 드시고 모두 건강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 오씨아드 엠큐해양미네랄 제품은 강원도 고성 해양심층수 특화산업단지에 있는 해양심층수 엠큐눈소금 전용공장에서 생산 판매됩니다.





엠큐해양고미네랄(75,000원)
3g x 31포 x 2박스 + 180g 1병



김오곤원장의 엠큐해양고미네랄 침향
(125,000원)
3g x 31포 x 3박스=93포(침향 7% 함유)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소금인간- 소금이 답이다" 책(18,000원판매중)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주문 전화 및 대리점 희망 전화 : 033-631-9976, 010-5022-0442
www.mqsalt.com, www.ociad.com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합장주·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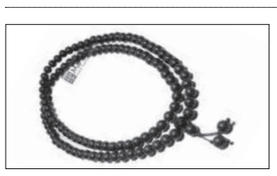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아주 중심에다 활을 꽂을 수 있다면 아니 되는 게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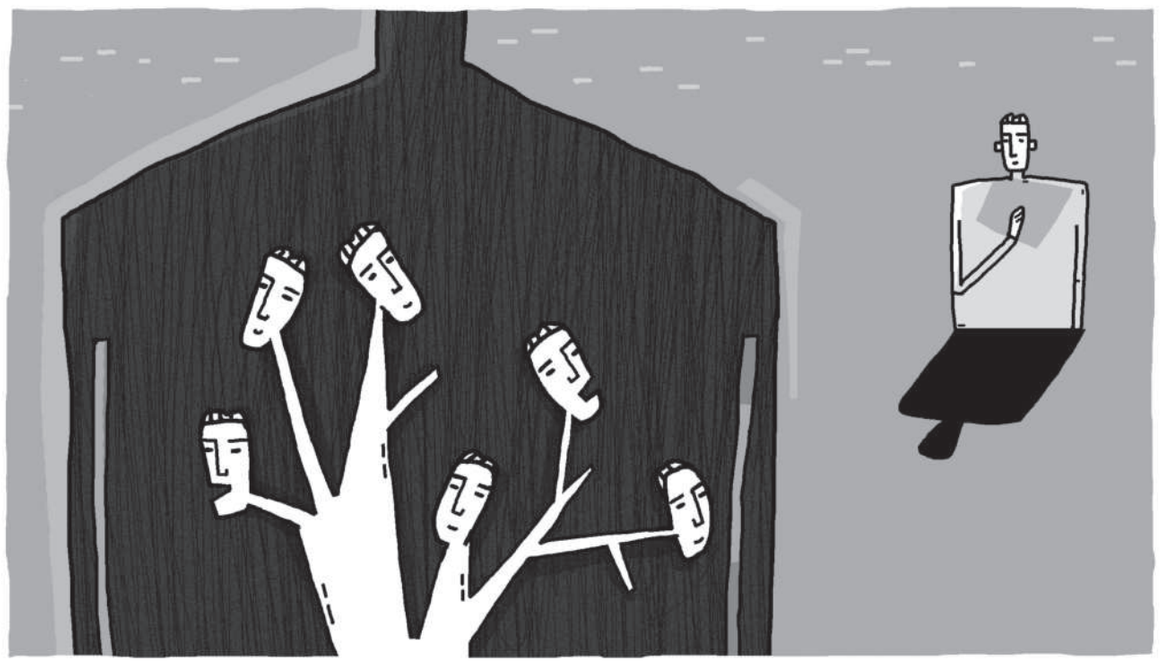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서 한생각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점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하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먹고사는, 공생으로서 공용하고 있죠. 그러니 가정에서의 어려움이나 다른 모든 문제를 각자 마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묘법이 바로 우리들의 법이자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여러분은 부처님 법이 따로 있어서 생활과 동떨어져 있다고, 부처님 도량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각자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 체 없는 마음은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청정함도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걸림 없는 것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도 버리지 않는 법도 갖추어 가지고 있다이 소립니다. 또 일심으로써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그것도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있고 모든 법을 응용하고 있는 것이니 아주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처님 법은 자기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중생이니까 부처님의 그 묘한 법, 광대무변한 법은 모른다' 고 생각을 하시죠? 여러분이 고등 동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태어난 것은 수억겁에 걸쳐 '아, 이런 거는 잘못된 건데….' 하고 반성하고 고치면서 살아오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되면서 마음을 그렇게 지혜롭게 썼기 때문입니다. 또 마음이 지혜롭지 못해서 아직도 짐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동물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인간까지 됐으니 인간 자체가 모두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번 돌리면 부처입니다. 그 부처의 마음을 내가 갖추어 가지고 있고 청정함도 나한테 있고 걸리지 않는 것도 나한테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다면 바로 부처입니다. 그러나 그 도리를 몰라서 바깥으로 끄달리고 윤회에 끄달리고 업보에 끄달리고, 독안에 들어도 못 면하는 그런 팔자 운명에 끄달리고, 부적을 써 붙여야 잘된다는 것에 끄달리고 '내가 그냥 이사를 가면 사단이 나지. 무슨 일이나 생기면 어쩌나.' 하는 데 끄달리고, 무꾸리를 해서 좋다고 그러면 좋은 줄 알고 언짢다고 하면 언짢은 줄 알고 남의 말에 끄달린다면 중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된 도리로서 다 갖추어 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고차원적인 인간으로서 행을 못 하시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한테 "한생각의 도리를 알면 부처인 것이다. 그런데 그 도리를 모르면 인과응보에 끄달리면서 일체 모든 것이, 발 하나 떼어 놓는 대로 고(苦)니라. 네가 고덩어리니라." 그러셨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릴 테니 잘 들으세요.

고집멸도 사제법도 '고덩어리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멸해 버리느니라. 그러면 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편하게 아세요. 그걸 그냥 어렵게 생각을 하신다면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난 게 고덩어리니라. 왜 고가 됐느냐. 내가 나기 이전의 수없는, 물질에 끄달리면서 살아 내려온 그 습이 뭉쳐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에 살면서 지은 인(因)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형제의 인, 부모의 인, 자식의 인…, 착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 인에 의해서 과(果)가 되고 인과가 돼 가지고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 겁니다. 부모도 바로 인연에 따라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과가 뭉쳐서 고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고가 어디 붙어 있느냐. 바로 여러분 속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천차만별로 요렇게도 생기고 길쭉하게도 생기고 모습이 죄 다르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사는 짐승들도 천차만별로 다른 모습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인간도 천차만별이고 짐승도 천차만별이고 사생이다, 알로 나는 거든지 태로 나는 거든지 습한 데서 나는 거든지 화해서 나는 거든지 다 천차만별로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차원도 다르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듯이 내 몸 안에 지금 수십억 마리가 돌고 있는데 그게 인과로 뭉쳐진 겁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나왔지만 그 속은 내가 과거에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그 인으로 인해서, 업보로 인해서, 살던 습으로 인해서 온 인과가 뭉쳐서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악한 마음도 나오고 선한 마음도 나오고 증오하는 마음도 나오고 별 마음이 다 나오는데 그 마음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데도 잘못되는 수가 있고 잘되는 수가 있고, 장사를 하는 데도 잘되는 수가 있고 잘못되는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행에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주인공에 맡겨 놓고 하신다면 행과 마음과 말과 뜻이 바로 합류화돼 가지고 스스로 속이 상하질 않고 편안하기 때문에 말도 편안하게 나와서 남도 편안하게 해 줘요. 그러면 빚진 사람이 갚지 않다가도 자기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아, 저 사람에게 빨리 갚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빨리 갚게 되는 거고 빨리 받게 되는 거죠. 장사도 그렇습니다. 회사도 그렇습니다. 모두를 거느리는 회사의 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써야만이, 또 말을 어떻게 해 줘야만이, 행을 어떻게 해야만이 직원이 자기 뼈를 깎아도 아깝지 않다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가? '내 사장을 살려야지. 이 회사를 위해서 저분은 참 애쓰셨는데….' 이렇게 '저분은…' 하는 이러한 마음이 스스로 생기게 해야지 강요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삐뚜로 나갔습니다. 허허허.

그런데 삐뚜로 나간 게 아니라 그것도 생활선으로 통하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은 행하는 것을 가르치셨고 또 마음과 행으로써, 즉 말하자면 실천궁행을 하는 것이 그대로 부처님 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에 빠지거나 유(有)의 생활에 빠진다면 이건 저울이 맞질 않는 거죠. 양면이 다 맞아서 우리가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 돼야 되겠죠. 동떨어져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몸뚱이의 고' 라고 했는데, 그래서 고집멸도 사제법은 '집착을 하지 마라. 집착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놓게 된다. 그냥 용광로에 놓는 작업만 하라. 그러면 스스로 바로 재생이 돼서 나간다. 그것이 집착을 하지 않고 놓는 것이다. 그러면 멸한다. 멸하면 도니라.' 이겁니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얘기해 드리죠. 내가 지금 몸에 들어 있는 그 인과응보에 의한 의식 자체를, 수십억 마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라기보다는 여러분의 지배인이라고 생각합시다. 지배인이 모든 부하를 인솔하는데 마음을 잘 써 주면, 둘이 아니게 써 준다면 그 수십억 마리가 모두 한마음으로 따라 줍니다.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간장 공장, 위 공장, 이 공장 저 공장, 이렇게 여러 군데에 공장이 있어도 마음은 체가 없으니 지배인의 한마음이라면, 내가 지금 살면서 한 마음을 잘 쓴다면 이 속에 있는 그 수십억 마리가 한마음으로 뭉쳐 줍니다. 그래서 묘법인 것입니다. 이거는 현실입니다. 이런 공부를 해서 미래에 천당에 간다, 승천한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 자체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따로 없고 미래도 따로 없고 현실 일도 찰나 생활이기 때문에 '무(無)다' 이런 겁니다. '공했다' 이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고 무척 고민하면서 여러분을 대하는 겁니다. 책을 보고 이론으로써 학식으로써 지식으로써 여러분한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연구해서 체험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행해 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악업과 선업이 한데 뭉쳐 있는데 악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니요 선업도 여러분의 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법인가? 여러분이 마음 쓰고 행하는 것이 그대로 법인 겁니다.

왜 자기를 자기가 못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 A18면으로 계속

현대불교신문과 함께하는

인도·네팔 불교성지순례 12일

지도법사 : 대연스님
한국 유일의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가이드북의 저자이시며 인도를 30회 이상 다녀오신 대연스님이 직접 안내와 설명을 하는 성지순례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성지순례는
■ 지도법사스님의 신심나는 설명과 유익한 순례를 약속합니다.
■ 인도불교미술에 대한 심도있는 설명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불교전문 가이드가 진행합니다.
■ 쇼핑 옵션이 없습니다.
■ 동참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녹야원


부다가야


나란다대학터


바이샬리


쿠시나가르


타지마할



출발일 : 2022년 11월 1일~12일 동참금 : ₩2,990,000

주요일정

1일 : 인천 - 델리(인도항공 AI 0313) 인천국제공항 1청사 10시 05분 출발
2일 : 델리 - 국내선 - 바라나시 - 초전법륜지 녹야원, 사르나트 박물관 관람
3일 : 바라나시 겐지스강 보트 유람 - 항하사 - 부다가야
4일 : 보드가야 순례, 보리수, 마하보디 대사원, 전정각산, 수자타탑, 네란자라강
5일 : 최초의 사원 죽림정사, 영축산 여래향실, 칠엽굴, 날란다 대학 순례, 바이샬리 도착
6일 : 바이샬리 : 부처님 진신사리탑, 대림정사 중각강당, 원숭이 연못, 아소까 석주 순례, 께사리아 발우탑 순례, 열반성지 꾸시나가르 도착 - 열반지 쿠시나가르 : 열반당
7일 : 쿠시나가르 - 인도 - 네팔 국경 통과 - 부처님의 진신사리탑 랑그람 순례, 룸비니 도착
8일 : 탄생성지 룸비니, 석가족의 왕궁 카필라바스투, 네팔 - 인도 국경 통과, 삐쁘라흐와 진신사리탑 순례, 쉬라바스티 도착
9일 : 기원정사, 사위성, 앙굴리말라 회심처, 천불화현탑 순례 럭나우 경유 아그라 도착
10일 : 타즈마할, 아그라성(城) 관광, 뉴델리로 이동
11일 : 국립박물관 -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꾸뚭미나르, 연꽃사원, 뉴델리 관광 뉴델리 국제공항 출발(인도항공 AI 0312) 21시 50분
12일 : 인천국제공항도착 08시 15분

문의 : 현대불교문화사업단 02)2004-8213, 730-4008 순례진행 : (주)케이투어 아제여행 불교성지순례&특수지역전문 http://www.ajetour.co.kr/

진심으로 자기한테 자기가 미쳐야 합니다

☞ A17면에서 계속

용광로에 넣듯이 작업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찰나 되는 것도 찰나라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죠.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가고 오는 것,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만남도 그렇고 모두가 말입니다. 그러니 공했단 얘기죠. 그것을 현실로써 널리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나와 상대, 이 모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으로 뭉쳐서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지혜가 생기죠.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집 안에 있다고 해서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가깝고 멀고가 없습니다. 저 우주 전체를 한 찰나에 탐험할 수도 있는 심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내가 용광로에 넣듯이 과거의 업을, 얽히고설킨 인과를, 악업 선업 지은 거를 다, 오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전자에 한 것이 현실에 나타나서 여러분이 지금 현실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악업을 지었으면 악업, 선업을 지었으면 선업이 번갈아 가면서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겁니다. 안에서 솟아 나오고 바깥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이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기복으로만 자꾸 나간다면 공덕도 없거니와 이익도 없고 또 세세생생에 나를 건질 수 없기 때문에 일체를 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악업 선업을 다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살림을 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일하고 그럴 때, 용도에 따라서 내 앞에 큰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외로움이 생기고 또 '아,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모두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과로 인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는 의식만 없으면 송장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수십억 마리가 돌아가면서 그렇게 선업 악업 지은 데서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뇌를 통해서 바로 소뇌를 통하고 이렇게 해서 중추 또는 척수 이런 데로, 양쪽에 마이크 세워 놓았듯이 세워 놓은 데서 척수 자체에서 중추를 끼고 도는 그런, 가장자리 양쪽에 붙은 것이 바로 전체를 통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일이 말로 할 게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놓아야 합니다. 잘돼서 좋은 생각이 들어가면 '아유, 참 감사하구나.' 이러는 게 그냥 놓는 겁니다. '내 주인공 참 감사하구나.' 하는 게 놓는 겁니다. 또 안됐으면 '아, 내 주인공밖에 해결할 수 없구나.' 이게 놓는 겁니다, 또. 그런데 뭐가 어렵습니까? 왜 놓을 수가 없다고 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으로 자꾸 창살 없는 감옥에다 자기를 넣고 옹쳐매니까 나는 되풀이하는 겁니다. 마음이 체가 없어서 우주 전체를 탐험할 수도 있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겁니다. 또 "당신 마음으로 옹쳐매고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 놓는 게 고고 그게 바로 지옥이다." 이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왜들 그렇게 믿지 못합니까? 자기를 자기가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왔다 혼자 가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섯 가지는 대신 못 해 준다고요. 똥 누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죽는 거, 아픈 거, 이런 거는 대신 못 해 줘요.

여러분한테 자꾸 되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릇이 요만하다면 나도 요만큼밖에 얘기 못 해요. 여러분 마음이 드럼통만 하다면 드럼통에 담길 말을 하게 되죠. 바다 같다면 더 말할 거 없이 함이 없이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가고 옴이 없이 "허허, 물이 없는데 배가 어디 있을꼬? 배가 없는데 탈 게 어디 있으며 건너갈 곳이 없는데 건너갈 게 어디 있나, 내가 공했는데." 아, 이런 말들로 쭉 법문이 돌아가죠?

그런데 수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마음 한 번 잘못 쓰고 행한 번 잘못해 가지고 백 번을 고생을 하고 백 마디를 해야 하고,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고 고통을 받고 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착을 둘 걸 둬야지 이 몸뚱이도 내 집이란 말입니다. 내 집에도 착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런 것에 착을 두지 마라. 내 집까지도 착을 두지 마라." 왜? 평생 살다가 내 집을 떠날 때 어떻게 이걸 두고 떠나느냐 이거죠. 착을 두면 이 집을 떠나지 못해서 3년이고 4년이고 콩깍지 안 떨어져서 억지로 떼듯이 그렇게 아픔을 당한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이 착을 두지 않는다면 내일 가든지 모레 가든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 아닙니까? 콩이 다 익었으면 훌떡 까지듯이 건드리기만 해도 까지죠. 그런데 다른 데 착을 둔다면 평생 살던 이 몸뚱이의 착은 어찌 떼시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생활이 생활선이며 그냥 행선입니다. 화두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몸뚱이를 화두로 생각하십시오. 화두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남한테서 받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나에게서 그냥 저절로 생겨요. 이 몸뚱이가 난 것이 태초요 바로 화두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 집도 되고 화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인과응보 악업 선업이 한데 뭉쳐서 이 세상에 났기 때문에 고덩어리다 했으니 여러분이 그 고덩어리를 녹여서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살든지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과 살든지 또는 회사의 직원으로 살든지 사장으로 살든지, 선생님으로 살든지 학생으로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막론하고 각자 여러분의 탓이지 남의 탓이 아닙니다. 모든 잘못을 남한테 전가를 하고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그놈이 잘못해 가지고 집안이 그냥 어수선하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거든요. 자식이 학교에서 잘못해서 부모가 성가시면 "아이구! 저놈의 자식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러거든요. 자식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일체가 다 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 부처 노릇을 하시려면 오늘부터라도
> 그 하치않은 거 가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 성내지 말고 좋게 사세요.

여러분, 저 상점에 가 보십시오. 깡통은 깡통전에 깡통끼리 모여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이 과거로부터 자기가 지은 대로 차원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자식도 인연이 바로 그런 것이고 부부지간도 인연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깡통끼리 만나니까 그렇게 얼그렁덜그렁 하죠? 소리가 납니다. '넝마는 넝마전에 모여 있고' 하는 그 차원이라면 그것끼리 또 모입니다. 그러니 서로 고생을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증오하고 서로 그냥 욕하고 때리고 온통 '이년 저년, 이놈 저놈,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온통 이 야단입니다. 왜 그런가? 그게 아수라장이거든요.

이거 보세요. 세상에 이 몸뚱이로 태어나가지고 철모를 때 빼고 잘 때 빼고 늙었을 때 빼면 몇 푼어치나 산다고 그렇게 얼그렁덜그렁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즐겁고 패기 있고 자유스럽게, 좋으면 껄껄 웃어도 보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조그만 거 가지고 보잘것없는 것 가지고도 싸우거든요. 참 이상해요. 내가 가만히 보면요,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데 오만상을 찌푸리고 말입니다. 그걸 보면 그냥 난 우스워 죽겠어요. 정말입니다. 어떤 때는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구요, 어떤 때는 그냥 웃음이 납니다.

오늘도 차 타고 오는데 차마다 노랫소리가 흘러나와요. 그게 바로 부처님의 소리가 그렇게 퍼져 나오지 않느냐, 울려 나오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처님의 소리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의 도량이 아닌 데가 하나도 없고 도인 없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오면서 보니까 네 살 먹은 애가 차에 치여 죽지 않으려고 빨리 뛰어가더라고요. 고것도 도인이더라고요, 하하하.

여러분! 글쎄, 생각해 보세요. 개도 불성이 있는 겁니다. 없다고 해도 있는 거고 있다고 해도 없는 거고, 사람에 따라 차원에 따라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이 부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개도 차가 오는가 안 오는가 이리저리 둘러보고선 차가 오니까 딱 서는 거예요. 그러곤 차가 딱 지나가니까 쏜살같이 건너가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 개도 도인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부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 부처 노릇을 하시려면 오늘부터라도 그 하치않은 거 가지고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좋게 사세요. 부부지간에 살면서도 "여보! 당신 오늘 얼마나 노고가 많았소." 하고 웃고 들어오면 그냥 미안하고 그래서 '여보 당신, 참 얼마나 일하시느라고 애썼느냐' 하고 이렇게 말이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당신 하루 종일 뭐 했어?" 이러고 들어오면 "아니?" 이렇게 나오지요. "아니, 뭐?" 이렇게, 하하하.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거 가지고 실랑이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법을 못 배워요. 그리고 자유스럽게 못 살아요. 자유스럽게 살아야, 먹을 것에도 착을 두지 않아야 들어와요. 돈도 착을 두고 가지려고 애를 쓰면 자꾸 달아나가요. 병고도 탁 놓고 '네가 업보로 인해서, 인과응보로 인해서 모두 뭉치게 한 거니까,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 알아서 해라.' 아, 이러고 탁 놓으니까 이게 심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구, 난 내 그릇이나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달아나가거든요.

그전에 이런 얘기 한 예가 있었죠. 어떤 사람이 감기를 앓았는데 너무 오래 앓았어요. 인제 죽을병이 되어서 의사들도 다 괴질이라나 그러면서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외아들인데 그냥 하도 병이 안 떨어지고 애를 쓰니까 스님이 오시자 여쭤 봤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당신네 나무 패는 모탕 있죠? 도끼하고." 그거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 놓으니까 도끼를 들고 그놈 좀 이리로 내오라고 그러거든요, 허허허.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놀랐겠소? 아, 그놈 내오라고 그러니. "어서 나오너라. 스님이 나오라고 하신다." 해서 나오니까 그놈 모가지를 그냥 모탕에다 턱 놓고 "이놈, 감히 어디라고 네가 부처님 앞에 붙어서 이러느냐!" 이러면서 그 모탕에다가 목을 올려놓고 그냥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여기 와서 그걸로 인해서 얻어먹고 살려고 했는데 뚝배기가 깨지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뚝배기를 들고 얼른 도망을 갔습니다. 그 아들한테 뚝배기를 씌워 놨거든요. 뚝배기를 씌워 놔야 병을 앓아서 내가 얻어먹거든요. 그래 뚝배기를 벗겨 가지고 얼른 도망을 가니까 그 병이 바로 낫더라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좀 내버리세요, 네? 죽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원통합니까? '내일 죽은들 어떻고 모레 죽은들 어떠리. 좀 더 살면 어떻고 덜 살면 어떠리.' 아, 이렇게 좀 하면 어때요? 뭐가 그렇게 그렇다고…. 그렇게 내버리고 산다면 그냥 좋은 밥에 좋은 옷에 화목한 가정에, 참스러운 마음에서 이리로 가도 좋고 저리로 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덩실덩실 춤을 춰도 다 못 할 것입니다. 정말이지 여러분이 "저 중 미쳤어." 이럴까 봐 춤을 못 추지, 허허허. 아니, 모르는 사람들은 "저 중 미쳤어." 그럴 거예요. 그러니 이 공부 하는 데 미쳤다는 소리 한마디 듣지 않고는 공부 못 합니다.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진심으로써 자기한테 자기가 미쳐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길잡이한테는 지혜를 구하고자 따르는 거고 자기를 발견하려면 자기를 믿어야만 됩니다. 만날 여러분이 기복으로 끄달리고 귀신 짓을 하기 때문에 귀신이 되는 거지 여러분이 귀신 짓을 하지 않는데 어찌 귀신이 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진짜로 아주 중심에다 활을 꽂을 수 있다면 진짜로 아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아니 되는 거 없죠.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89년 10월 1일 국내 지원법회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오직 호흡뿐 = 호흡의 물리가 터짐 = 제6차크라 열림 = 전기뱀장어의 몸 = 기공의 대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를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를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www.holytec.com
오리지널 유골 보석
영옥(靈玉)
· 납골의 변질과 혐오감이 없습니다.
· 깨끗한 모습으로 영구적입니다.
20년을 유골성형 한 길로 고인 고유의 색상을 발현시켰습니다.
▣ 1기 생성 소요시간 60~90분 소요 ▣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 검색
상담 : 010-5235-2677

| 현불 논단 |

산사의 대중살이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큰 절에 들어와 몇 해를 살다보니
도둑 들까, 불날까, 손님 올까 등
잡다한 근심 걱정 저절로 사라져

스님에게 '대중에 산다' 특별 의미
투박한 언행, 온갖 감정을 다듬고
짜여진 규칙, 대중 행사 철저해야
그래야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대중 생활 번잡하지 않냐' 묻지만
난 대중에 사는 게 기쁨이고 행복

10여 년 말사 주지를 살다가 큰 절 대중에 들어와서 몇 해 살다 보니 잡다한 근심 걱정들이 저절로 다 사라져 버렸다. 도둑 들까. 불날까. 손님 올까. 물난리 날까. 식구들 싸울까. 주지의 고민은 한도 끝도 없었다.

출가자에게 '대중에 산다' 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다. 흔히 대중에 사는 것을 '시냇물에 나뭇잎 떠가듯 한다' 고 하기도 한다. 그저 흐름에 몸을 맡겨서 거스름 없이 유연하게 더불어 함께하는 생활이다. 어쩌면 세상의 누구보다 강한 개성과 특별한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스님들이지만, 오직 구도를 위해 대중에 살면서 거칠고 투박한 언행을 다듬고, 불쑥불쑥 솟아나는 갖가지 감정들과 생각들을 닦아가며 사는 생활이 바로 대중생활이다. 대중에 살기 위해서는 예불, 공양시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울력과 각종 대중의 행사에 철저해야 한다. 그래야 편하고 자유로울 수 있다.

대중생활은 역설적이게도 속박과 자유가 동시에 존재한다. 짜여진 대중의 규정과 틀 속에서는 자유롭지만 그 규정과 틀을 지켜야 하는 일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나뭇잎처럼 자신을 버리는 것도, 물결에 몸을 맡기듯 대중과 화합하는 것도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출가 때부터 수덕사 스님들이 대중에 사는 법에 대해서 자주 듣곤 했다. 선원에서 수행할 때는 묵묵히 화두삼매에 들어 수행하고, 법당에서 염불을 해야 하면 음성과 운곡을 뚜렷하게 하여 스님들과 신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법문을 해야 하면 법상에 올라 당당한 법문을 설하는 법사가 될 것이며, 소임을 맡으면 공사구분을 분명히 하여 대중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손님이 오고 갈 때는 맞이하고 보내는데 예의와 법도를 잃지 않아야 하며, 어떤 소임이나 일이라도 대중에 정한 일은 정성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전국의 어느 도량에 가더라도 수덕사 식구라고 하면 대중살이의 원만함을 인정받았다고 한다.

아마도 근대의 대선지식 만공선사의 수행가풍이 면면이 이어져 온 까닭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중노릇하는 밥값을 하려면 이런저런 대중의 소임을 피할 수도 없으니 이왕 하려면 잘하라는 것이리라.

몇 년 큰절 한 편에 조용한 방을 얻어 살다가 작년 가을 10여 평 독채 오두막으로 이사를 왔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사를 하다 보니 살림살이가 훤히 드러났다. 쓰잘데기 없는 잡다한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숨이 절로 나왔다. 대충 나눠줄 것과 버릴 것들을 정리해도 남은 짐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오두막살이는 또 새로운 살림살이를 필요로 했다. 주변의 풀이랑 잡목을 정리할 톱이며 낫에 삽이며 괭이 등 갖가지 도구와 공구들이 하나 둘 늘어났다.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해제 때가 되면 '토굴 시봉' 한다더니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작은 집 한 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참 손이 많이 가고 번잡하다.

큰 절에서 조금 떨어진 숲속이라고 별별 희한한 일들이 생기곤 한다. 집근처에 커다란 구렁이가 허물을 벗어 놓아 놀라게도 하고, 두더지가 땅을 파놓아서 새벽예불길에 발을 접질리기도 하며, 산짐승들이 여기저기 똥을 싸놓기도 하고, 창문이라도 열어 놓으면 갖가지 벌레들이 제집인양 드나들기도 한다. 그래도 창문조차 제대로 열기 어려웠던 큰 절 생활에 비하면 무척 자유롭고 즐겁다.

예불 다녀오면 천 걸음, 공양 다녀와도 천 걸음, 이리저리 하루 6000 걸음은 기본이다. '대중에 사는 게 불편하고 번잡하지 않냐' 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즐겁고 편하고 좋다. 대중에 산다는 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社 說

사회통합에 불교·정계 힘모아야

조계종 종정예하 성파 대종사가 9월 21일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성파 대종사의 종정 취임 이후 산문 밖 대중설법 역시 이날이 처음이었다.

이날 성파 대종사는 김진표 국회의장과의 차담에서 여야 갈등에 매몰된 정치권에게 국민화합과 상생을 위한 행보를 걸어줄 것을 당부했다.

국회 정각회 후반기 회장에 주호영 의원이 취임한 후 처음 봉행된 법회에 여야 불자 의원을 비롯해 국회 직원불자와 조계종 총무원 소임자 스님, 신도 등이 300석이 넘는 객석을 가득 채웠다.

이날 성파 대종사는 불교는 호국정신으로 국난 위기 속에 큰 힘이 되어 왔음을 주지시키고, 시종일관 우리 안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낼 지혜가 있기에 힘을 모아 정진해 나가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어려움을 맞았을 때 불교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희생을 아끼지 않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 한반도 역사와 우리 민족의 삶 속에 불교는 그만큼 깊이 스며있다.

정치권은 불교가 우리 사회와 뗄 수 없는 관계란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불교가 우리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교를 넘어서, 오랜 세월 한반도 역사와 문화 속에 깊이 스며있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장자종단의 새로운 종정, 새로운 총무원장과 함께 불교는 앞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에서 불교수행에 근간을 둔 정신문화 보급과 함께, 사회현안에도 힘을 보태려 하고 있다. 정치권이 지속적으로 전통문화 계승과 보전을 넘어 새로운 문화 창달에 나서고, 불교의 역할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백만원력의 힘, 계속되길

2018년 9월 28일 조계종은 전임 총무원장 사퇴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36대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원행 스님의 앞에는 혼란에 빠진 사부대중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과제가 있었다. '안정과 화합' 은 제36대 집행부의 화두가 됐다.

이러한 가운데 제36대 총무원장으로서 원행 스님은 백만원력 결집불사를 전면에 내세웠다. '화합과 혁신의 미래불교' 를 서원하며 내건 백만원력 결집불사 아래 불자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기치 아래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세종 광제사 및 전통문화체험관 건립, 계룡대 호국홍제사 건립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불교는 일사분란하게 각종 법회와 행사 취소 등의 결단을 내리고 대응했다. 연등회 취소는 큰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러한 결단으로 불교계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성보가 제자리를 찾는데 힘썼다. 또 불교성전을 편찬해 수지독송의 문화를 형성해 나갔다.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함께 불교계가 만들어간 4년은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불교가 희망의 연꽃을 피워내는 시간이었다.

이런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9월 27일 4년 간의 소임을 마무리했다. 원행 스님은 우리 모두 부처님 그늘 속에서 청량함을 이루고 다함께 불국토가 되는 세상을 만들도록 정진하자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제 바톤은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로 넘어갔다. 진우 스님은 원행 스님과 같이 사부대중의 힘을 하나로 모을 것을 천명했다. 오늘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새롭게 전진할 때다.



유응오의 **문화 산책**
⑧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산과 바다 사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은 그 '헤어질 대상' 이 연인인 까닭에 멜로 영화다. 정해준(박해일 분)이 두 번째 남편과 재혼한 이유를 묻자 송서래(탕웨이 분)는 "다른 남자와 헤어질 결심을 하느라 결혼했다"고 말한다. 극중에서 서래는 네 차례 헤어질 결심을 한다. 처음으로 헤어질 결심을 하는 대상은 폭행을 일삼는 첫 번째 남편 기도수다. 송서래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짠 뒤 산 정상에서 기도수를 밀어뜨려서 살해한다. 정해준은 이 사건을 맡은 부산경찰서 팀장이다.

송서래는 알리바이가 확실해 혐의에서 자유로워진다. 사건 당일 한 노인을 간병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정해준은 송서래가 기도수를 살해했음을 뒤늦게 안다. 그 순간 정해준은 이 사건을 자살로 종결지은 이유가 피의자의 혐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피의자를 사랑했기 때문임을 깨닫는다. 정해준은 결정적 직접 증거가 저장된 휴대폰을 아무도 못 찾게 바다 깊은 데 빠뜨려서 은폐하라고 지시한다.

정해준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 송서래의 사랑은 시작된다. 송서래는 "여자에 미쳐서 사건을 망쳤다"는 정해준의 음성 파일을 듣고 또 듣는다. 그 음성 파일이 저장된 휴대폰에는 남편을 살해한 결정적 증거도 담겨 있는데도…. 송서래는 정해준과 헤어질 결심을 하느라 애널리스트인 임호신과 결혼한다. 그리고 정해준이 사는 이포시로 이사한다. 그런데 임호신이 정해준과의 음성파일을 발견한 뒤 송서래를 협박한다. 하여 송서래는 임호신과도 헤어질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송서래는 철성을 교묘히 교사하여 임호신을 살해토록 한다. 정해준과 송서래는 형사와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만난다. 그런 와중에도 둘은 송서래의 할아버지와 어머니 유골을 뿌리러 호미산에 오른다. 송서래는 다시 정해준과 헤어질 결심을 한다. 정해준이 지시한 대로 아무도 찾지 못하게 바다 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다.

이 영화는 산과 바다라는 두 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다. 공무원 신분의 등산가인 기도수가 산을 대변한다면 자유로운 성격의 소유자인 임호신은 바다를 대변한다. 그렇다면 정해준과 송서래는 산과 바다 중 어디에 해당할까? 송서래가 지자요수(智者樂水) 인자요산(仁者樂山)이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한 뒤 자신은 어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자 정해준도 자신도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런가 하면, 정해준이 송서래를 사랑하는 이유가 몸이 꼿꼿해서이고, 서래가 정해준을 보는 순간부터 좋았던 이유는 품위 있어서이다. 산과 바다의 사이에 둘의 사랑도 있는 것이다.

이 영화의 주제는 마음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우선 제목이 헤어질 '결심(決心)' 이다. 까마귀를 물어온 고양이에게 송서래는 "나한테 선물을 꼭 하고 싶다면, 그 친절한 형사의 심장을 가져다주세요. 난 좀 갖고 싶네"라고 말한다. 나중에 정해준이 "왜 내 심장을 갖고 싶냐"고 묻자 "마음"이라고 답한다.

마조 선사는 심즉시불(心卽是佛), 즉, 마음이 부처라고 일깨워주면서 그 방법으로 '도불용수(道不用修) 단막오염(但莫汚染)' 즉, '도는 닦을 필요가 없고 다만 오염되지만 않으면 된다' 고 했다. 사랑도 다르지 않으리라. 〈소설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마음 달이 홀로 밝으니 …'
편찬자 보각, 대중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머리 조아려 삼배 올립니다.

마지막 13판은 돈이 없어 유고로 남기려 했는데 빈도 가면 할 사람 없고, 12번 배포가 선원 중심이라 사부대중에게 전달 못해 아쉬웠는데, 보시로 문제가 해결되나 대중공양에 값을 매김(권당만원, 농협312-0193-6901-41, 계주:정임상)은 정법이 아니니 돈 없어도 신청하세요.

◈ 10월10일까지 신청서가 도착되어야 마무리하고 동지절 경신일에 갈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137-8번지 501호 위 옥탑법당 보각스님
◈ 사찰명(신행단체명), 주소, 성명, 전화번호(택배에 필요), 신청부수, 입금액 기재해 편지주세요. (전화 010-2458-0379 있으나 이석증으로 통화가 불가능하고 문자마저 서툴러 꺼두고 있음.)
◈ 내용 : 신심명, 법보단경, 증도가, 법성게, 천부경, 비파시불 이래 역대불조 전법게, 정법진언, 실참(수행 요령) 등 805면에 소신공양 자세로 소납 정성 모두 담았습니다.
◈ 12판과 다르나 돈이 없으니 선원, 강원, 율원도 신청하셔야 인쇄, 송부가 가능합니다. 군소종단 종도, 청신사, 청신녀도 신청, 정법으로 수행 금생에 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로 소납 하직 인사에 가름하오니 부디 열심히 정정진하여 금생에 성불하소서.

釋迦牟尼佛 瑞相受戒親法子 桓國沙門 曉瞰 釋普覺 謹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원가 상승으로 10월 1일부터 부득이하게 가격이 인상 되오니 주문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법왕과 각국 승왕단이 주관하는 품수의식

국제 합동 보살계 금강계단 대법회

전계대화상 교수아사리 갈마아사리 칠증사 증명단

불조의 법맥 전수 봉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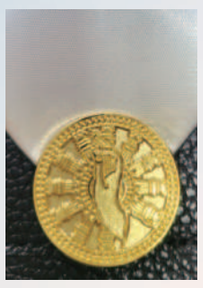
참여예정국가 : 미얀마,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인도, 몽골, 중국, 대만, 일본

일시 : 2022년 11월 12일 (토) 1시 장소 : **여의도 국회의사당 회관 대강당**

상좌부 최고 상가라자님들이 뜻을 같이하여 불조의 법맥을 전해받은 수법제자로서 계유과 전통을 이어받아 교수아사리와 갈마아사리를 통하여 四種教授의 가르침을 수지하고자 합니다 법상좌의 수법제자로 四種鉤印(사종구인)하여 중생의 스승이 되길 기원하는 대설법전을 봉행하고자 합니다.
지구촌 어느 곳 어느 장소에도 부처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함께하여 전쟁과 다툼이 없는 세상 고통받는 불우 이웃이 없기를 기원하며 이타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화합하고 협동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세계 각국 정신적 지도자들이신 법왕과 승왕을 모시고 한국 불교 각종단 큰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세상을 열어가는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한국불교를 이끌어 주시는 지도자요, 중생의 지팡이이신
530여 종단 종정 큰스님, 총무원장 스님 성스러운 법석에
정중히 초대합니다. 불교 포교에 헌신하신
참석 스님 전원에게 공로훈장(메달)을 드립니다.

– 사전 등록해 주시면 정해진 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

봉행단 총재 **금당 목탁 대승정** / 봉행추진 위원장 **금강 혜정 대종사** / 조직위원장 **법성, 현담, 대공** / 심사위원장 **법원, 심오, 법륜, 월산, 월암, 법성, 현경, 송운, 법운, 대도, 백련** / 봉사단장 **박정의, 정영숙,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박정하, 모미숙, 송윤서, 김명옥, 김경실, 황은지, 윤점심, 김미숙, 김유자, 이양순, 이재옥, 이은송, 김나영** / 경호처장 **고동욱** / 의전봉행위원장 **김재은, 이정희, 김수경**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제12회 세계 붓다 평화 봉사대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3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을 찾습니다.

법하의 주위에 봉사와 헌신으로 승가 재가자 중
자랑스런 살아있는 보살(봉사대통령)을 추천해 주세요.

*본 협회는 어떤 명목이든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봉사 대상 상패와 훈장 기념품 증정

제출서류 : 봉사자 이력서 1통, 자기소개서 및 봉사내역, 3개월 미만 여권사진 2매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않은 사진이나 사진 첨부가 안된 서류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016-0537-9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 023501-04-147581 (예금주 :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국민** 023501-04-214874 (예금주 : 세계불교 법왕청 중앙정부)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대한민국 나라사랑연합협의회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 (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전화 : 02-733-5665 HP : 010-3618-6061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은 대행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9월 23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개회식 후 발표자와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지구촌 위기, 공생으로 넘자”… 세계 석학 한목소리

‘뉴노멀 시대, 공생의 삶’ 주제로
9월 23~25일 한마음선원 본원서
미국 등 8개국서 석학 20명 참석
코로나 극복 · 심성 과학 등 논의
UAE · 이스라엘 주한대사 특강도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기후 위기 등 지구촌의 당면 문제에 대한 성찰과 공생(共生)의 실천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학술대회가 열렸다.

한마음선원 산하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개막식에는 조계종 총무부장 삼혜 스님,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안양본원 주지 혜솔 스님, 이원욱 국회정각회 명예회장,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국제학술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스님은 “대행 선사께서는 지구의 일체 생명이 고통스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셨고, 그 가르침은 지구사랑 실천 과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방법이나 생각의 흐름에서 다른 부분이 있을지라도 지구촌을 살리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은 우리 모두 한 방향이고 한마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행 선사께서는 종교의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가르침은 동일하다고 말씀하셨다”면서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에 개최되는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공생’을 강조하신 선사의 뜻에 따라 대화와 화합의 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내빈들의 격려사와 축사도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총무부장 삼혜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환경과 코로나, 전쟁의 위기는 타인을 이용하고 자연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모든 것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런 의미에서 ‘뉴노멀시대 공생의 삶’을 대주제로 열리는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는 참으로 시의적절하다 할 것이다. 모두가 함께 하는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학술대회로 회향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원욱 국회정각회 명예회장은 축사에서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활과학인 ‘한마음과학’의 정신이 전 인류의 위기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했으며,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도 김대현 종무실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번 학술대회가 공생의 삶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위기에 처한 지구와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성이 동국대 총장도 “불교, 기독교, 가톨릭 등 5대 종교 전문가 및 학자들이 소통하는 이 자리가 우리 시대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단서와 해답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미국 · 캐나다 · 독일 · 이스라엘 · 아랍에미레이트 · 대만 · 아르헨티나 등 8개국 20여 명의 석학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석학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지구촌의 문제를 되짚고 공생, 통합, 평화의 방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제시했다.

3일간 이뤄진 국제학술대회는 기조강연, 특별강연 2회, 발표세션 6개와 특별세션 1개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으로는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이 ‘만물만생과 통하는 한마음’을 진행했으며, 특별강연은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주한대사와 압둘라 샤이프 알 누아이미 아랍에미레이트 주한대사가 진행했다.

발표 세션은 △현대사회와 종교의 실천적 역할 △생명 위기를 통한 미래의 성찰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 △관법 수행과 소통 △공생과 사회적 실천 △마음과 의학, 건강한 삶 등으로 구성됐으며 주제에 맞춰 석학, 전문가들의 발표들이 진행됐다.

세션 ‘생명 위기를 통한 미래의 성찰’에서 ‘팬데믹과 죽음의 그늘 속 영적 보살핌 필요성’을 발표한 독일 본대학 만프레드 후터 교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종교적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후터 교수는 “진보적 성향에 종교 공동체는 당국의 규제를 따르고 지지하는 데 적극적이었다”면서 “‘근본주의’ 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죄 많은 세상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는 종말론적 상징으로 간주하거나 인간을 구제하는 신성한 초자연적 힘을 믿으며 공적 규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세션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에서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살핀 논문과 대행 선사와 신학자 한스 큉을 비교 · 고찰한 논문이 눈길을 끌었다.

정상만 파평중 교사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비춰 본 수행적 관점에서의 가족의 의미’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족주의가 어떻게 형성 · 발전됐는지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폈다.

한마음 아카데미 연구실장 혜유 스님은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한스 큉과 대행 선사 제안 비교’에서 개혁적 신학자 한스 큉과 선사를 비교했다.

혜유 스님은 “한스 큉과 대행 선사는 정반대의 환경이었음에도 한스 큉은 현대 가톨릭 개혁의 첨병을 넘어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윤리를 제창했고 대행 선사의 사상과 행적은 한국 불교의 혁신적 행보를 보였다”면서 “서양과 동양, 서로 다른 환경에서의 성장, 남녀 등 모든 차이를 넘어 두 혁신가가 바라본 지구의 위기와 대처는 흥미롭다, 실천방안은 다르지만 정신계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주장한다”고 분석했다.

세션 ‘마음과 의학, 건강한 삶’에서는 물리적 치료에 국한된 현재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긴 연구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장미란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원은 ‘암 치유를 위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 발제에서 물리적 치료만이 암 치유의 근본 해결책이 아님을 지적하고 심성과학으로의 발전 방안을 살폈다.

채식을 통해 지구촌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치엔테 린 대만 츠지대 종교인문연구소장은 ‘전염병 시대의 부처님 가르침: 츠지(慈濟)의 채식주의 운동’을 통해 츠지재단 설립자 청옌 스님이 코로나19 시대에 설한 가르침과 채식주의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청옌 스님은 자연을 존중하고 지구를 사랑하며, 재난 속에서 교훈을 얻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전염병 예방과 재난 구호에서 대중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식주의를 장려해 왔다.

치엔테 소장은 “채식주의 식단은 마음을 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친절과 연민의 마음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채식주의자가 되어 도덕적 수양을 하며 전염병에 대응하는 것은 불교의 업설과 인본주의 불교 정신을 모두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특별강연

종교 간 대화, '평화 증진' 첫 걸음

'포용성 증진을 위한 UAE의 노력'

최초로 포용 내각부처 신설
2019년 '포용의 해'로 선포
공공교육 내에 포용성 강조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

"아랍에미레이트(이하 UAE)는 지난 2019년을 '포용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해 2월에는 전례 없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이것은 종교 간 대화가 평화, 번영 및 상호 이해를 위한 수단이라는 UAE의 확고한 신념이 구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 UAE 대사는 9월 23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포용성 증진을 위한 UAE의 노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 강연에서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UAE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포용 정책을 소개했다.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UAE 정부가 2016년 세계 최초로 포용성을 다루는 내각부처를 창설했음을 소개했으며, 2019년을 '포용의 해'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포용의 해 선포에서는 지역사회의 포용성에 초점을 맞춰 여러 문화들을 통한 가치 증진과 응집력 있는 사회를 촉진하기 위한 전국 커뮤니티센터 활성화를 표방했다"면서 "학교 및 대학 전반에 걸친 교육 시스템 내에서 포용성의 가치에 입각한 교육을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UAE는 200개 이상 민족들이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 문화 행사들을 진행했다.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대사는 "이 선포를 통해 UAE는 세계 다른 국가들이 따를 수 있는 포용의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서 "다양한 문화, 종교, 문명 간의 포용과 대화를 아우르고 강화하는 일련의 시도와 프로젝트를 통해 UAE의 위상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대사는 2019년 2월에 이뤄진 프란치스코 교황의 UAE 방문도 소개했다. 방문기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과 이란의 종교 지도자(Grand Imam) 셰이크 아흐메드 알 타예브(Sheikh Ahmed Al Tayeb) 간의 만남이 이뤄졌고, 이들은 '세계평화와 공존을 위한 인간 형제애에 관한 문서(Document on Human Fraternity for World Peace and Living Together)'에 서명했다. 그는 "종교 간 대화가 평화, 번영 및 상호 이해를 위한 수단이라는 UAE의 확고한 신념이 구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마음 이루는 길, 우주 살리는 길"

기조 강연 '만물만생과 통하는 한마음'



혜근 스님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내가 자석이 되면 못도 자석이 되듯이 저절로 주변을 나아가 지구 생명체, 더 나아가 지구를 비롯한 전 우주를 살리는 길이 작은 나인 내 마음을, 근본자리인 주인공과 한마음 이루는 길입니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장 혜근 스님은 9월 23일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만물만생과 통하는 한마음' 주제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혜근 스님은 스승이신 대행 선사와의 첫 만남을 소개하며, 강렬했던 선사와의 기억을 술회했다. 1986년 암투병 중인 부친을 살린다는 명목으로 올린 정성금을 되돌려 받으려고 선사를 찾은 혜근 스님은 "도인이 왜 존재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병·고·액·난에 허덕이고 있는데요"라고 물었다. 이에 대행 선사는 "네 몸에 죽고 사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은지 스스로 알면 지금 네가 궁금해 하는 것을 안다"라고 답을 했다.

혜근 스님은 선사의 강렬한 눈빛과 답변에 대해 "당시 기억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장님이 눈뜬 자를 알아볼 수 있었겠나'"라고 회고했다.

혜근 스님은 "주인공이 큰 에너지의 자석이라면 못도 와서 자석이 된다. 관하는 것이 그것이다"가 대행 선사 가르침의 요체임을 강조했다. 주인공을 진실히 믿기만 해도 그대로 자석에 붙은 못이 되어 저절로 자석이 된다는 것이다.

"장님의 지팡이가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 인생길에선 주인공"이라고 밝힌 혜근 스님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며 전체의 주인인 '주인공'이다. 이러한 마음자세로 살면 삶 자체가 주인공과 한마음 되는 과정이니 고가 아닌 수행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삶의 모든 경계를 맡기며 가는 것이 우주의 근본, 만물만생의 근본인 주인공과 하나 되는 길이며 모두를 살리는 자리이타의 길"이라며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마음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과정으로 삶을 사는 것이 마음을 살리는 길이며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세션1 현대사회와 종교의 실천적 역할

스스로 빛이 되어라

우리를 통합하고 분열시켜 온 팬데믹



브렛 샤프스
브리검영대학 국제법종교연구센터장

브렛 샤프스 브리검영대학 국제법종교연구센터장은 9월 23일 열린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 세션1에서 '우리를 통합하고 분열시켜 온 팬데믹: 뉴노멀 시대에 상호연결과 화합을 창출하기 위한 미국과 후기성도의 관점'을 주제 발표했다.

샤프스 센터장은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이 가져온 변화를 되짚고 법률적, 비법률적 전략들에 대해 분석했다. 샤프스 센터장에 따르면 '변화 극복의 법적 자원'은 종교 모임과 비종교 모임을 비슷하게 대하는 차별 없는 원칙, 특별한 수요가 있을 때 합리적인 종교 활동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합리적 수용 방안을 말한다.

샤프스 센터장은 코로나19 유행 시기 중요했던 것이 비법률적 전략들임을 강조했다.

그는 "비법률적인 것에 대한 예로는 서로에 대해 인내하고, 관용하고, 자제하는 것"이라며 "스스로 빛이 되어 빛을 비추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든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옹호하는 정책과 관행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법가, 佛法 전하는 새로운 방편

대행 선사의 '선법가' 활용에 대한 소고



청고 스님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

한마음국제문화원 실장 청고 스님은 9월 23일 열린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 세션1에서 '대행 선사의 선법가 활용에 대한 소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선불교 가르침을 전파하는 법'을 주제 발표했다.

스님에 따르면 한국 찬불가의 역사는 7세기 무렵 원효대사 시절까지 올라가며 다시 활성화 된 것은 20세기 초엽이다. 1970년 후반 대행 선사는 불이법(不二法), 본래성품(本來性品), 마음공부의 요체 등과 같은 선불교의 본질적인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선법가'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선법가 가사의 대부분은 대행 선사가 설한 법문에 나오는 게송(偈頌)으로 이뤄져 있다. 처음에 선법가들은 일요일 정기법회를 마칠 때 합창 형식으로 불려졌고, 점차적으로 선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종류의 공식 행사에서 활용됐다.

청고 스님은 "가르침의 방편으로 노래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한국인의 정서에 잘 맞다"면서 "이 같은 환경은 대행 선사가 선(禪)의 이치를 밝혀주는 노래라는 뜻의 '선법가'를 처음 개발하게 된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션2 생명 위기를 통한 미래의 성찰

코로나19가 가져온 종교적 명암

팬데믹과 죽음의 그늘 속 영적 보살핌 필요성



만프레드 후터 본대학 교수

만프레드 후터 독일 본대학 교수는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세션2에서 '팬데믹과 죽음의 그늘 속 영적 보살핌 필요성'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난 종교적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후터 교수는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종교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살폈다. 그에 따르면 '신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집합 금지 조치를 무시한 채 대면 종교 의식을 지속한 집단이 있었고, 반대로 규제를 이행하면서 가상의 매체를 이용해 대안적인 집회 방식을 도입한 종교 공동체도 있었다. 이 중 대면 종교 의식을 지속한 종교단체는 집단 감염을 일으켰고, 이는 대중 사이에 '종교'에 대한 비판이 불거지는 계기로 작용했다.

후터 교수는 "진보적 성향의 종교 공동체는 당국의 규제를 따르고 지지하는데 적극적이었다"면서 "'근본주의' 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죄 많은 세상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는 종말론적 상징으로 간주하거나 인간을 구제하는 신성한 초자연적 힘을 믿으며 공적 규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이후 보편화된 온라인 비대면 종교의식은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활용은 학습 영역에서 종교생활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게 후터 교수의 설명이다.

하지만, 가상 모임 중 '실제 접촉'과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 작용의 부재로 종교의식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이와 함께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어렵게 된 점도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현상이다. 후터 교수는 "종교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정상적인' 과정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거의 중단됐다"면서 "코로나19는 죽음에 대한 이별 의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으며, '존엄한 죽음'을 약화시키거나 사라지게 했다"고 주장했다.

세션3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가치

가족, 상호 탁마의 수행공동체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비춰 본 수행적 관점에서의 '가족'의 의미



정상만 교수
파평중학교

정상만 파평중 교사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비춰 본 수행적 관점에서의 가족의 의미'를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제 발표했다.

대행 선사는 가족이라는 인연이 수억겁의 세월 동안 윤회하면서 잠시 시절 인연을 만나 함께 하게 되는 것일 뿐 이번 생에서의 유일회적(唯一回的)인 인연이 아님을 통찰한다. 정 교사는 "대행 선사는 끊임없이 안으로 놓는 수행을 권면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수행의 기회를 가장 빈번하게 제공하는 곳이 바로 가족이라는 공동체"라며 "대행 선사가 가르친 가족은 그대로 서로가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며 절차탁마하는 수행공동체였다.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최적의 도반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윤리 형성 어떻게

새로운 실천, 새로운 가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디지털 윤리의 관점



올리버 쮈르너 교수
슈투트가르트 미디어대학

올리버 쮈르너 슈투트가르트 미디어대학 교수는 '새로운 실천, 새로운 가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디지털 윤리의 관점'을 주제 발표했다.

쮈르너 교수는 찰스 에스의 저서 〈디지털 미디어 윤리(Digital Media Ethics)〉를 통해 △결과주의 △의무론 △도덕 윤리 관점으로 디지털 윤리를 분석해냈다. 그는 결과주의적 접근을 통해 어떤 디지털 미디어 매체를 이용함에 있어 상황이나 맥락에서 초래하는 결과에 근거해 판단할 것을 조언했으며, 의무론적 접근을 통해서는 행동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약속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도덕 윤리적 관점을 통해서는 일상적인 실천에서 '탁월함'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이고 학습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으로 나아감을 강조했다.

대행 선사 가르침으로 미래 대비

2019년 팬데믹,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석한 21세기의 패러다임



구스따보 아드리안 델 벤또 변호사
아르헨티나 국가 의회 하원

아르헨티나 국가 의회 하원 소속 구스따보 아드리안 델 벤또 변호사는 '2019년 팬데믹,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분석한 21세기의 패러다임'을 주제 발표했다.

연구 논문에서 델 벤또 변호사는 지난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의 패러다임을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분석했다. 그는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공공정책 △새로운 가정생활 △노동 부문의 변화 △생태계 변화를 살피고 어떻게 변화에 대비할 것인지를 살폈다.

델 벤또 변호사는 "선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최근 일어난 일들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모든 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계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적 결속으로 코로나 파고 넘자

코로나19 어려운 문제, 어려운 해결책



던스턴 로비두 수사
세인트 앤셀름 수도원

미국 세인트 앤셀름 수도원의 던스턴 로비두 수사는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세션2에서 '코로나19 어려운 문제, 어려운 해결책'을 주제 발표했다.

로비두 수사는 △호흡기 질환으로서 코로나19 상황 △전문가들 간의 의견 차이 △의무 예방 접종의 도덕적 문제 △백신 사용의 장기적 영향 △도덕적 이슈로서 백신의 보편화 △사회학적 함의와 혼란 등 총 6가지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비두 수사는 코로나19라는 파고를 넘기 위한 방안으로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작은 집단들과 경제·가정·종교 생활을 하면서 가까운 결속이 생길 수 있다"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중심적인 영적 원칙을 찾거나 함양할 수 있고, 이에 근거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방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혁신가 한스 큉·대행 선사

글로벌 위기 극복 위한 한스 큉과 대행 선사 제안 비교



혜유 스님
한마음 아카데미 연구실장

한마음 아카데미 연구실장 혜유 스님은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세션3에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한스 큉과 대행 선사 제안 비교'를 주제 발표했다.

혜유 스님은 신학자 한스 큉과 대행 선사의 생애를 살피고 유사점을 고찰했다.

특히, 한스 큉의 '세계윤리'와 대행 선사의 '오공(五空)' 사상을 비교했다. 스님은 "한스 큉의 세계윤리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세계윤리연구소는 현재 각 학문분야에서 세계윤리와의 융합을 연구하고 있다"며 "대행 선사의 독특한 '한마음주인공 관법' 수행으로 누구나 쉽게 내면의 불성을 자각하고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지구촌 평화와 밀접한 '둘 아닌 도리'를 통한 자비와 공생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행 선사 '우주적 음악' 느껴야

대행 선사 마음의 소리 없는 울림: 리듬과 패턴



김재영 교수
서강대 종교학과

김재영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는 '대행 선사 마음의 소리 없는 울림: 리듬과 패턴'을 주제 발표했다.

김 교수는 대행 선사의 삶과 자료들에서 근본적인 변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순간이나 일련의 사건들에 주목하고 세 가지 패턴을 확인했다. 첫 번째는 종교적 회심(回心)이다. 김 교수는 "고독한 생활 속에서 대행 선사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다른 의미와 존재의 지평을 마주하기 시작하면서 심오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두 번째 변혁적 변화는 '도덕적 회심'이며, 세 번째는 지성적 진정성에 가깝다. 김 교수는 "대행 선사는 종교적 회심과 도덕적 회심 모두에 존재하는 일종의 초월성을 가진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행 선사의 우주적 음악이라는 하나의 웅장한 관현악 연주를 보고 들어야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특별세션

한마음과학 'A to Z'

한마음과학의 길



황수경 교육실장
한마음과학원

황수경 한마음과학원 교육실장은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한마음과학의 길'을 주제 발표했다. 황 교육실장은 한마음과학원의 역사와 비전, 실천 과제 등을 소개했다.

황 교육실장에 따르면 한마음과학원은 1996년 대행 선사가 설립한 한마음선원 부설 연구 및 교육 전문기관이다. 한마음과학원에서는 '일체의 근본이 한마음이며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 아니게 돌아가는 한마음의 원리'를 인문·사회·자연·공학·교육·의학 등 다양한 전문 영역과 학문 분야에서 실증하고 적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황 교육실장은 "한마음과학은 정신계와 물질계를 통합하고 발전시키며 통찰과 직관, 그리고 지혜와 소통을 추구한다"면서 "한마음과학원이 추구하는 실현가치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만물만생이 한마음을 바탕으로 공생(共生)·공심(共心)·공체(共體)·공용(共用)·공식(共食)하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대행 선사 가르침 어떻게 가르칠까

캐나다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예비 연구



글렌 최 교수
세네카칼리지

글렌 최 세네카칼리지 교수는 9월 24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캐나다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예비 연구'를 주제 발표했다.

최 교수는 토론토 응용불교센터(TCAB) 불교 상담 과정의 집단적 연구 사례를 활용해 "캐나다 불교 수행자들에게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가르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 교수는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한 설명, '관법'이라고 부르는 대행 선사의 독특한 수행방법에 주목하고 수용전념치료(ACT) 모델에서의 수용, 탈융합(defusion), 가치(values)와 인지행동요법(CBT) 모델에서의 재구성(reframing)과 같은 개념들이 접목되면 선사의 가르침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수행자는 모든 개인적인 문제와 근심거리를 '주인공'이라고 하는 불성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강연

다양성 존중, 전통 종교가 수호할 덕목

글로벌 연결 시대 인간 존엄성·개인 자유 수호

뉴미디어 범람, 문화 평준화 유도
비판 수용 못하고 편향 여론 심화
종교, 획일화 아닌 다양성 중시해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주한 대사

"현대 사회는 인터넷을 통해 초연결사회가 됐습니다. 연결성을 통해 우리는 자유롭고 폭 넓게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반면, 비판적 담화와 통찰이 담긴 논제들은 약화됐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해야 할 때이고, 이는 전통 종교들이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아키바 토르 이스라엘 주한 대사는 9월 23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글로벌 연결 시대에 인간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 수호: 문화 평준화에 직면한 인류에게 자원이 되는 종교 전통'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창세기〉를 소개하며 "지구촌은 경작을 통해 살아가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이를 벗어났고 다양한 문제와 위기에 봉착돼 있다"고 했다.

그가 꼽은 위기 중 하나는 IT산업 발전 결과물인 '글로벌 연결성'의 폐해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과 소셜네트워크가 담론을 저하시키고 편향적 여론과 정치적 양극화를 조성하며 문화를 하향 평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편향 여론과 정치적 양극화의 예로 아키바 토르 대사는 2014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내전을 들었다.

당시 유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반전 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시위는 이내 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테러로 전위됐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유럽 거주 북아프리카, 터키인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들로 유대인 혐오가 확산됐다"면서 "이후 이런 혐오는 유럽의 극우화로 전환됐다. 적지 않은 유럽 국가가 권위주의·전체주의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키바 토르 대사는 "획일화된 사회가 아닌 다양성을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세기〉11장 바벨탑 이야기를 예를 들었다. 그는 "이들은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지향하며 하늘에 오르는 탑을 쌓았지만, 결국 무너졌다. 하나님이 획일된 언어와 문화를 원치 않은 것"이라며 "하나님은 인간이 주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길 원했다. '다양성 존중'은 전통 종교 모두가 가지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각각의 개성을 존중받는 문화를 종교가 이끌어야 한다. 이는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세션4 관법 수행과 소통

번역으로 대행 선사 가르침 전하기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소통 가교 구축



고효림 통번역사
한마음선원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

한마음선원 부에노스아이레스지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고효림 통번역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전문 번역을 통해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한 소통의 가교 구축'을 주제 발표했다.

고 통번역사는 "번역의 관점에서 명확한 텍스트를 전달하는 것은 원문을 해독하고 대상 텍스트로 전환하는 것 이상을 요구한다. 대행 선사의 다층적이고 심오한 법문을 전할 때는 특히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전제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의도·설법 방식·유머감각과 불교사 및 한국사적 측면의 사회문화 특성을 살피고 번안·보상·압축·명시화·생략·바꿔 쓰기·음차역 등의 번역 기법 중 어떤 것을 적용할지 결정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고 통번역사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대행 선사의 설법에 대한 자막 개선 작업을 수행하면서 경험한 바를 대중에게 소개했다.

주인공 관법 쉽게 접근하려면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지표 개발



유정오 교사
이반성초등학교

유정오 이반성초등학교 교사는 9월 25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세션4에서 '대행 선사 법문에 기반한 관법 수행 지표 개발'을 주제 발표했다.

유 교사는 대행 선사가 주창한 주인공 관법 수행에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관법 수행 지표를 개발했다. 연구는 대행 선사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담긴 법문 원전인 〈허공을 걷는 길〉에 주목했고, 대행 선사 법문 원전에서 관법 수행 관련 법문을 고찰해 수행 예비 지표를 추출했다. 지표 타당성을 검증할 전문가 패널을 한마음선원 사중 스님 102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델파이와 의사결정계층분석을 통해 타당화 및 중요도 평정 과정을 거쳐 총 17개의 관법 수행 지표를 개발했다.

유 교사는 "대행 선사 법문 원전에 기반하고 전문가 패널의 타당화 및 중요도 평정 과정을 거쳐 관법 수행 길잡이가 될 지표를 개발했다"고 자평했다.

세션5 공생과 사회적 실천

채식, 인본주의 불교 정신 발현

전염병 시대의 부처님 가르침



치엔테 린 소장
츠지대 종교인문연구소

치엔테 린 대만 츠지대 종교인문연구소장은 9월 25일 진행된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전염병 시대의 부처님 가르침: 츠지(慈濟)의 채식주의 운동'을 주제 발표했다.

논문에서 치엔테 소장은 츠지재단 설립자 청옌 스님이 코로나19 시대에 설한 가르침과 채식주의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청옌 스님은 자연을 존중하고 지구를 사랑하며, 재난 속에서 교훈을 얻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스님은 전염병 예방과 재난 구호에서 대중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식주의를 장려해 왔다.

치엔테 소장은 "채식주의 식단은 마음을 순화시킬 뿐만 아니라 친절과 연민의 마음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 도덕적인 가치를 통해 재난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채식주의자가 되어 도덕적 수양을 통해 전염병에 대응하는 것은 불교의 업설과 인본주의 불교 정신을 모두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세션6 마음과 의학, 건강한 삶

마음 통한 치유로 의료 패러다임 전환

암 치유를 위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



장미란 연구원
연세대 의과대학

장미란 연세대 의과대학 연구원은 9월 25일 진행된 한마음과학원 국제학술대회 세션6에서 '암 치유를 위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는 김미지·김종훈·김주현·이준엽 한마음과학원 연구원도 참여했다.

그에 따르면 우리 몸은 약 30조 개의 세포로 구성돼 있고 1초에 380만개의 세포를 교체하며 매일 3300억 개의 세포가 태어나고 죽는다. 암세포 역시 우리 몸에서 하루동안 생겨나고 없어진다. 최근에는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 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기전을 밝힌 연구도 보고됐다.

장 연구원은 "현대 의학의 암 치료법 발전에도 불구하고 암이 수 십 년간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물질적인 치료만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생명은 나무로 비유하자면 나무뿌리와 같은 각자의 근본 주인공이 있고 그 근본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한마음으로 돌아간다"고 강조한 대행 선사의 법문을 상기시킨 장 연구원은 "마음-육체 연결(mind-body connection)과 신체 건강의 잠재적 관련성 및 효과가 실험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암 환자에게 마음챙김이나 요가를 통한 마음 조절을 시행했을 경우 스트레스 감소뿐만 아니라 염증 관련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마음을 통해 육체의 변화를 이끌어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생명의 근본 마음인 한마음에다가 모두 놓으니 근본끼리 전부 주고 받는다", "우리는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고 둘이 아니게 오고 감이 없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대행 선사의 법문에 기인한다는 게 장 연구원의 설명이다. 실제, 신경 기술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5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의 두피 사이에 메시지를 보내서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뇌 대 뇌(brain-to-brain)' 통신 연구는 이를 뒷받침한다.

"마음에 의해서 육신이 움죽거리는 걸 알게 되면은 병이 낫는 것이고 마음과 마음이 둘 아니게 돌아갈 수 있는 그 과학적인 사실이 그대로 심성과학이다"라고 설한 대행 선사의 법문은 향후 나아갈 길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 장 연구원은 "우리 몸의 세포가 마음과 연결돼 끊임없이 협력한다는 인식으로 암 치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나, 진정한 리더십 '근원'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진정성 리더십의 가능성 연구



김영래 연구위원
한마음과학원

김영래 한마음과학원 연구위원은 9월 25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서 '주인공 관법을 적용한 진정성 리더십의 가능성 연구'를 주제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대사회는 진정성 있는 리더를 요구하지만, 존재 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양성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이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문제점은 대행 선사의 '주인공 관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서구에서 개발되고 있는 진정성 리더십의 이론모형을 '헤민슬리(Tana Heminsley) 모델'을 중심으로 살폈으며 루소와 프로이트, 융, 하이데거의 철학사상에서도 리더십 모형을 고찰했다.

김 연구위원은 '헤민슬리 모델'의 한계점으로 '참나'의 개념이 불분명한 점을 꼽았다. 그는 "주인공을 참나로 삼을 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나와 다른 대상으로 분별되지 않는다"면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대로 나와 남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인공 관법, 신체·정신에 긍정적 영향

붙들면 죽고, 놓으면 산다



리까르도 다니엘 블랑꼬 의사
아르헨티나 의료협회

아르헨티나 의료협회 소속 의사인 리카르도 다니엘 블랑코는 9월 25일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세션6에서 '붙들면 죽고, 놓으면 산다: 관 수행법, 마음-신체 의학과 정신, 신경, 면역, 내분비학적 영향'을 주제 발표했다.

그는 참선 수행을 △초월 인식과 경험의 융합을 지향하는 주의력 유형 △재평가, 관점 수용 및 자기 설계를 목표로 하는 건설 유형 △자아 탐구와 통찰력을 추구하는 해체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참선은 서로 다른 뇌의 영역과 인지 과정에 관여하며 심리, 신경, 면역, 내분비, 후성유전계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주인공 관법에 대해 블랑코 씨는 "이 수행의 기본은 우리의 근본 마음 또는 주인공에 대한 완전한 믿음, 주인공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믿음, 조건 없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고 봤다.

이어 "주인공 관법 수행은 심리, 신경, 면역, 내분비 및 후성유전계에 걸쳐 예방 및 재생 측면에서 폭넓게 유익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진정한 나', 의식 너머 있다

들이고 내는 한자리



한스욕 에플레 교수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한스욕 에플레 베를린 샤리테 의과대학 교수는 '들이고 내는 한자리: 의식에 대한 불교적 관점과 과학적 관점'을 주제 발표했다.

에플레 교수는 근대 철학자 데카르트의 저서 〈제1철학에 대한 성찰〉를 통해 "의식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늘날까지 의식연구의 핵심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데카르트 이후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현실을 두 개의 영역으로 엄격하게 분할하는 이원론을 거부했다. 특히 현대 과학자들은 이원론을 배척하고 오히려 자연과학이 기술하는 물질세계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초라고 주장한다. 에플레 교수는 '진정한 나'는 모든 의식의 너머에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의식의 근간인 '진정한 나'는 의식의 내용으로 규정되지 않는다"면서 "1인칭 경험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다. 우리가 모든 경험의 핵심인 '진정한 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자아성찰적인 1인칭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촌 공생의 삶을 위한
마음, 과학, 종교의 역할
2022.9.23.~25.
안양 한마음선원 3층
2022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Interconnected Existence in a New Normal Age:
Mind, Science, and Religion
주최 : (재)한마음선원
주관 : 한마음과학원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동국대학교, BBS, BTN, 현대불교신문